

郷土史料

第1集



社壇
法人

鳥致院文化院

發 刊 辭



歲月의 흐름에 따라 우리 周圍에 사라져 가는 옛
祖上들의 남긴 傳해 내려오는 精神文化를 記錄으로
남겨 길이 傳하고저 합니다.

政府에서는 鄉土의 文化的 業을 發掘하여 保存하고
이를 다듬어 後世에 물려주고저 地方文化 事業으로
積極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1次로 郡과 더불어 蒐集한 資料를 活字化하여 내일로 이어져 나가
는 機會를 갖고저 합니다.

檀君 할아버지를 始祖로 하여 이땅에 祖上들이 生活하여 春夏秋冬
으로 四時가 分明한 季節의 環境 속에서 子子孫孫이 끝없이 繁榮하며
살아갈 未來를 生覺하며 傳해준 精神文化의 業을 되새길 수 있는 機
會를 갖게 된 것을 고맙게 生覺합니다.

本 史料集을 發刊함에 있어 좋은 資料와 뒷받침을 하여 주신 燕岐郡
과 關係機關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1985年 1月 日

鳥致院文化院長 李 基 鳳

目		次	
發刊辭		● 네강거리	38
燕岐郡 沿革	9	● 校洞/오금소의 한	38
		● 도승의 선물	41
鳥致院邑		東 面	
● 平洞	17	● 合江里	51
● 五峰山/곤두기보	18	● 合江/쇠줄	52
● 방아다리/문헌碑/燕靑學院/砧 山洞	19	● 合湖書院/양당말/젓절	52
● 방아미/竹林洞/積石塚	20	● 거림뜸	53
● 술전거리/山幕/貞洞/元洞	21	● 鷹岩里	53
● 오구미뚝병/新興洞/아홉거리/ 새터	22	● 下龍/가마골	54
● 百官/新安洞/섭골(薪洞)	23	● 매바위/聖洞/老谷/高亭	54
● 안골/思德山/서당골/머지미	24	● 허벅지 살을 달여준 光山(광산) 감씨(金氏) 정려문	55
● 石谷/특골/구랑말/瑞倉洞	25	● 禮養里	57
● 장춘바위/빙고개/새주막거리/ 원마루	26	● 산속골/養谷/忠臣門	58
● 옥터골/모과나뭇골/돌마루 內倉/鳳山洞	27	● 미꾸지/江村	59
● 孝烈門	28	● 松龍里	60
● 참새골/鳳山香나무	28	● 松山/도룡골/나븐마을/ 石佛	60
● 희밭/띠재골/도장고개/구렁 말/건너말	30	● 새터말	62
● 鳳山影黨/黨岩洞	31	● 英育堂/烈女金氏旌門	62
● 상절말/양뜸/뒗골/주막거리 안말/산직말	32	● 文舟里	65
● 礮岩/崔門三綱碑/忠孝兩全碑 將軍터/쇠떼백어/孫子뻘이	33	● 건녕골	65
● 목숨을 마쳐 간호한 崔滄(최회) 孝子碑	34	● 골말/堂山/용머리/치마바위 갈말	66
● 上洞/뗏집거리	36	● 鳴鶴里	66
● 明洞/새뜸/南洞	37	● 龍塘/집등바위/遠暮亭	67
		● 黃牛峙/城隍祭/용당주막	68
		● 外泰/서당말/거문들	69
		● 龍湖里	69
		● 치바위/出洞山/진고개	69

● 中龍/소정어/上龍/물봉재/ 다락바위	70	● 雙錢里	96
● 날근터/露積山/佛岩/동나루 ...	71	● 전당골/雙槐/못터	97
● 老松里	72	● 雙流里	97
● 황새미뜰	73	● 일곱길바위//술터/月亭/聖 堂절터	98
● 친구령/움골/노리미/講堂	73	● 生千/빌말/권터골/한지마봉 ...	99
● 가는개	73	● 新垌里	102
● 마근터	74	● 강골/송적골	102
● 內板里	74	● 松亭/살구정어/新垌/불당골/ 숙골	103
● 연못골/수청골	75	● 꼬마孝子(효자)金宗喆(김중 철)정려	104
● 새말/달박골/너더리/가장골/ 內板의수양버들	75	● 性育里	106
● 葛山里	78	● 書堂골	106
● 도끼바위/鳳舞洞/송늑천山所 ...	79	● 두루봉/原性育/槐洞/성뜸 과성	107
● 칩산/치마바위/언터말/姑婦 (고부) 烈女(열녀) 孫氏(손씨) 성씨(성씨)	79	● 登洞里	108
		● 元釜洞/稚岩/가마골/五龍洞 ...	108
		● 紅燭골/방죽안/山水洞	109
		● 鳳岩里	109
		● 鳳凰山/鳳岩/주막거리/岐陽 學校/봉바위	110
西 面		● 起龍里	111
● 靑羅里	85	● 요화리/五世丸孝碑	111
● 나발터	85	● 侍墓洞/망골/다랑이골/元起龍	112
● 良垌/獻垌	86	● 鳳崗/東幕골/白龍/隱洞	113
● 月河里	87	● 坪田/東山/新林/七名(7名) 의 孝子(효자)가 나온 洪延慶 (홍연경)집안 효자비	114
● 月洞/孝子旌門/典洞/月溪	87	● 菊村里	117
● 富谷/베루뱅이/뜸옥골/묘막 ...	88	● 가느실/厚德洞	117
● 龍岩里	89	● 독골/大朴/국말/정갓골/ 섬들	118
● 龍岩洞/용구/위양골	89	● 벼락정어	119
● 위치울/검단	90	● 高福里	119
● 瓦村里	90	● 下福	119
● 통미	90		
● 군량골/지와말/궁마골/隱岩 ...	91		
● 대실/밤나무골/礪岩터/孝 坊洞/까마귀도 감동한 孝子 ... (효자)成爾復(성이복)효자비	92		
● 기도로 치유시킨 扶安林氏(부안 임씨)정려문	94		

● 西福/上福/西高/사방말/ 飛龍山	120	● 상여바위/골말/佳鶴이 龍泉	142
● 東高/고산골/비룡산의 산삼.....	121	● 원수산/절골/압각수.....	143
南 面			
● 水山里	125	● 烈女昭	145
● 태천	125	● 松潭里	146
● 둔더기/수산	126	● 표적골/느티나무계.....	146
● 眞儀里	126	● 느티나무/葛米/孝成(효성) 으로 錦江(금강)의 얼음녹인 林命輯(임명즙) 정려문.....	147
● 진여울	126	● 湫通里	150
● 창말/현여울/찬샘골/瓦家 里/書堂골	127	● 잣띠/보통이/젓막.....	150
● 지름바위/솔고개/德岩/ 星田	128	● 方丑里	151
● 宗村里	128	● 정문말/銀杏나무/도렴말.....	151
● 文化岨/도산/말마루.....	129	● 鰲山/턱골/화동고개.....	152
● 뽕나무골/돌부처/祠堂祭/ 玉井/씻골	130	● 訥旺里	152
● 月山里	131	● 왕바위/원뎃골/새터말/文 岩/느랑이고개.....	153
● 꽃재/황골/介洞	131	● 馬洞	154
● 느티나무/합강.....	132	● 羅城里	154
● 燕岐里	133	● 岐湖書社	154
● 培達學校/花昭.....	133	● 사성나무/獨樂亭.....	155
● 위사티/바위내/서부/牧村 환재골	134	● 나리재/참샘골.....	156
● 구향교골/社倉고개.....	135	● 高亭里/鄉校말.....	156
● 松院里	135	● 御書閣/國土峯.....	157
● 錦湖書院	135	● 銀高介/소학동/東山.....	158
● 雙孝子旌門	137	● 相木亭/범지기/月城.....	159
● 烈女碑/원터/松溪洞/三世旌 門/遠湖/대소골.....	137	● 葛雲里	160
● 만자골/雙孝子李景窩(이경 설)정려	138	● 元師山/元師山城/倉村.....	160
● 陽化里	140	● 金砂/자지턱골/金砂驛/원셋.....	
● 영청이나루/안세거리.세거 리/上村	141	● 吳光杓殉節碑/치알봉/국치를... 당하자 자결한 吳剛杓(오강표) 순절비	161 162
		● 전월산의 버드나무.....	166
		● 며느리바위	168

錦 南 面

● 柑城里	175	● 龍浦里	189
● 장터/가운데뜰/연정/白鷺棲· 息處	176	● 佳洞/木亭里/성재.....	189
● 金川里	177	● 잉어바위/九龍말/쑥터 장터	190
● 金剛道本院/鶴峯/臥牛山.....	177	● 大平里	191
● 원금천/중방골/황새미.....	178	● 塔山里	191
● 達田里	178	● 新村里	191
● 닭재/망골/望墓臺/成三祠 堂/새터말.....	179	● 옷말	191
● 聖洞/玉井/元達田/원당이/ 자월/洪가봉.....	180	● 큰말/비학산/먹먹바위/새말 꽃절골	192
● 이나주/지루고개.....	181	● 靈谷里	193
● 南谷里	181	● 버드나무골/병풍바위/ 屏岩里	193
● 양지뜰	181	● 翰林亭/漢陽宮/영구골/취 병골/銀杏나무.....	194
● 큰골/무중골/강변말 산정말	182	● 永岱里	195
● 斗滿里	182	● 屯岱/우려울/밤절.....	195
● 산동/원두만/강장골.....	183	● 검바위/검배/바람재/삼맛 골/서당미.....	196
● 道岩里	183	● 안버드래/양달둔디/계랑이 靑龍안/범절.....	197
● 잣亭	183	● 흥개터골	200
● 울바위/안말.....	184	● 長在里	202
● 大朴里	184	● 金山/쌍바위산/고인돌무덤.....	202
● 초정골	185	● 절재의 금잔디.....	203
● 초정약수터/옷말/사기점골.....	185	● 永峙里	205
● 丑山里	185	● 槐木/부춧골/사양골/안골/ 永峙	206
● 구렁말/鳳川/축산.....	186	● 龍潭里	207
● 壺灘里	186	● 별말/비룡소/새터말/성재.....	207
● 돌탑	186	● 龍潭里 화병골고개/성덕/한삼/東五里...	208
● 洞倉/안터.....	187	● 石三里	209
● 黃龍里	187	● 元石三/안골/돌삼골.....	209
● 닭미	188	● 石橋里	209
● 용미/연소동/元黃龍/기와집 골/큰골	188	● 新村/돌다리.....	210
● 향각골	189		

● 芙蓉里	210	● 역말/한적골/石塔.....	236
● 芙蓉峰	211	● 맹골/궁말.....	236
● 元芙蓉/新基/새오개.....	211	● 東枚里	236
● 鳳起里	211	● 도람말/샘골/산직말.....	236
● 괴마위/누에섬/삼성들/새나 루/사려울의 느티나무.....	212	● 募山	237
● 사려울/새말/元鳳/鉢山里.....	213	● 新興里	237
● 점말/바리미/佳洞/13세에 3년 시묘한 康協(강협) 정려문...	214	● 물방아거리/生松.....	237
● 盤谷里	216	● 沙土	238
● 槐花山/앵청이나루/盤谷 약샘골	217	● 雲堂里	238
● 여수바위/錢積들.....	218	● 당말/佛堂谷/楊村/雲岡.....	238
● 朴山里	218	● 元省里	239
● 작약동/고랫골.....	218	● 古城/노루목/대부리.....	240
● 도깨비와 슬뚜경.....	218	● 元堂/孝烈門.....	240
全 義 面		● 柳川里	240
● 高登里	225	● 於川	240
● 세거리	225	● 多雲里	240
● 文筆峰/고등이고개/고등이 내/高麗山城.....	226	● 良安/外五柳/부처당터/李太 師山所	241
● 高麗山城.....	227	● 邑內里	241
● 觀亭里	227	● 雲住山/客솨터/두집매/북 바위	242
● 軍糧골	227	● 북숲나무.....	243
● 冷井/雷岩書院/느릿골/ 대추리	228	● 社稷壇	244
● 태우/寒石亭/담고개/淑井.....	229	● 四亭里	244
● 月照山/안골/찬샘골.....	230	● 비룡재/川西/觀亭골.....	244
● 장터골/四觀亭/벼락바위.....	231	● 평전말/忠臣洪植旌門.....	245
● 朴골/말미고개/射場들.....	232	● 소래재고개.....	246
● 文穆詞/三賢詞.....	232	● 小井里	246
● 我也目/三賢바위.....	233	● 廣岩/웃골.....	246
● 老谷里	234	● 內洞/벌말.....	247
● 上老谷/어리미재/兄弟峰.....	234	● 新井里	247
● 大谷里	235	● 가나물/陰閑谷.....	247
		● 陽閑谷/鍾聲洞/寒井里/돌 뜨기산/北門峴.....	248
		● 厲壇/山神祭/城隍堂 女妓淵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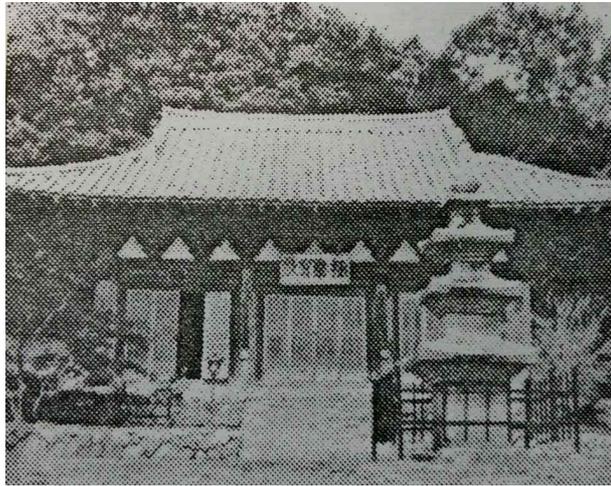
● 自然潭/石亭/獨松亭/蓮池……	250	● 松城里 ……………	282
● 아야목 ……………	251	● 요골/주막뜸……………	282
● 石谷의 선돌……………	253	● 무드리/젓말/술티/鵲城山……	282
● 벼락바위……………	256	● 李城/李城山/중말……………	283
● 호랑이도 밤길을 비켜준 金忠烈 信烈(김충열 신열)형제 정문……	258	● 松谷里 ……………	284
全 東 面			
● 靑松里 ……………	265	● 加재골/꽃짜골/소골/모시 티/兵馬山……………	285
● 쇠성 ……………	265	● 성재/중소골/옥자리티……………	286
● 배일/三松亭/梨逸洞天碑……	266	● 石谷里 ……………	286
● 대재/都靑……………	267	● 선돌배기/國師峰……………	287
● 靑監里 ……………	267	● 선돌 ……………	287
● 靑山 ……………	267	● 寶德里 ……………	288
● 버드나무말/시루바위/東幕골 도리말/개미기고개/개미골 쪽개/양지말……………	268	● 寶坪/書堂골……………	288
● 雲堂里 ……………	269	● 德昭/절터골/장군바위/羅氏 烈女門 ……………	289
● 영성들 ……………	269	● 深川/女必從夫(여필중부)한 杞溪俞氏(기계유씨)烈女門……	289
● 압실고개/마느실/말미/당 마루 ……………	270	● 美谷里 ……………	291
● 능골/梧軒槐/목숨을 바쳐 충간 한 金承露(김승로)……………	270	● 雲住山城/按廉使遺墟碑……	292
● 陽谷里 ……………	274	● 三千岩/水口洞/학당리/미륵 특당이 ……………	292
● 細谷/주막뜸/漆泉……………	274	● 達田里 ……………	293
● 陽地말/鴨谷/봉두미……………	274	● 다락골/龍頭尾/쇠성골……	294
● 草芳里 ……………	275	● 金城/원뿔골고개/비암골/ 부거실 ……………	294
● 頓地/芳耳洞/음달말……………	276	● 多方里 ……………	295
● 오야꼬지/신암골/호랑이와 동거한 金師俊(김사준) 정녀……	276	● 碑岩寺/銅穴岬/다락골……	296
● 松亭里 ……………	279	● 碑岩寺石塔/수랑골……………	297
● 술재/新垆/안터/사장골/ 상소골 ……………	279	● 金方洞 ……………	298
● 절뚝골/연숫골/큰중소골 獨松亭 ……………	280	● 盧長里 ……………	298
● 銅谷 ……………	281	● 양지말/李木洞……………	298
		● 竹葉里/원지기/盧長……………	299
		● 金沙里 ……………	299
		● 사기소티/아래사기소/사 기소 ……………	300
		● 鳳臺里 ……………	301

● 평말/덧골/棲鳳洞.....	301	● 미륵당 /신암골/절터골.....	306
● 고삿재/牧牛場/통미/삼천 바위	302	民 謠.....	307
● 山神祭/작성산의 명당/큰 절골	304	童 謠.....	316

연 기 군 연 혁

燕岐郡沿革

新石器時代부터 人類가 定着하기 始作한 現 燕岐郡 一帶는 馬韓때 部落社會國家는 形成되지 않았으나 마을의 形成은 徐徐히 이루어



졌었다. 三韓時代 馬韓의 月支局으로부터 南下하는 人類의 移動이 不雲國의 形成을 이루기까지 그 中間地點에 位置해서 처음은 現 全義地方과 南面의 燕岐里 附近에 터전을 이룩한 것으로 推定을 하나 수렵사회에서 農耕社會로 접어들어가는 變化에 따른 現象으로 全義地方은 수렵사회에 따른 人類의 定着이며 南面의 燕岐里 附近은 農耕社會에 따른 人類의 定着으로 보아 全義地方이 먼저가 아닌가 하고 推定을 해 보는 것이다.

農耕社會가 急速度로 發展됨에 따라 全義地方과 燕岐里 附近은 마을 形成이 크게 이루어지며 여기를 起點으로 고을이 形成되어 百濟때 全義地方에 仇知縣과 燕岐里 附近의 豆仍只縣은 결코 偶然한 形成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百濟가 夫餘로 都邑을 정한 후 燕

岐郡의 北端은 百濟와 高句麗와 新羅의 接境地帶가 되는데 그 接境된 山城이 全義의 鵲城山城이었다. 鵲城山城은 百濟의 標本的 山城으로서 北쪽의 高句麗山城과 東部の 新羅山城과 八紵 距離로 對峙하는 山城인데 口傳에 따르면 百濟軍의 北端의 山城으로서 重要的 位置에 놓였던 山城이었다고 한다. 百濟때 農耕社會로 자리를 굳힌 仇知縣과 豆仍只縣은 新羅때 瓦新 仇知縣은 景德王때 金池縣으로 고쳐서 現 天原郡 木川에 자리한 大麓郡의 領縣이 되었으며 豆仍只縣은 燕山君의 領縣이 되어 거듭 發展해 갔었다. 또한 高麗때는 金池縣은 全義縣으로 고쳐서 淸州牧의 高을에 속했으며 亦是 燕岐縣도 顯宗 9년(1018)부터 淸州牧의 管轄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歷史적으로 燕岐郡이 가장 活潑해진 것은 高麗 以後인데 한때 監務를 두어 全義縣은 木川의 監務(감무)가 管轄할 때에도 있었으나 高麗때부터 性理學의 移入에 따른 學問의 高장으로 登場하는 全義를 中心으로 한 그 一帶에 있어선 많은 氏族이 定着됨에 따라 學問의 高장으로 登場을 하며 또한 風水의 解釋에 따른 名堂地가 많은 現 燕岐郡一帶는 우리나라에서도 名門의 落郷과 定着에 따라 全國에서도 손꼽히는 名門의 터전이 되어 갔었다. 지금의 燕岐郡 人脈을 名門과 庶民文化의 兩立으로 分析을 하는데 名門의 文化는 忠錄에 依한 文化形成이며 庶民文化는 李朝末葉에 와서 뚜렷한 形成을 가져오는 實學思想의 뿌리로 解釋을 가하는데 이는 風水的인 思潮의 흐름으로 庶民文化의 뚜렷한 構策으로 흐름의 調和로 풀이하는 것도 興味있는 일로 觀察하는 곳이다.

李朝初葉 全義縣과 燕岐縣은 太宗 14년에 합쳐서 全岐縣(전기현)이 되었으며 太宗 16년에 各立하여 全義縣 燕岐縣이 되었다가 李朝末葉 高宗 32年 (1895)에 全義縣과 燕岐郡은 郡이 되어 全義縣은 郡內

面外 6個面과 燕岐郡은 西面外 6個面을 管轄하였었다. 1914년 行政區域 改革때 全義郡과 燕岐郡을 합하게 되는데 全義郡의 全部와 公州郡 鳴鶴面 草五介 外 27個 洞里와 陽也里面의 彭木亭外 35個里와 反浦面의 龍浦里와 三岐面의 柳溪 外 19個 洞里와 天安郡 小東面의 大寺 宮里 小井 大也 所柴와 懷德郡 九則面의 新達田 新東里 一部와 忠淸北道 淸州郡 西江外 一下面의 玉洞 正中 場垵 平里를 병합하여 옛날의 燕岐郡의 領域을 합쳐서 燕岐郡이라 하여 東面 南面 西面 北面 錦南面 全義面 全東面을 管轄하다가 1931年 4月에 面制 改正에 依하여 鳥致院邑을 新設하여 一邑 六面 百一洞里를 管轄하였는데 1973年 7月 1日 大統領令 6542號에 依하여 公州郡 長岐面의 羅城 松院 二個里를 南面에 公州郡 反浦面의 道岩 聖德 靈谷의 三個里를 錦南面에 編入하여 一邑 六面 百六洞里를 管轄하는 郡이다.

李朝末葉부터 日帝때에 걸쳐 交通都市로 脚光을 받는 鳥致院의 急速한 發展으로 繁盛해 가는 郡이다.

조 치 원 읍 편

鳥 致 院 邑

鳥致院邑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던 별판이었다. 公州와 淸州에 큰 部落이 形成되면서 스쳐가는 地點이었고 작은 마을로 全義와 燕岐사이에 있는 들이었다.

新羅統一後 燕山 <燕山·文義>郡의 領縣에 속했으며 高麗 현종때 는 淸州에 속했었다. 口傳에 依하면 조치원이란 地名이 新羅의 大學 者 崔致遠과 연관된다고 한다.

李朝 太宗때 全岐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이었다. 鳥致院이 邑으로서의 飛躍的 發展은 日帝初期의 鐵路가 施設되어 驛으로서의 면모가 커짐에 따라 交通의 要地로 등장하면서 부터다.

北一面으로서 10個里를 개편 管轄하다가 1917年 10월에 근처의 9個里를 西面에 넘겨주고 그 나머지를 鳥致院里로서 鳥致院面을 新設하여 指定面이 되고 1931年 4月 1日에 邑制設定에 依하여 鳥致院 邑으로 昇格되고 1931年 12월에 西面外 5個里를 편입(編入) 하고 1940년에 <里>를 <町>으로 고쳤다가 1947年 解放과 더불어 洞으로 고쳐서 14個洞을 管轄하는 邑이 되었다. 燕岐郡 一邑六面の 하나로 郡 所有地다.

平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岐郡 <燕山 · 文義>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하였으며 李朝太宗때 燕岐縣에 속했다가 全岐

縣에 속했다. 다시 燕岐縣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忠北 淸州郡 西江外 一下面의 地域으로서 別관이었다. 그래서 <빌말> 또는 <평리>라 하였고, 1941年 行政區域 改編때 燕岐郡 北面에 편입되어 鳥致院里가 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面에 編入되고 1940年에 <소화정>이라 하다가, 1947年 解放과 더불어 平洞으로 고쳤고, 鳥致院邑 平里가 되었다.

五 峰 山

鳥致院邑 西面 全東面 어름에 있는 山이다. 산의 높이는 262m인데 山이 다섯 봉우리로 되어 있어서 上峯에 祈雨祭壇과 山祭堂이 있어서 영험한 山으로 유명하다

곤두보기

鳥致院邑 앞들에 있는 보를 <곤두기보>라고 부른다. 일명 <보은덕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보는 李朝初에 許萬石이가 燕岐縣監이 되어 큰 내에 독을 막고 보를 내어 田畚 天餘마지기에 물을 대게 하는데 그때 독을 쌓을 때 그 보가 淸州땅에 있다하여 淸州 사람들이 數千名 몰려들어 許萬石이 친히 감독하는 걸상을 부수므로 許萬石이 크게 노하여 활을 당기어 쏘려고 하니, 淸州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감히 범하지 못하므로 그 보를 완성하여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줌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許萬石의 恩德을 갚겠다는 뜻으로 報恩德碑를 平里 앞에 세웠으므로 <보은덕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곤디기보>가 되었는데 그 數百年을 내려오는 동안에 碑石이 전복되어 땅에 묻혔으므로 現在 묻힌 비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방아다리

<빌말>앞에 있는 마을이다 . 地形이 방아의 다리와 같이 되었다해서 <방아다리>라 부른다 한다.

문 힌 비

<방아다리>에 묻혀 있는 비를 <문힌 비>라 한다. 鳥致院의 사정을 적은 비인데 이 비가 나오면 조치원이 망한다는 說이 있다 한다.

燕靑學院

지금의 明洞學校의 前身이 燕靑學院이다. 燕靑學院의 設立은 西紀 1924년에 篤志家인 金元根, 孟義燮, 朴興鉉이 시작하였으나 金元根이 빠지고 代身 柳暎鉉이가 가담하여 設立을 보고 燕靑學院이라 한다. 院長에 朴興鉉이가 되었다. 學院設立의 趣旨가 生活이 어렵고 不遇한 家庭의 子女들을 가르치는데 目的을 두었으며 初等學校 6年과정을 短期로 修了케 함이 目的이었다. 많은 人材를 배출하다가 設立後 22年째가 되는 1945年 3월에 廢校당하고 8·15 해방후 5個月前에 廢校당한 것이다. 그후 第二國民學校로 다시 發足 그후 明洞學校의 前身이 되었다.

砧山洞

百濟때는 豆仍只縣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郡 <燕山 文義>에 속했으며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으로서 <방아미산>이 있으므로 <방아미> 또는 <침산>이라 하였다.

1914年 행정구역 改革에 따라 신대리 백란리 내창리 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침산리라 하고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1917年 倭式 洞名 변경에 따라 다시 <침산동>으로 고쳐졌다.

방아미

<방아미>뒤에 있는 산을 <방아미>라고 한다. 낮은 산의 모양이 방아미 같이 되었다 한다. 그 산 아래에 있는 마을도 <방아미>라고 한다. 또한 <침산>이라고도 부른다.

竹林洞

百濟는 두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郡 〈燕山 文義〉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때는 燕岐縣이었다가 燕岐와 全義縣이 합한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음은 갈라져서 燕岐縣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에 燕岐郡 東一面의 地域으로서 <조천> 뚝 안쪽에 있으므로 <독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죽안> 또는 <죽내>가 되었다.

1914年 行政區域 改革에 따라 죽내리라 하여 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邑에 편입되어 <竹林町>이라 하다가 1947年에 해방과 더불어 <竹林洞>이라 하였다.

積石塚

<분퇴머리>에 있는 옛 마을이다. 그 무덤 속에서 무늬없는 土器와 동띠 모양의 청동띠 갈구리가 나왔다.

솔전거리

<분퇴머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술공장이 있었다 하여 <술전거리>라 부른다.

山 幕

<술전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산기슭에다 막을 짓고 살다가 마을이 되었다 한다. 옛날에 이곳에 山幕이 많았다. 하여 <山幕>이라 부른다.

貞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郡 <燕山 文義>의 嶺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때부터는 燕岐郡에 속했다가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燕岐郡의 地域이었다.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으로서 별판이었다.

1917年 鳥致院面에 編入되고 驛이 생기면서부터 이 地方이 번창해지자 1940年 해방과 더불어 <貞洞>으로 고쳤다.

元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三國統一後는 新羅때 燕岐郡 <燕山 文義>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淸州牧의 地域이었다.

李朝 太宗때 연기군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에 속했었다. 별판으로서 1914年 행정구역 改革때 鳥致院理라 하여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面에 編入되고 갑자기 번창하여짐에 따라 1940년에 鳥致院里를 갈라서 倭人들이 살게됨으로 <本町二丁目>이라 하다가 1947年 解放과 더불어 元洞으로 고쳤다.

오구미둑병

장터에 있는 둑병을 <오구미둑병>이라고 부른다. 둑병의 면적이 3,000여평이나 되었는데 둑병가운데 중교다리가 있었으며 낚시터로도 유명한 둑병이었다.

新 興 洞

百濟때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郡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하였으며 李朝 太宗때에 燕岐縣에 속하였다가 全岐縣의 地域이 되었고 다시 燕岐縣에 속하게 되었다. 李朝末葉에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으로서 別관이었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鳥致院里라 하여 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面에 편입되고 이 地方이 驛의 新設에 따라 갑자기 變성해지자 鳥致院里를 갈라서 1940年 新興町이라 하고 1947年엔 解放과 더불어 新興洞이 되면서 연기군 조치원읍에 편입되었다.

아홉거리

<새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홉갈래의 길이 있다해서 <아홉거리>라 부르며 <구거리>라고도 부른다.

새 터

신흥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처음에는 외딴 곳에다 새터를 잡았는데 지금은 큰 마을이 되었다 한다. 새로 이룩된 마을이라 해서 <새터>라 부른다. 또한 <큰말> <외딴말>이라고도 부른다.

百 宮

<새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벼슬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을이라 해서 <百宮>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新 安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郡 <燕山 文義>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때 燕岐縣 다음은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시 燕岐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연기군 北一面의 지역이었다. 숲이 무성함으로 <섯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석골> 또는 <신동>이라 하였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 때 忠北 淸州군 서강외일하면의 <옥동> <정중리> <장대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리>라 하고 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71年 조치원면을 신설함에 따라 읍에 편입되어 <신동>과 <안터>의 이름을 따서 <신안정>이라 하였다가 1947年 해방과 더불어 <신안동>이라 고쳤다.

섭골(薪洞)

신안동에 있는 마을이다. 숲이 무성한 그 안에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솥을 구우러 산속에 들어가곤 하였다 하여 솥을 싸놓은 마을이라 해서 薪洞이라 불렀다. <섭골> <석골>이라고도 부른다.

안 골

섭골 북서쪽 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내가 흐르고

그 냇물 안으로 안전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여 <안골> 또는 安垸라 부른다.

恩 德 山

新安洞 앞산에 높이 300餘m의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을 恩德山이라 부른다. 산에 올라가면 집채만한 바위가 덩그렇게 솟아 있는데 이 바위를 <은덕바위>라 부른다. 매년 정월 보름날이나, 사월 초파일이며 또한 팔월 보름때 마을 아낙네들이 제가끔 떡시루를 이고 와선이 바위 위에 놓고 충원을 하면 반드시 은혜가 온다고 하여 지금도 명절날이면 아낙네들이 모여들곤 하는 산이다.

서 당 골

<石谷> 마을 뒷편에 <서당골>이란 골짜기가 있다. 옛날 墳墓가 없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나무에 걸어놓고 할 때에 여기가 시체를 놓은 자리로서 <屍당골>이라 부르던 곳인데 변하여 <서당골>이 되었다 한다.

머 지 미

마지산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말을 탄 군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여기서 쉬어 갔다 하며 마을 뒷산 모양이 말굽과 같다 해서 <머지미>라 부른다 한다.

石 谷

<구락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이 마을에 돌이 많음으로 石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固城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특 골

머지미 동남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높아서 옛날에 적이 쳐들어 올때에도 많이 적을 무찌른 곳으로 <특골> 또는 <토옥동> <옥동>이라 부른다. 또한 여기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다 해서 <토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특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구 랑 말

<쇼골> 서북쪽 구렁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주위가 둥글고 고랑에 있다해서 <구랑말>이라 부른다.

瑞 倉 洞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君 <燕山 文義>의 嶺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때에 와선 燕岐縣 다음은 全岐縣 그리고 燕岐縣의 區域이었다가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으로서 社倉이 있었으므로 <내창>이라 하였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 때 서곡리 낙은리 일부와 忠北 청주군 서강외 일하면리 장대리 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창리라 하고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面을 신설할 때 하고 西面에 編入되고 1936年 鳥致院邑 확정에 의하여 鳥致院邑에 編入되어 <서곡>과 <내창>의 이름을 따서 <서창정 (西倉町)>이라 하였다가 1947年 해방과 더불어 倭式 洞名 변경에 따라 瑞倉洞이 되었다.

장춘바위

서창동 261 즉 돌마루 뒷산 기슭에 있는 바위를 <장춘바위>라 부른다. 좁은 바위 면에다 <藏春場>이라고 석자를 새겼는데 尤菴宋時烈的 글씨이며 肅宗때의 鏡城判尹 崔煊의 집터자리라 한다.

빙 고 개

<모가나무골>에서 봉산동을 가다가 봉산 영당을 사이에 하고 새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면 산기슭에 水庫가 옛날에 있었다 하여 <빙고개>라 부른다

새주막거리

<내창리> 남동쪽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주막이 생겨서 길가는 행인들이 쉬어가는 곳이라 하여 <새주막거리>라 부른다 한다. 洞里앞에 큰 古木<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옛날엔 허수룩한 주막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주막의 처음 이었고 몇년후 그 주막을 헐고 다시 크게 주막을 지었다 한다.

원 마 루

<내창>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때 行人의 편리를 도와주는 <院>이 있었다 하여 <원마루>라 부른다. <院>이란 院主를 두어 官員의 往來에 편리를 도와주는 곳이다.

옥 터 골

<돌마루>옆 동북쪽에 있는 옛 옥터를 <옥터골>이라 부른다. 土興部曲의 옥이 있었다 하며 또는 숙종때 鏡城判尹 崔煊이 돌마루에 살면서 근처의 죄인을 가두던 터라고도 한다.

모과나무골

<내창>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모과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모과나뭇골>이라 부른다.

돌 마 루

<내창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 백호뿌리에 돌이 박혀 있는데 내창리 서쪽에 있다 해서 <석우> 또는 <돌마루>라 부른다.

내 倉

지금의 瑞倉洞 二區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內倉이라 하는데 옛날에 곡식을 이 장소에 두었다 하여 그때부터 <內倉>이라 불렀다 한다.

鳳 山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岐로 고쳐서 燕山 <燕山 文義>郡의 嶺縣에 속했다가 高麗때에 淸州牧에 속했었다.

李朝 太祖때엔 全岐縣에서 다시 燕岐縣에 속했고 本來가 土興部曲의 所在地였다. 이곳은 <둥이> <둥리>라 하였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저촌리 낙원리 은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東里>라 하고北面에 編入되고 1939年 鳥致院邑 확정됨에 따라 鳥致院邑에 編入되어 五鳳山의 이름을 따서 鳳山町이라 하다가 1947年 解放과 더불어 鳳山洞으로 고쳤다

孝 烈 門

<등이>에 있는 孝子
와 烈女の 정문을 孝烈
門이라 부른다.

江華사람 崔重龍과 그
아들 崔澮와 崔澮의 아들
崔達源 崔進源 崔道源 三
형제와 崔達源의 아들 崔
一華와 崔進源의 아들 柱
華와 達源의 조카 崔有
華 崔挺華의 형제와 崔挺
華의 아들 崔赫의 열 사
람의 孝子和 澮의 딸 李
善養의 아내와 達源의 孫
女 趙鳴和의 아내와 遠
의 曾孫 義貞의 아내 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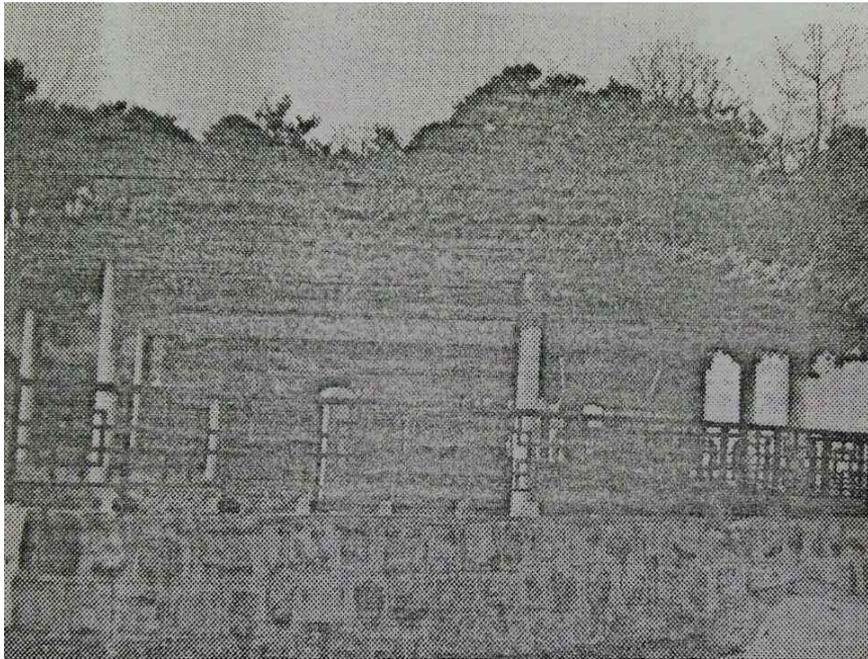


氏와 有華의 外孫女 朴氏의 다섯사람은 烈女로 旌門을 받아서 8代의
十五孝烈로 유명한 孝烈을 길이 빛내기 위해 세운 孝烈門이다.

참 셋 골

<등이>뒤에 있는 골짜기를 <참셋골>이라 부른다. 찬샘이 있어
<천곡>이라 부르고 또 숙종때 孝子 崔進源의 墓所가 이곳에 있다.

鳳山香나무



鳳山洞 128번지에 있는 향나무를 <紫檀향나무>라 부른다. 또한 大舜香樹라고도 부르는데 몸이 용틀림으로 올라가서 위가 일산처럼 퍼졌다. 이 향나무는 江華人 崔重龍이 弱冠에 심은 것으로 崔重龍은 出天之孝로 널리 알려져 世稱 東海大舜이라 하였는데 33歲에 죽었다.

그가 이 향나무를 심을 때 말하기를

「이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門戶가 빛이 나고 孝烈이 속출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 나무가 400餘年間 번창하는 동안에 10代에 걸쳐 孝子 10人 烈女 5人을 배출하였으니 예언 그대로였다.

後世 사람들은 이 향나무를 東海大舜이 심었다 해서 大舜香樹라 부른다

희 밭

봉산동 빙고개밑 아주 낮은 위치에 고랑으로 이룩된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희밭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여기에서 희를 구웠었고 崔松景墓碑가 있는 산모퉁이가 또한 희밭이었다 한다.

띠 재 골

<둥이>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띠가 많은 재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띠재골>이라 불렀다 한다. <저촌>이라고도 불렀다.

도장고개

<둥이>에서 서창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도장고개>라 한다. 土鄉部曲時代에 도장을 열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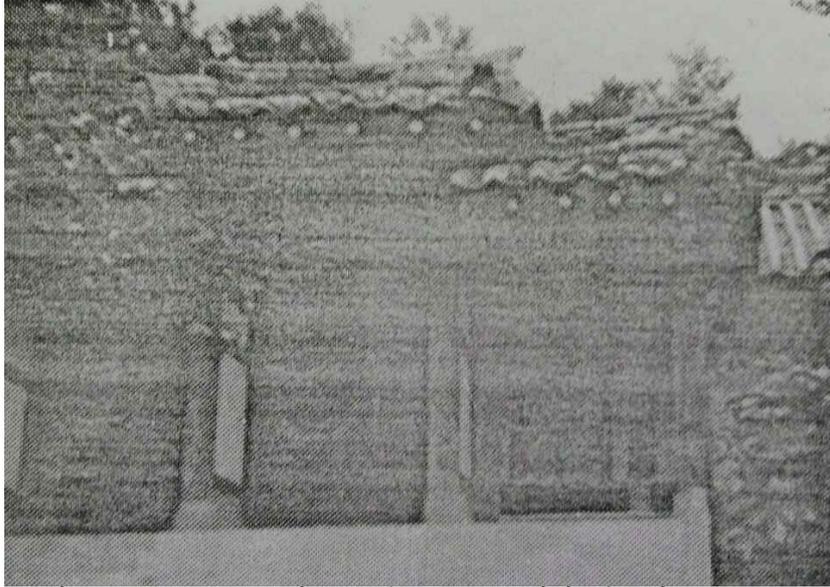
구 령 말

<둥이> 동쪽 구령에 있는 마을을 <구령말>이라 한다. <구령>말은 구령에 있다 해서 그리 부른다 한다.

건 너 말

<구령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명종때 孝子 崔重龍이 살았으며 丙子胡亂때 孝子 崔進源이 義兵을 일으키고 孝는 東里라 하였다. 구령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말>이라 부르고 孝가 숨어있는 마을로 알려진 마을이다

鳳山影黨



太宗때 刑曹判書 崔龍蘇의 影堂을 鳳山影黨이라 부른다

礮岩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岐로 고쳐서 燕山 <燕山 文義>郡의 嶺縣에 속했었다. 高麗때엔 淸州牧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李朝 太宗때 燕岐縣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시 燕岐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이었다. 뒷산에 반석이 있으므로 礮岩이라 하였는데 1914年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礮岩리라 하여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面 新設에 따라 西面에 編入되고 1939年 解放과 더불어 礮岩洞이 되었다.

상 절 말

<변암동>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상절>이란 절이 있었다

한다. <상절>이란 절이 있었다 하여 마을을 <상절>이라 부른다 한다.

양 뜸

<반암동>에 있는 마을이다 日帝時代 羊을 많이 기르던 마을이라 해서 <양뜸>이라 부른다.

뒷 골

<반암동>에 있는 마을이다. 길에서 뒤골짜기로 들어가서 마을이 있다하여 <뒷골>이라 부른다.

주막거리

<산정말> 옆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漢陽을 오고갈땐 行人들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주막이 있어서 行人들이 쉬어가곤 하였다. <주막>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주막거리>라 부른다.

안 말

<반암>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말>이라 부른다. 마을이 길에서 아늑하게 들어간 마을이라 해서 <안동네>라고 하며 <안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 직 말

礪岩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산직집이 있었다 하여 <산직말>이라 부르는데 <산정말> <산정촌>이라고도 부른다

磻 岩

磻岩 뒷산에 있는 바위가 <磻岩>이라 부르는 바위다. 큰 바위가
관관하여 반석으로 되어 있어서 磻岩이라 부른다.

崔門三綱碑

孝子 東海大舜 贈參議 崔重龍 일파에서 忠臣 孝子 烈女가 15명이
나 輩出된 略史를 綜合記錄한 碑.

忠孝兩全碑

忠臣孝子 贈特平 崔進源은 仁祖胡亂때 義兵將이 되어 北上하다 史
曹判書 大提學 李德壽 撰한 功蹟碑

장 군 터

옛날 鳳山洞에 將帥가 있었는데 東쪽의 40리나 떨어져 있는 八峰山
을 두발작으로 뛰어갔다 하여 將軍터라 불렀다 한다.

쇠때백어

世居하는 崔氏門中에서 大科及第하는 者가 輩出되었는데 서울에서
喜報가 오거나 當者가 집에 도달 또는 任官赴任할 때 그 소식을 附近
에 알리기 위하여 긴 쇠장대를 쫓고 북과 징을 달아 亂打하였다 하
여 이름을 쇠때백어라 불렀다 한다.

孫子뱀이

봉산동에 방축골이라 부르는 자연부락이 있다. 그곳에 한섬지기

큰 눈이 있는데 여름철에 맞은 편쪽 우물에서 老婆가 우물물을 길어 왔는데 같이 동행한 孫子가 없어져 찾아보니 우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손자뺨이라 불렀다.

목숨을 바쳐 간호한 崔澮(최회) 효자비

최회는 이씨조선 明宗朝(명종조) 계해년 3월 12일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낸 최회는 어린 나이에 부자집 자식같지 않게 효성이 지극하고 옷사람에게는 예절이 바르니, 이웃 어른들의 칭송이 분분 하였다.

최회는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이 적고 남의 잘못을 감싸주는 자상한 성품이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웠다.

인자한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단란하기만 했던 최회의 가정에 불행이 다가왔다.

최회의 나이 13세가 되던 어느해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어 손 쓸사이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행복하기만 했던 최회의 집안은 아버지를 잃은 비통으로 가득할 뿐이었다.

상을 치른 후에도 애통함을 금치 못하고 밥을 삼가고 죽으로 연명했다.

어린 나이건만 상복을 벗지 않고 묘소를 3년간 하루같이 찾아가니 그 효성됨이 어른못지 않으니, 주위 어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며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의 몫까지 어머니를 위하여 힘써 행하며 틈틈히 학문을 익힌 보람으로 후일 생원벼슬을 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렸다. 회는 어머니 모시기를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모시었다.

저녁마다 어머니의 잠자리를 펴드리고 이불속이 따뜻한가를 살폈다. 어머니가 잠이 들어서야 자기도 잠이 들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문안을 드렸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 또한 가뜰하니 어머니의 것을 따로 만들어 끼니때마다 봉양하였다.

최희가 벼슬길에 있을때 광해군께서王大妃(王大妃)를 폐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울분을 참지 못하는 충성심도 보여 주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상히 어머니께 알려서 궁금함이 없도록 하였다. 잠시라도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꼭 행선지를 알리었고 돌아와서는 즉시 뵈이는 일을 실천하니 어머니가 궁금치 않게 하였다.

가정이 넉넉하여 여러명의 종을 두고 살았으나 어머니의 병이 위중하면 효도하는 일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약을 다리고 대소변을 받아 내는 일까지 자기손으로 직접하니 이때 회의 나이 57세였다.

밤에는 귀를 기울여 어머니의 숨소리를 살폈다. 때로는 대소변의 맛을 보아가면서 달고 쓴맛으로 병의 증세를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약을 썼다 한다. 한편 하늘에 비는 일도 정성을 다했다.

눈보라 치는 매서운 겨울날에도 매일 거르지 않고 沐浴齋戒(목욕재계)하고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으며 어머니가 기력이 탕진해 정신을 놓으면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어서 소생케 하였다.

이토록 지극한 효성에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지 회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시었다.

어머니의 병간호로 과로를 했음인지 이제 최희자신이 병을 얻어 자

리에 눕게 되었다. 좋은 약을 써봤으나 병은 점점 악화되어 끝내 소생을 못하고 이듬해 봄에 죽으니 어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소문이 이웃 선비들이 알게되어 그에 효성이 지극함에 감동을 받고 나라에 알리니 후일 肅宗大王(숙종대왕) 병인년에 旌門(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최희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남겨놓도록 하였다.

이토록 많은 효행을 남긴 최희는 벼슬에는 별로 뜻이 없는 청렴결백한 선비로 권력있는 집에 드나들기를 삼가했고 항상 가난한 선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하니 가히 그에 청렴한 성품을 엿볼수 있다 하였다.

최희의 효성에 대한 이야기는 몇가지 점에서 다른 효자 이야기와 다른점을 찾을 수 있다. 흔히 효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과 싸우며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최희는 또한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일들에는 자상함을 보여 주었고 효란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 주었다.

上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에 燕岐로 고쳐서 燕山<燕山 文義>郡의 嶺縣에 속했다가 高麗때 淸州牧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이었다. 別관이었는데 1914년 行政區域改革때 鳥致院里 하여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邑에 編入되고 1940年 解放과 더불어 위쪽에 있다해서 上洞이 되었다.

뗏집거리

상동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에는 이 地帶가

별관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뗏집으로 움막같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뗏집거리>라 부른다 한다,

明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岐로 고쳐서 燕山<燕山 文義>의 領縣에 속했다가 高麗때에 淸州牧에 속했었다.

李朝太宗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그후 燕岐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지역으로서 별관이 되었다. 1914年 行政區域 改革 때 鳥致院里가 되어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1917年 鳥致院邑이 編入되고 鐵道 開設에 따라 驛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번창하자 倭式으로 旭町이 하다가 1947年 해방과 더불어 明洞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빛을 주는 발전소가 있으므로 <明洞>이라 부르게 한다.

새 뜸

<명동> 동쪽에 새로된 마을을 <새뜸>이라 한다 <新村>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는 마을이다.

南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고 新羅統一後엔 연기로 고쳐서 連山<燕山 文義>郡의 領縣에 속했다가 고려때에 淸州牧에 속했었다.

李朝太宗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그후 燕岐縣에 속하고 李朝末葉엔 燕岐郡 北一面의 地域으로서 별관이었다. 1914年 行政區域 改革에 따라 鳥致院里가 되어 北面에 編入되었다가 갑자기 번창하여 1917年 鳥致院里를 나누어서 倭式으로 赤松町이라 하는데 1947年 해방과 더불어 鳥致院 남쪽에 위치함으로 <南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네강다리

鳥致院邑 남동 남동쪽에 있는 경부선 철로의 다리를 <네강다리>라 부른다. 조천 하류에 있는데 다리가 네개가 있다하여 <네강다리>라 부른다.

校 洞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는 연기로 고쳐서 燕山 <燕山 文義>郡의 領縣에 속했다가 高麗때 淸州牧에 속하였다. 李朝太宗때 全岐縣이었다가 그후 燕岐縣이 되고 李朝末葉에 燕岐郡 北一面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다.

1914年 행정구역 改革時 鳥致院里가 되어 北面에 편입되었다.

1917年 조치원면에 編入되어 갑자기 변창하여 짐에 따라 1940年에 鳥致院里를 잘라서 (길야정)이라 하였다가 1947年 倭式 洞名 변경으로 또한 학교의 중심지이므로 <校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오금소의 한

지금으로부터 백년전만 하여도 조치원 보잘 것 없는 촌락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시대 조치원에 역이 생기자 들판에 움막부터 시작되어 차츰 부락이 좋은 건물로 번져나갔고 그리고 그때 조치원은 시장이 두개가 있었으니 하나는 신시장이 생기면서 구시장으로 불리우던 지금의 평동 상동일대와 충남 사람들이 이룩하는 지금의 원동일대의 신라장과 장터가 둘이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는 노비 오금의 이야기는 신시장과 구시장을 왕래하는 그 중간에 늪이 하나 있었고 그 늪과 노비와의 이야기다.

오금은 이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노비문서에 오른 상노의 딸이었다. 그는 어렸을때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주인집 헛간같은 데서 얻어주는 밥을 먹었지만 노비생활이란 이렇게 쓰라린 생활인 줄은 정말 몰랐다.

오금이가 어렸을때 어머니가 먼저 죽어서 가마니에 시체가 싸여서 아버지 지계에 실리어 집을 떠나갈 때도 그는 노비생활이 이렇게 고달픈 줄은 몰랐다. 어머니 시체를 묻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밤새 울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오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한 눈물을 흘렸지만 그 까닭도 몰랐다. 오금이 겨우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이가 되었을때 오금은 그때부터 주인집에 가서 잔심부름을 해야만 했다.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다. 아침 새벽에 아버지와 함께 주인집에 들리면 아버지를 하루종일 구경 못하는 날도 많았다. 오금은 아침부터 주인집 대청마루를 닦는 일이 부여됐다.

그는 열두살이 될때까지 대청마루를 번들번들하게 하루종일 닦아야 했다. 아무리 번들번들 닦아도 주인은 방에서 빨관을 쓰고 비스듬이 누워선 발에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고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았다.

오금이가 열다섯때 부엌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마루를 닦는 것보다 눈총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힘에 겨웠다.

그러나 먹을 것을 마음대로 훔쳐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오금이가 열일곱일 때 그녀에게 참지못할 일이 돌아왔다.

하루는 주인 심부름을 간 아버지가 장터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

을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와선 주인이 시키는 매에 맞아 죽은 것이다.

오금은 아버지가 있었어도 호소할 때가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마님몰래 부엌문을 붙잡고 속으로 한없이 울었다. 그때였다. 주인이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빨리 들려왔다. 그 늙은 땅에 물을 필요도 없다. 그 늙 까마귀 밥이나 되게 늙 근처에 버려라.

오금은 주인이 지껄이는 이말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날밤 달이 휘영청 할 때 늙 근처에 가서 아버지 시체를 안고 여기서도 한없이 울었다.

그녀가 한없이 울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그리고선 그도 슬펐던지 손바닥으로 눈시울을 훔치더니

「 비켜 울기만 하면 돼 ! 시체는 묻어야지 」 하고 소리치더니 시체를 덮석 등에 업고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 사나이는 어디서 팽이를 가지고 오더니 땅을 파고 아버지 시체를 땅에 묻어주곤

「 그만 가지 들키면 너도 죽어 」

하고 길을 재촉한다.

오금은 그때서 그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건너마을 부잣집 노비인 사내였다. 둘이서 눈이 마주치자 서로가 쳐다보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다. 오금이 아버지 시체가 늙 근처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주인은 집 상녀들을 모아놓고

「 그놈의 시체를 어서 찾아라 」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오금이 보고 방안에 들어오라 했다.

주인은 오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선 빙그레 웃더니

「 너는 오늘밤 목욕을 하고 내방에 들어오너라 」

하고 옆으로 눕는 것이었다.

그날밤 오금은 저녁때부터 목욕을 하고 어두워지자 주인방에 들어갔다. 주인은 이상하게도 유들 유들하게 웃더니 덩석 오금의 손목을 끌어당기었다. 오금은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욱 반항하자 모질게 매로 치더니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인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방에서 나와 늪 근처로 왔다.

늪 근처엔 자기 아버지를 물어준 사나이가 있었다. 오금은 울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사나이가 소리쳤지만 오금은 물속으로만 들어가서 그만 죽고 말았다.

그후 오금이가 이 늪에서 빠져 죽은 후 주인집 아들이 그해에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다음해엔 주인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

매년 한사람씩 그후부턴 이 늪에서 사람들이 빠져죽자 사람들은 이 늪을 오금소라고 부르며 이 근처에 가기를 꺼렸다 한다.

여기 늪이 물힐때까지 사람이 익산하는 늪을 오금의 한이 숨은 늪이라 하여 전해 내려왔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도승의 선물

충청남도 조치원에 한 농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 집주인은 오랜 병고끝에 운명을 하게 되었다. 그의 세아들은 부친의 임종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유언을 했다.

「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아무쪼록 의종게 지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재산을 똑같이 셋이 갈라서 잘들 살아야 한다. 」

이러한 당부를 하고 아버지는 운명했다. 세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일생동안 모진 고생을 해가며 일을 하여 많은 재

산을 남기고 간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두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 동생은 썩 빼놓고 저희들끼리만 재산을 갈라가지고 만 것이다. 막내동생에게는 한 마지기의 땅도 집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막내동생은 할 수 없이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 다니며 품팔이를 해가며 겨우 살아갔다.

「 그 욕심꾸러기 형들이 자네 재산을 몽땅 가로채서 이 모양이군 그라? 천하에 몹쓸놈들 같으니 천벌을 받을라 」

마을 사람들은 형들을 욕하고 막내를 동정했다. 그러나 막내는 펄쩍 뛰었다.

「아! 아네요 우리 형들은 아무죄가 없어요 큰 형이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줬는걸요. 그러나 전 아직 홀몸이고 형들은 가족을 거느려야 되니까 제몫을 도로 드린것 뿐이랍니다. 전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

하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착한 막내의 말을 바로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두형을 나쁘다고 욕을 했다. 욕을 먹은 두형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들은 막내를 불러서 호령을 하면서

「 너는 선친이 물려주신 그 많은 재산을 벌써 다 써버리고 거지행세를 하여 우리 형제들을 욕보이려 하느냐?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서 형들의 욕됨을 씻게 하여라 」

추상같은 호령을 내리고 마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당장 오갈곳이 없어진 막내는 울고 불고 매달렸으나 용서해주지 않는 형들을 원망하면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처없이 몇날을 거지행세로 헤매던 막내는 이윽고 어느 냇가에 다다랐다. 허리까지 차는 깊은 개울물을 건너려고 고이춤을 단단히 여미던 그는 문득 스님한분이 걸

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듯 비실비실 기운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아마도 열흘은 굶은 것 같았다.

「저 스님은 나보다도 더 많이 굶주리셨나 보군요. 그레가지고서야 어찌 이 세찬 개울을 건너시겠습니까?」

위태 위태한 스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는 주저함이 없이 스님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마침 스님은 더 이상 걸어오질 못하고 그 자리에 덜석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가겠다.」

중얼거리며 가까이 다가온 막내를 쳐다보았다.

「스님! 어디까지 가시는데 그러세요? 정신을 차리셔야지 그냥 주저앉아 계시면 어찌십니까? 벌써 밤이 깊어지는데요」

그러나 스님은 여전히 꼼짝않고 앉아만 있었다. 막내는 스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좀처럼 일어설 기력이 보이지 않았다. 밤은 점점 깊어서 산골에선 산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냐 난 더 이상 못걸어 가겠소, 젊은이는 뉘신지 모르지만, 어서 개울을 건너가야 이 밤을 무사히 보낼게 아니요. 어서 혼자 가시우」

백발이 성성한 노승은 한사코 고집을 부렸다. 그대로 버티고 앉아서 밤이 새기를 기다리자는 속셈인 것이다.

「아이 스님 그러지 마시고 어서 제 등에 업히세요.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죠. 자 어서요!」

하고 등을 내밀어 강제로 노승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다. 노승은 몸은 예상외로 무거워서 먹지못한 막내는 힘에 겨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업고 가는데 노승은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이리가게 저리가게 」

하며 자꾸 자꾸 산속으로만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산길은 점점 험악했다. 심심산중으로 첩첩 계곡을 따라 한참 가노라니 이윽고 암자가 하나 보였다. 까마득한 벼랑에 오두마니 세운 암자가 으스스 달빛에 외로히 서 있었다.

「 저기야 응 다왔네 이제 」

노승은 죽을기를 쓰는 막내의 등에서 어깨를 두들겨댔다.

「 휴 - 유 」

노승을 내려놓고 암자에 앉아서 막내는 큰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암자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다.

「 스님 이절엔 아무도 살지 않는가 보군요, 심부름하는 사람도 없구... 」

우선 기력을 못 차리는 노승이 조식을 어떻게 헤 먹었을까 ? 염려스러웠다.

「으응 그렇잖아도 나 혼자 살기가 매우 힘들어 사람을 하나 구해야겠으나 어디 사람이 있어야지... 」

「 스님 그럼 저를 뒤 두세요. 마침 저는 갈곳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니까 스님을 모시고 살지요 」

「 그래 ? 이 외진 산꼭대기에서 견딜 수 있을까? 」

하더니 노승은 쾌히 승낙을 했다.

그날부터 막내는 노승의 종자가 되어 암자를 지키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인적이 끊어진 이 외로운 산골짜기에서 밤마다 울부짖는 맹수들의 포효를 들으면 저절로 세상 생각이 간절했다. 막내는 형들이 그리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온 가족이 평안하기를 빌면서 하루 하

루를 보냈다.

어느덧 세월은 덧없이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삼년이 지나갔다. 막내는 못된 형들이지만 집생각이 간절해서 더이상 배길 수가 없었다.

하루는 참다 못해 스님을 보고

「 스님 제가 이곳에 온지가 벌써 삼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형님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집일도 궁금하니 이젠 마을로 내려갈까 합니다. 」

하고 울면서 아뢰었다.

스님은 딱한 듯이 막내를 보고 있다가

「 네가 정히 인간세상이 보고 싶다면 가려므나. 그동안 외로움도 참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내 선물을 주지.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게 」

하면서 짚방석과 바가지와 젓가락등 세가지 선물을 내주는 것이었다. 막내는 백배 사례하면서 절을 떠났다. 그는 가는 도중에 절반도 못가서 밤이 깊어 버렸다.

「 에이 벌써 날이 어두웠으니 할 수 없군, 오늘밤은 여기서 잘 수 밖에... 」

막내는 들판에다 짚방석을 깔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어느때 꿈인가 코를 골던 그는 우연히 단잠을 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 막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눈 앞에는 으리으리한 대궐문이 버티어 섰고 자기는 그집 안방에 앉아 있는게 아닌가.

「 이런 신기로운 일이 있나? 」

꿈인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봤으나 생시가 분명했다. 대궐문에 풍경을 울리는 소리를 들어봐도 분명히 생시다.

「 이 무슨 천지조화인가? 」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며 밑을 내려다 보던 막내는

「앗차! 여기는 바로 방석 위로구나. 어젯밤에 분명히 짚방석을 깔고 잤는데 이걸 그대로 있구만 가만있자 그렇다면 이 바가지도 보통 물건이 아니로구나 어디 한번 써보자」

하고는 바가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자 바가지 안에서는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별미반찬에 산해진미가 그득히 눈앞에 쌓이는 것이 아닌가?

「아하! 우리 스님이 주신 물건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로구나」 싶어 젓가락도 꺼내어 두들겨 보았다. 그런데 이걸 또 웬일인가. 젓가락 두들기는 소리대로 예쁜 여자들이 툭툭 튀어나와 시중을 들어 주는 것이었다. 도두다 아리따운 선녀들로 생글생글 웃으며 막내를 위로하고 춤까지 추며 집안일을 척척 해치우는게 아닌가! 몇날 밤을 호의 호식에 미녀들의 시중까지 받아가며 호화롭게 지낸 막내는 지난날 자기를 내쫓은 형들이 보고 싶었다.

「자 옛날엔 내가 가난해서 형들이 그랬지만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됐으니까 형들을 보러 가자」 하고는 대궐을 떠났다.

막내의 귀향행차는 임금 못지않게 화사한 가마에다 수행원이 줄을 이었고 그가 입은 의복 또한 세상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을 어귀까지 당도하였을 때였다. 막내는 가마에 앉아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호사스럽게 차리고 가면 형님들께서 분명히 못마땅하게 여기시리라」

결국 막내는 옛날 헌옷을 꺼내입고 거지차림으로 고향에 들어섰다.

막내는 형들이 무척 반가와 할 줄 알았다.

「형님! 제가 돌아왔어요」

반가운 김에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두 형들은 거지같은 막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막내는 그런것에 개의치 않고

「 형님들 지난날엔 제가 가난하다고 꾸중하셨지만 이젠 저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곁에 가까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다.

「 아! 이 녀석아 거지녀석아 거지녀석이 가까이 살면 뭘해 ? 당장 나가거라 」

하고 형들은 호령을 했다. 뿐만 아니라 등을 마구 밀어내는 것이었다. 섭섭한 마음으로 마을앞을 나온 막내는 밤이 깊자 짚방석을 깔고 앉았다. 그랬더니 당장 대궐같은 높은 집이 우뚝 솟고 갖가지 진수성찬이 쏟아져 나와 그 밤을 편안히 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두형이 슬슬 대문집엘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너는 막내 아니냐? 」

「 네.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

막내는 웃으면서 형들을 맞이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밤사이에 이런 집을 지었느냐 ? 네게 도깨비가 씌인것이나 아니냐? 」

형들이 따지고 묻자 막내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마을을 쫓겨 나서부터 스님에게 세가지 선물을 받게 되기까지의 일을 소상히 말해 주었다. 형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집의 재산을 모조리 동리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 자 이제 우리도 그 산으로 들어가서 스님을 만나보자. 가서 세가지 보물을 얻어오자꾸나 」

하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두형들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암자에

는 거미줄만 우거져 있을뿐 스님이라곤 그림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동리 사람들에게 나눠준 재물이 아까와 복통을 했으나 이미 소용 없는 노릇이었다.

알거지가 된 두형들은 별 수없이 아우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막내는 초췌하고 거지가 된 초라한 두 형들을 맨발로 뛰어와 반기며

「 아이구 형님들 어서 들어 가십시다. 형님 우리 이 집에서 함께 오순도순 삽시다. 네 형님들 」

꾸밈없는 막내의 태도에 비로소 두 형들은 이제까지의 잘못을 뉘우쳤다. 막내의 손을 잡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은 두형은 막내의 집에서 온갖 행복을 누리며 오래 오래 잘 살았다는 것이다.

이 면 편

東 面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景德王 때부터 燕山 <燕山 文義>郡의 領縣에 속했었다. 八峰山을 사이에 하고 지금은 忠北과 境界를 이루며 錦江을 경계로 한 이 지역은 李朝前만 하더라도 部落形成이 늦어졌던 곳이다. 高麗 현종 9年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李朝 太宗 14年에 全岐縣에 속하였고 그후 연기현에 속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 심한 災害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孝子 孝婦가 많이 나오며 독립투사가 많이 묻혔으며 선진적인 고장이기도 하다. 이조 말엽엔 연기군 東二面이었는데 東一面을 편입 연기군 東쪽에 位置함으로 東面으로 稱하고 10個里를 管轄하는 面이다.

合江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岐縣으로 고쳐서 燕山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때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李朝에 와선 燕岐縣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燕岐郡 東一面의 지역이 있었다. 五江 <금강 백강 학강등>의 지류가 이 곳에서 合하여지는 지대라 해서 合江이라 부르다가 1914年 행정구역 改革때 이웃 마을을 併合하여 合江里라 하고 燕岐郡 東面に 編入되었다.

合 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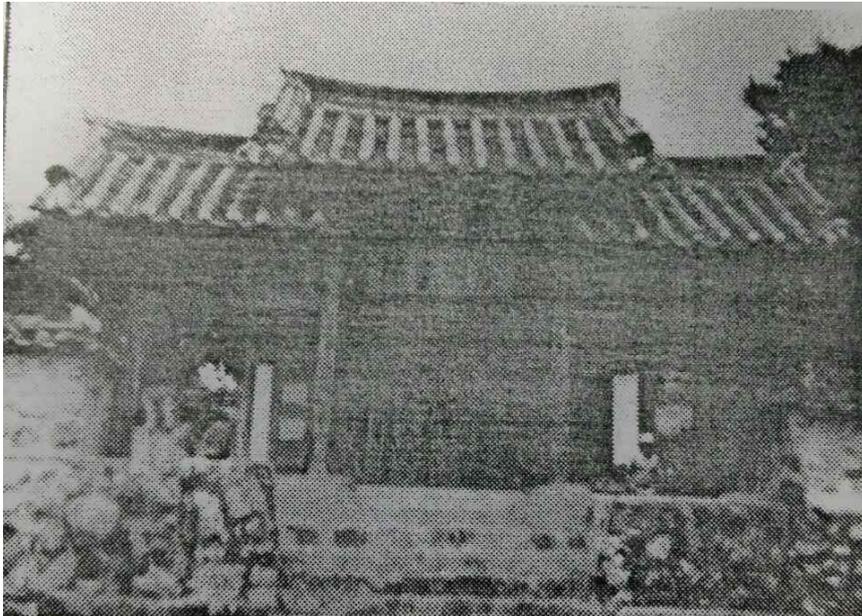
<쇠줄>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부근에서 다섯개의 錦江의 支流가 合하는 곳에 마을이 있다 해서 合江이라 부른다 한다.

쇠 줄

<거렁뜸> 동북쪽 골자기에 있는 마을을 <쇠줄>이라 부른다. <소지울> <소지>라고도 부르는데 농사짓는데 필요한 소를 키우기가 으뜸인 마을이라 해서 <소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쇠줄> <소지울>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沼地(소지)가 있는데 연꽃이 만발한 소지였다 한다.

승湖書院

<거렁뜸>에 있는 書院이다. <회헌> 安裕의 書院이다.



양당말

<거렁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말>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리가 향시 양지바르다하여 <양당말>이라 부른다 한다.

젓 질

<모습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黃龍寺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 골짜기 부근의 마을이라 해서 없어진 절 부근에 마을이 있다 해서 <젓질>이라 한다.

거림뜸

<합江>의 원마을이다. 合湖書院이 있는 마을인데 옛부터 글 잘 읽고 出世하는 文客이 배출된 지역이라 한다.

鷹岩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에는 연산군에 속했다가 고려때는 청주에 속하기도 하였다. 李朝에 와서는 연기현이었고 李朝末葉엔 연기군 東一面의 지역이었다.

매바위가 있고 매가 많이 서식하는가 하면 큰바위가 많이 있으므로 <매바위> <鷹岩>이라 부르던 지역으로 서기 1914년에 行政區域개혁때 이웃 마을을 병합하여 <응암리>라 하고 연기군 東面에 편입되었다.

下 龍

龍湖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下龍>이라 부른다. 마을이 龍의 꼬리 부분에 位置한다 하여 <下龍>이라 부르는데 結成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마골

<매바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을 <가마골>이라 부른다. 마을이 마치 가마의 치알처럼 西方의 野山으로 둘러싸고 있어 <가마골>이라 부른다 하며 또한 <부동> <산수>라고도 부른다.

매바위

<높은정이>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매바위>라 부른다. 마을 뒷산에 바위가 많고 매바위도 있는가 하면 매의 形局을 한 地形에 매가 많이 서식하는 마을이라 해서 <매바위>라 부른다 한다. <응암>이라고도 부른다.

聖 洞

<가마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聖洞>이라 부른다. 全州 李氏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聖洞>이라 부른다 한다.

老 谷

<성동>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老谷>이라 부른다. 盧씨의 산소가 있다 하여 <노산 소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엔 老木이 많았던 곳으로 老木이 많이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老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高 亭

<매바위> 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 있다 해서 高亭 또는 <높은 정이>라 부른다 한다. 옛날에 老木이 울창하게 있어서 老樹

亭이라 하였다가 老木이 모두 없어지자 <高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허벅지살을 달여준 光山(광산) 金氏(김씨) 정려문

烈女(열녀) 광산 김씨는 光城君(광성군) 國光(국광)의 후손인 龜澤(귀택)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 또한 지극했으며 三綱五倫(삼강오륜)의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랐다.

덕망높은 가문에서 예의범절을 두루 익히며 자란 김씨 부인은 이씨 조선 광해조때 評事(평사)를 지낸 銜(간)의 후손인 通德郎(통덕랑) 東煥(동환)의 손자 朴基鼎(박기정)과 혼례를 치루었다. 초혼에 死別(사별)란 박기정은 김씨와의 재혼으로 부푼꿈을 안고 다시 가정을 이루었다.

무사히 혼례를 치룬 3일 후에 再行(재행)을 가서 뜻밖에도 남편 박기정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때부터 신혼의 꿈이 깨진 김씨 부인은 남편의 병을 고치자고 불철주야 지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으나 백약이 무효라 별 차도가 없었다. 생각다 못한 김씨 부인은 천지신명께 기원을 하고 마침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은 물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랴 남편을 간호하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일 저일 꾸려 나가자니 겹친 피로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약을 달이다 그만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홀연 꿈속에 두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 중의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시아버지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병

을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치하의 말을 끝낸 꿈속의 노인은 “여기 이 약으로 네 다리에 상처를 고치거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토록 하늘과 같이 섬기며 간호한 남편이었건만 부인의 정성을 뒤로 한채 잠시동안 차도를 보이던 남편 박기정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 박씨 가문으로 시집을 온 김씨 부인은 남편의 따뜻한 정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고귀한 청춘을 남편의 병마와 씨름한 김씨 부인의 애통해 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의 빈소를 지키던 부인은 마침내 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르려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친정 숙모의 꿈속에 다시 두 노인이 나타나더니 “급히 내 새 며늘아기를 구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놀라 깨어난 숙모는 황급히 김씨에게로 달려가 이미 죽을 각오가 된 조카딸을 위로해 달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남편이 죽고 어린 나이에 자식마저 둘 수 없게 된 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만 죽는 길만이 아내의 도리가 아니거늘 열심히 살아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후 양자를 두어 선영을 모셔야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타일렀다. 김씨는 이에 크게 깨닫고 급히 서둘러 죽은 남편의 시신을 거두어 시가에 돌아가 정중히 장례를 치른 후에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효성을 다 하였다.

그러나 불행이란 그침이 없었다. 정성껏 모시고 받들던 시어머니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후일 김씨는 멀리 당진군에 사는 먼 집안에서 應鉉(응현)이라는 어린 아이를 양자로 삼은 후 선영을 받들고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웠다.

만나자 곧 병으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김씨 부인의 충격은 컸으나 삼강오륜의 가르침을 받아 양자를 바르게 키우는데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닥쳐왔다. 당시 세도를 부리던 김중학이라는 자가 김씨의 선영 밑에 묘를 썼다.

김씨는 수차례 묘를 옮길 것을 권했으나 듣지를 않으니 道伯(도백)에게 수십차 항소문을 띄웠으나 별다른 소식을 얻지 못하였다. 이 후 김씨는 혈서를 보내기를 또 십여차례 하는 동안 9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나 소식이 없게 되자 연기 유럽에서까지 들고 일어나게 될쯤에 도백의 행차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백이 행차하는 길에 옆드려 혈서를 올렸다.

김씨의 글을 읽은 도백은 즉석에서 김중학을 불러 이장케 하고 김씨의 효심을 위로하고 서둘러 조정에 보고하여 표창케 하였다. 마침내 나라에서는 서기 1876년 高宗(고종) 13년 병자년에 당시 우의정 송근수가 정문에 글을 쓰고 도백 민영태가 揭板(게판)하여 현판만 모셔다가 1952년 4월 旌門閣(정문각)의 완공을 보아 비판과 현판을 함께 모시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禮養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岐縣에 그리고 연산군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때는 淸州에 속했으며 李朝 太祖때엔 忠淸右道 燕岐縣이었고 李朝末葉엔 연기군 東二面의 지역이었다. 옛부터 忠臣이 많이 배출되고 五父子가 忠臣이었던 朴天鵬과 그 아들들의 忠臣門이 있어 禮를 기르고 배우는 곳이라 하여 禮養리라 하였

다 한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改革때 인근의 마을과 淸原郡의 一部를 병합하여 禮養里라 하고 연기군 東面에 편입하였다.

산속골

<양골> 북쪽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아래엔 <진설미>란 들이 있다. 산속 아늑한 곳에 자리한 마을로 옛날엔 출세를 등진 사람들이 많이 은거했던 마을이다.

養 谷

忠臣門이 있는 마을이다. 德을 기르고 배우는 곳이라 하여 <養谷> <仁洞> <양골> <예양>이라고도 부른다. 李朝 宣祖때의 忠臣 朴天鵬과 그 아들들의 거룩한 家을 모신 곳이기도 하다.

忠臣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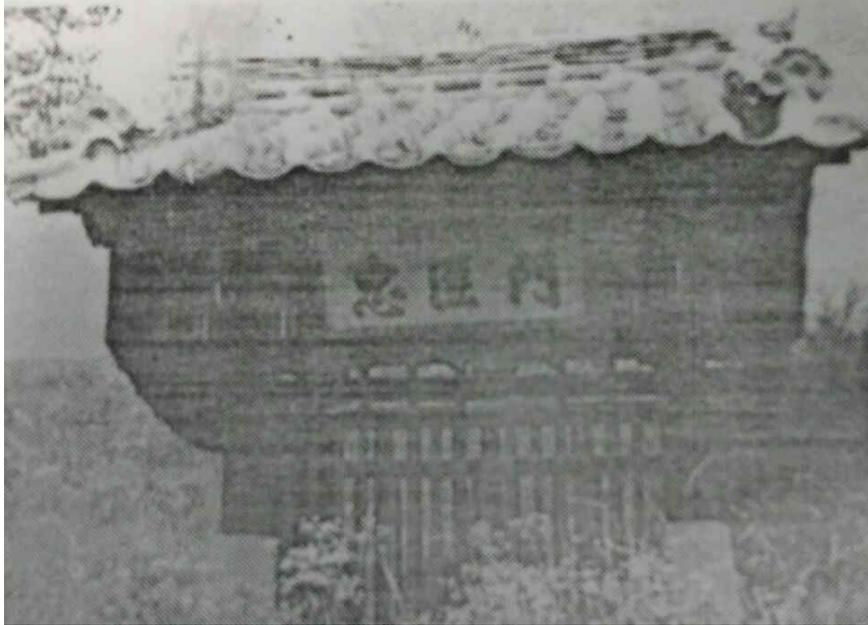
東面 禮養里에 忠臣門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경기도 양주땅에 사는 朴天鵬이라는 사람이 書堂을 짓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國難을 당하게 되어 坐視할수 없어 義兵을 일으켜 왜병과 싸우다가 순사하였다. 그후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서 外難을 당하자 朴天鵬의 아들 仁謙 義謙 禮謙 智謙 등 四兄弟 父親의 뜻을 받들어 淸軍과 싸우다가 勇戰 끝에 모두 殉死하였다.

그후에 그 자손들이 이곳에 落鄉하여 15代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光武八年 門을 나리어 이곳에 忠臣門을 세웠다.

懸板에

“ 忠臣 訓大夫行漢城村參軍朴夫鵬門

忠臣 訓大夫行軍資監主簿 義謙之門이다”라고 쓰여져 있다



미꾸지

忠臣門이 있어 <正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山과 山 사이에 위치하여 물이 좋기로 유명하며 인근 부락에 비해 미꾸라지가 유명하다 그래서 <미꾸라지>내 옆에 <미꾸지>의 미꾸라지 하면 유명하다 <미꾸지>내 옆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서 어진 이, 글 많은 이를 길러냈다 한다. <양인> 즉 養仁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엔 주로 밀양박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江 村

<미꾸리내> 옆에 있는 마을이다. 八·一五 해방과 더불어 생긴 마을로 만주에 이주갔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이룩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東津平野를 끼고 뒤에는 美湖川 錦江줄기가 흐르고 있어 江 옆에 위치한 부락이라 하여 江村이라 부른다 한다.

松龍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後엔 연기현 그리고 연산군에 속하기도 했다. 고려때는 청주에 속했으며 李朝太祖때는 忠淸右道 燕岐縣이었고 이조 말엽엔 연기군 東二面의 지역이었다. 지금의 美湖川이 강줄기를 돌리기 전에 이 地域앞을 흐르는 江줄기가 <갈>字로 흐르고 있어 많은 늪과 연못을 形成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이무기가 서식하며 昇天했다 하여 용에 대한 信仰이 두터운 지역이며 뒷산에 많은 老松이 있어 그 因緣을 따서 松龍里라 하였다 한다. 1914년에 행정개혁때 이웃부락을 규합 松龍里로서 연기군 東面에 편입되었다.

松 山

松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솔이 무성하다 하여 松龍이라 불렀다 한다. 옛날 여기엔 이랑청이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큰 부자로서 一年에 小作料만 받는 쌀이 天石이 넘었고 그집 下人이 男女 합하여 30명이 넘었다 한다. 그 부자집 앞에 넓고 풀이 많아서 그 부자는 여기에서 소도 키웠다는데 소를 키우는 곳이라 <소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룡골

<송산> 옆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도룡과 같이 생겼다 하여 <도룡골>이라 부른다 한다. 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나븐마을

<도룡골> 옆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오래된 石佛이 있어서 <佛加洞>이라고 불렀다 한다. 마을 地形이 꼭 나비가 춤을 추는 형극이라 하여 <나비마을>이라 부르다가 <나븐마을>이 되었다 한다. <羅洞>이라고도 부른다.

石 佛



東面 松龍里에 있는 石佛이다. 石佛의 높이는 190cm 폭은 110cm로서 고려때의 石佛이다. 石佛은 蓮花모양으로서 右側이 一部가 破損

되어 있다. 옛날엔 돌을 松龍里 羅洞部落에 날라와 石佛을 만들고 뒷 산에 세웠는데 觀燈節과 七夕 그리고 秋收後 一年에 세번씩 祭祀를 지낸다. 한번은 大蛇가 石佛뒤 돌 右側으로 올라오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어지며 靑天落雷하여 大蛇를 죽일 때 右側佛像이 파손되었으며 그後 補修하였으나 지금으로부터 70여년 前에 다시 큰뱀이 여기에 올라감으로 또다시 靑天落雷하여 큰 뱀을 죽였으나 補修한 部分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은 八月初 八日の 觀燈節과 七夕 그리고 秋收가 끝났을 때 이곳에서 세 번씩 여전히 祭祀를 지낸다.

새터말

<송룡리> 들판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이 생겼다 하여 새터말이라 부른다. 新村이라고도 부른다.

英育堂

松童里 一區에 있는 結成張氏들의 講堂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前에 처음은 松童里 254번지에 건립한 서당이였으나 서기 1896년에 지금의 장소 1번지를 이전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人材를 배출하였다. 이 서당 출신으로는 張氏門中에서 만도 六進士를 냈다 하는데 이조말엽 후인 期成學校를 開設하여 初中高의 과정을 教育하다가 서기 1926년에 燕東公立 普通學校가 創立되면서 그쪽으로 학생을 옮기고 廢校하였다. 그러나 結成張氏 宗中에서 書堂契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유영재를 保存하고 있다.

烈女 金氏旌門

松龍里 山 102번지 內板里의 內板驛 서북쪽에 있는 張應軒의 아내 烈女金氏의 旌門이다. 丙子胡亂때 不幸히도 청나라 軍士에게 붙들려 가게 되었을 때 眞木灘에서 빠져 죽은 烈女金氏의 거룩한 정신을 높이기 위해 세운 旌門이다.

烈女(열녀) 彦陽金氏(언양김씨)는 僉正(첨정) 金澄(김증)의 딸이며 佐郎(좌랑) 張應軒(장응헌)의 아내이다.

김씨는 16살에 張氏(장씨) 집으로 출가하여 정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남편에게 공대하며 대소 모두 절차에 예의가 바르게 했다. 우연히 얻은 시아버님의 병환은 백약이 무효였으며 며느리의 지성으로 드리는 시탕도 보람이 없이 더욱 악화되어 끝내는 기력을 잃고 자리에 누운채로 거동을 못하였다.

더군다나 상투속의 머리는 오랫동안 빗질을 못하여 보리알 만큼씩 한 이가 득실거리 병석의 노인을 더욱 괴롭혔다.

이때 김씨는 자기의 머리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80고령의 병석의 시아버님 옆에서 머리를 맞대고 밤낮을 보내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은 風(풍)들이 김씨의 머리로 옮겨오도록 해서 시아버님의 고통을 잠시라도 덜어 드리는 孝婦(효부)였다.

그후 시아버님이 83세 되던 丙子年(병자년)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병자호란에 서울이 빼앗기고 임금님께서도 꺾박을 받으시며 어지러운 전쟁에 김씨는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 늙고 병든 시아버님과 두 자식들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피난시키되 만약에 온 가족이 모두 무사하지 못하게 되면 두 자식은 버리더라도 꼭 시아버님만은 편안히 모셔야 합니다 ”하고 신신당부하는 틈에 오랑캐들이 마을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때 김씨는 병든 시아버님과 두 자식을 남편한테 맡기고 뒷문으로 피신하게 하고 김씨 자신은 앞문으로 나가니 오랑캐들은 미모의 젊은 김씨의 용모에 매혹되어 다른 가족을 쫓지 않고 김씨만을 따르니 다른 가족들은 무사히 난을 피할 수 있었다.

이때 김씨는 자꾸 강가로 달아나다가 드디어 오랑캐에게 잡히게 되니 두 눈을 크게 뜨고 꾸짖고는 황탄이 나루 (지금의 연기군 동면 예양리 북쪽 미호천 중류)의 푸르고 깊은 강물로 뛰어 들어 자결을 함으로써 우리 여인들의 끈은 정절을 보여주니 뒤쫓다 오랑캐의 두목도 김씨의 목숨과 바꾼 정절에 크게 감동되어 사신을 거두게 하고 묘를 쓰고 나무에다 비문을 써서 묘앞에 세워두니 다음부터는 다른 오랑캐들도 그 묘의 비문을 읽고는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여 마을 전체가 전난의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후일 전란이 끝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 다른 가족들이 부인김씨는 죽고 묘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남편과 자식들이 정한 날을 정하여 다시 장례를 치루려고 묘를 파보니 죽은 김씨 부인의 얼굴 모양이 산사람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김씨의 孝烈(효열)에 감동하고 훌륭한 묘를 써 주었다.

나라에서는 후일 旌閭(정려)를 세우고 길이 후세에까지 그의 얼을 되새기게 하였다.

후일 趙進士(조진사)의 鼎慶記文(정경기문)에,

“ 시부모님을 위해서는 一孝(효)하고 남편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一烈(열)이고, 아이들까지 살린 것은 一慈(자)요, 내 몸으로 오랑캐에게 낚시밥을 준 것은 一智(지)이고, 오랑캐들은 크게 꾸짖은 것은 一義(의)이며, 눈감고 강물에 뛰어 들어 죽은 것은 一仁(인)이다 ”라고 文德(문덕)을 칭송하여 기리고 있다.

文 舟 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의 지역이었다. 고려때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고 이조때엔 연기군의 지역이었고 이조말엽엔 연기군 東二面에 속했었다. 內板들의 모든 물이 이 지역앞을 지나가고 이곳의 산이 물설주처럼 되어 있다 해서 <문주>라 하였고, 美湖川이 마을앞을 청소하게 흐름으로 마치 文官이 배를 타고 떠나듯 많이 배출된다 하여 文舟라 하였다 하기도 한다. 1914年 행정구역 개혁때 文舟里로서 연기군 東面에 편입되었다.

건 녕 굴

<갈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선비들이 많이 모여산다 하여 널리 알려졌던 마을로 한양에 가면 <건녕굴> 하고 말하면 <선비구만> 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선비들이 많이 모였던 마을이다. <갈미> 건너에 있다해서 <건녕굴>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지금은 <건녕굴>이라 부른다.

골 말

谷村이라고도 부른다. <갈말>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깊은 골에 마을이 위치한다 해서 <골말> <谷村>이라 부른다.

堂 山

갈말 뒤에 있는 산이다. 이곳엔 山祭堂이 있다해서 堂山이라 부른다.

용 머리

<갈말> 서쪽 강가에 있는 산부리를 <용머리>라 부른다. 산부리가 용의 머리 또는 누에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머리> 또는 <누에머리>라 부르는데 이곳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머리로서 마을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산부리로 통하는 산부리다.

치마바위

<갈말> 뒤에 있는 堂山 중턱리에 있는 바위를 치마바위라 부른다.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은 형태인데 이곳에 와서 홀아비가 百日 동안 바위위에 앉아 있으면 홀아비를 면한다 한다.

갈 말

문주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옛날엔 갈대가 앞에 많아서 <갈말>이라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山柱>라고도 부르는데 앞에 안산이 있고 뒤에 堂山이 있어 마치 산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다는 뜻에서 그리 부른다 한다. 이곳엔 처음 蔡氏들이 정착했었으나 지금은 아성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鳴鶴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의 지역이었었다. 신라 통일후는 연기 연산현에 속하기도 하였고 고려때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다.

李朝에 내려와선 연기현에 속하였고 여기엔 연기의 太山이 있는데 太山書院이 있는가 하면 선비들의 象徴인 학이 알을 품고 있는 形局이며 학이 많이 棲息하며 알을 낳는 지대라 하여 <鳴鶴>이라 불렀

다 한다. 本來는 李朝 末葉엔 연기군 東一面의 지역이나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신촌리 내대리를 병합하여 鳴鶴里라 하고 燕岐郡 東面に 편입되었다.

龍 塘

집등바위 아래에 있는 沼를 <용당>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錦江물이 질러서 흘러 여기에 沼가 생겼는데 沼의 깊이가 수십길이나 되어 이무기가 昇天하는 沼로 불려졌었다. 지금은 모래가 점점 밀려들어 沼가 없어졌다.

집등바위

<용암>위에 있는 바위다. 큰 바위가 집채처럼 생겼다 하여 <집등바위>라 부른다. 이 바위에서 그해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는 이곳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곳에서 祈雨祭를 지낸다.

遠 暮 亭

<龍塘>과 <집등바위> 근방에 세워진 亭子이다. 지금은 철거해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많은 詩人墨客들이 모여선 글을 짓고 그 글은 懸板에 새겨서 보관하기도 하였다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6,7年前에 모두 없애버렸다 한다. 遠暮亭은 芙蓉江에 사는 큰 富者 김학현이 세울 亭子인데 黃牛峙를 臥牛形의 名堂으로 亭子를 황소의 머리부분에 세웠기 때문에 家運이 기울었다 한다. 여기에서 철거한 林木은 절을 짓는데 회사하였다.

黃 牛 峙

黃牛山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黃牛山이 臥牛形(와우형)과 黃牛渡江形의 名堂이 있어 萬代香 火文地로 風水풀이를 하는 名堂이 있어 長水黃氏의 증손인 黃蝶이가 이곳에 茨江에서 이사와서 처음 살기 시작하였다 하는데 지금까지 600年 가까이 子孫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黃牛山 아래에 있다해서 마을을 黃牛峙로 부른다 한다.

城 隍 祭

명학리 黃牛峙 고개에 城隍堂이 있고 이 城隍堂에선 매년 城隍祭를 지냈다 한다. 城隍堂의 구조는 돌로 쌓아올린 돌담에 여기 사람들은 자기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여기를 찾아오면 돌을 쌓으며 그쪽에 형 접이나 실을 매달아 놓고 빌기도 하는데 마을 전체의 슬픔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城隍祭를 수시로 지내고 一年에 한번씩 城隍祭를 지낸다 한다.

용당주막

<용당> 부근에 있는 주막이다. 옛날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주막으로서 활기를 띠었던 곳인데 주막이 차츰 없어지면서 마을이 생겼다 한다. <용당> 부근의 주막이라 하여 <용당주막>이라 부른다.

外 泰

<黃牛峙> 바깥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연기의 泰山 바깥쪽에 위치한다 해서 外泰라 부르는데 장수 黃氏들이 살고 있다.

서 당 말

<황우제> 맨위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에 서당이 있었고 글 읽는 소리가 황우제를 흔들었다 하는데 좋은 명당자리에 書院이 있어 서원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한다. 서당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서당말>이라 부른다.

거 문 들

<명학> 남쪽에 새로된 마을이다. 泰山의 南쪽에 位置한다 하여 <南村>이라고 부르며 또한 <신촌> 이라고도 부른다. 여기는 들의 흙이 검고 비옥한 곳인데, 들의 흙이 검다 하여 <거문들>이라 부른다 한다.

龍 湖 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에는 연산군에 속했다가 고려때는 청주에 속하기도 했었다. 이조에 와서 연기현이었고 이조말엽엔 연기군 동일면에 속했었다. 마을들을 끼고 있는 山勢가 호수속에 노는 형상이라 하여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용호리라고 연기군 동면에 편입되었다.

치 바 위

<다락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를 <치바위>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美湖川이 이 바위 앞으로 흘러서 물이 이 바위를 치받고 흘러갔다 한다. 강물이 바위를 치받는 바위라 하여 <치바위>라고 부른다.

出 洞 山

<부암> 앞에 있는 山이다. 장군영병출동형 <將軍領兵出洞形>의

名堂이 있는 산이라 한다. 앞으로 出洞山에선 큰 마을이 꼭 생길 것이며 이 마을이 크게 될 것이라 하여 마을이 생긴 산이라 해서 <出洞山>이라 부른다 한다.

진 고 개

<소정어>에서 <부암>으로 가는 낮은 고개를 <진고개>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이 고개 안쪽에 마을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任辰倭亂 때는 우리나라 군사들이 倭兵과 싸우다가 싸움에 진 곳이라 하여 <진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梨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中 龍

龍湖里 中央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中龍이라 부른다. 용의 허리 부분을 차지해서 언젠가는 용호리에서 으뜸되는 일을 많이 하는 인물이 나올 마을이란 風水的인 해석을 하는 마을인데 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소 정 어

<백수봉> 밑에 있는 마을을 <소정어>라고 부른다. 소나무 정자가 있다 해서 <송정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정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이 마을에선 소를 끌고 들에 들어가면 그 소가 논에 들어 갔을 때는 그 논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사람이 떠매고 나오거나 또는 흙이 소를 죽이기까지 했다 하여 <소정어>라고 부른다 한다. 扶安林氏들이 많이 산다.

上 龍

龍湖의 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龍湖里는 地形이 하나의 龍形이라 하는데 실지로 龍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용의 머리 部分에 마을이 있다 하여 <上龍>이라 부른다. 晉州姜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물 봉 재

中龍뒤에 있는 산을 <물봉재>라 부른다. 이 재는 모양이 꼭 龍과 같다 해서 <미리재> <미리峯>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금은 <물봉재>라 부른다 한다.

다락바위

露積山 서남쪽 중턱에 있는 바위를 다락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다락같이 생겼다 하여 다락바위라 부르는데 여기에선 비가 오면 20여 명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큰 바위이다.

날 근 터

<中龍>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폐허가 되었던 옛터에 마을이 새로 생긴 곳이다. <날근터>엔 처음 具氏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구태>라고도 부른다. 漢子로는 <舊堡>라고 쓰지만 옛날엔 具堡라 하던 것이 그리 변하여 쓴다 한다.

노 적 산

<上龍>과 <佛岩> 뒤에 있는 산을 露積山이라 부른다. 산의 모양이 꼭 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하여 露積山이라 부른다 한다. 八峯山

脈의 봉오리 아래 江이 흐르고 노적산이 우뚝 솟아 景致 좋은 山으로 손꼽는다.

佛 岩

露積山 동쪽에 있는 마을을 <佛岩>이라 부른다. 지금으로 부터 약 300年 前에 扶安林氏 임장군의 8代孫인 한 사람이 이곳 露積山 아래에 積山 山峰에 있고 여기에 佛岩이라 부른다 한다. 그 아래 마을이라 해서 <佛岩>이라 부른다. <부래미>라고도 부르며 普州姜氏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동 나 루

龍湖 西쪽에 있는 나루를 東津나루라 부른다. 연기 동쪽에 있는데 李朝 때는 東津院을 두어서 行人의 편의를 도왔다 한다. 美湖川과 鳥川과 습하고 月河川과 습한 合江까지의 거리를 東津이라 부르는데 이곳엔 많은 魚類가 밤에 많이 잡혀서 每日 밤 고기잡느라고 처드는 헛불은 情景을 이루어 燕岐八景의 한 景으로 손꼽힌다. 東津의 東편은 습한 地域으로 東便이 文舟 龍湖里 兩里 별관이 位置하는데 이곳을 東津坪이라고 부르며 東津坪은 임진왜란 때 戰略地로 알려져 있다.

노송리

백제때는 豆仍只縣의 지역이었다. 고려 때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던 연기현의 지역이다. 옛날부터 老松이 많아서 李朝때는 <놀피>로 부르기도 하였다가 日帝때에 <老山>이라 고쳐 부르기도 한 지역이다. 이조 말엽엔 연기군 東仁面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에 행정 구

역 개혁시 노산리 상송리 웅동 송담리 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老松里라 하여 東西에 편입하였다.

황새미골

內板里 上板에 있는 동산이다. 옛날에 이곳은 君富者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약 300平 建坪에 南向집을 짓고 살았다 한다. 지금으로부터 70年前만 해도 黑色 황새가 날아와서 수백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집의 代代가 망하고 동산의 老松이 베어지자 어디론가 흑색황새들은 날아갔다 한다. 황새 놀던 동산이라 하여 <황새미골>이라 부른다.

진 구 령

<민마루>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에 물이 많아서 비가 오면 진구령이 된다 하여 <진구령>이라 부른다. 임진왜란때 倭兵들이 이곳에서 몰사하였다는 곳이다.

옴 골

老松리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 初葉에 이곳에 마을이 없을 때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와서 처음 옴막을 짓고 살았다 하는데 그후 마을이 形成되었다 한다. 처음 사람들이 옴막을 짓고 살았다 하여 <옴골> 또는 <雄洞>이라 부른다 한다.

노 리 미

<마근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산> <노루미> <老山里>라고도 부르는데 老山 앞에 있으며 마을 뒷산의 모양이 노루와 같다

하여 <노루미> <당산>이라 부른다 한다. <노루미>가 변해서 <노리미>라 부른다.

講 堂

<노리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書堂이 있어<講堂>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여기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근처 약수터 부근에 사는 과부들이 옛날 남편과 살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슬픈 세월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 하여 강당을 아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다.

가 는 개

<창곶들> 아래에 있는 들이다. 옛날부터 가느다란 개가 흐르고 있는데 가느다란 넷물이 흐른다 하여 <가는개>라 부른다.

마 근 터

老松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앞에 못을 파고 소나무를 심어서 마을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한 신선의 마을이다. 지금은 결성 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으나 옛날엔 馬氏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이라 하여 <마근터> <馬堊>라 부른다 한다. 지금은 <송담>이라고도 부르는 마을이다.

내 판 리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고 고려때는 淸州에 속하기도 했었다. <너더리> 안쪽이 됴므로 <안너더리> 또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 곳이라 하여 板橋 <內板>이라 불렀었다. 1914年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의 상판리 외판리 외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內板里>라 하였다. 李朝末葉엔 연기군 東仁面의 지역이었으나 <內板里>가 되면서 부터 연기군 東面에 편입하게 되었다.

연 못 골

<새말> 동쪽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연못이 있었다 하여 <연못골>이라 부른다. 美湖川이 부락앞으로 흘러 많은 늪과 연못을 形成하였는데 연못골 앞에 유달리 연못이 많이 피어서 <연못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蓮池洞>이라고도 부른다.

수 청 골

內板里와 명학리 사이에 있는 기차의 굴을 <수청굴>이라 부른다. 1908年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완성한 굴로서 굴속에서 맑은 물이 나온다 한다.

새 말

<너더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外板> <바깥너더리>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새말>이라고 부르는 수가 많다.

달 박 골

<가장골> 앞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중심에 조그만 냇가 있었는데, 달이 이 냇를 따라서 뜨고 짐으로 달이 밝은 곳이라 하여 <달박골>이라 부른다 한다.

너 더 리

內板里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다. 옛날에 마을앞에 넓고 좋은 다리가 있었다 하여 <너더리>라 부른다 한다.

가 장 골

內板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국민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다. 마을 뒷동산을 허물 때 흙속에서 계속 가재가 나왔다 하여 <가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內板의 수양버들

수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內板里에 있는 內板驛에 들리면 역 개찰구에서 흙으로 나가는 문턱에 큰 수양버들이 한그루 있었다. 임진왜란때와 병자호란때 오랑캐들의 무차별 약탈을 당하면서도 깨끗하게 살아온 內板땅에 이 수양버들을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병자호란때의 이야기다. 여자라면 죽을줄도 모른다는 중국의 오랑캐들이 이 땅을 짓밟을 때 일이다. 머리를 따내리고 병거지를 쓴 청나라 오랑캐들 큰 길을 따라 오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자 먼저 사내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기 시작했다. 먼저 사내를 죽이는 것은 첫째가 반항하여 올라봐 두렵고 둘째는 그들이 데리고 있는 아내가 그들에겐 욕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고장에 들어서 청나라 군사들은 먼저 사내들을 죽이기 위해 집집마다 총부리를 댔지만 사내들은 하나도 없었다. 우선 여기에 겁을 먹은 오랑캐 장수는 산봉에 진을 치고 다음부터 아낙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한사람도 피난간 사람없이 집집마다 아낙들은 집에 있었다.

그 아낙들에게 총부리를 대고 끌어 왔지만 아낙들은 태연했다.

오랑캐들의 장수는 끌려온 아낙들을 바라보면서 제법 위엄있게 호통을 치곤 했지만 눈하나 깜짝않는 것이 이 고장의 아낙들이었다. 참다 못한 오랑캐의 장수는 먼저 젊고 어여쁜 색시를 자기 군영에 데려오라고 호통을 쳤다. 오랑캐 장수가 호통을 치는 것이 가소로와서 끌려온 아낙들이 크게 한바탕 웃어대자 그 장수는 노발 대발해서 병졸이 끌어다 주는 색시를 끌고 자기 군영으로 먼저 들어 갔다. 오랑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들을 데리고 호젓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인들을 겁탈하려고 할 때 여인들은 미리 준비 하였던 은장도로 그들을 하나씩 찌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군영은 수라장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여인들의 비명과, 죽어가는 오랑캐들의 비명이 뒤범벅이 되어 들려왔다. 오랑캐의 장수는 그런 것은 아랑곳이 없다는 듯이 자기 앞에 한 여인을 앉혀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무리 보아도 잘 생긴 그 여인에게 훌쩍 반한 그는 슬그머니 그 여인의 옷깃을 잡아다니기 시작했다. 여인이 빙글빙글 웃으므로 더욱 호탕해진 장수가 여인을 끌어 안고 잠자리 가까이 왔을 때는 모든 불이 커져 있을 때였다.

그때였다. 사방을 지키던 오랑캐의 첩병들이 호적을 불기 시작했다. 멀리에선 아우성 소리가 들렸고 가까이에선 사람들이 죽어가는 신음 소리가 들렸다.

오랑캐의 장수는 허겁지겁 문을 열고 나가다간 되돌아 와선 여인을 기둥에 밧줄로 꿰뚫어 놓았다. 싸움이 있더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의병들의 내습이었다. 어디에서 기병했다가 쳐들어 오는 것인지 논이며 밧고랑을 기면서 쏜살같이 달려 오는 의병들을

은 이곳에 몰려와서 닥치는대로 오랑캐들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오직 그것뿐이라 ! 여기에 끌려온 여인들이 모두 은장도 부엌칼을 들고 오랑캐들에게 덤벼들었다. 수라장이었다. 오랑캐들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들도 마구 저항하므로 시체는 더욱 쌓이기만 했다. 의병들은 오랑캐의 군막에 불을 놓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군막에 불이 나서 대낮처럼 환했다. 의병들은 잘도 싸웠다. 싸움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마침 노을이 뜨기까지 싸웠었다. 그래서 오랑캐와 의병의 시체로 큰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다행히도 장수 군막에서 묶여 있었던 여인은 의병의 도움으로 풀려났지만 자기 남편이 이 싸움에서 전사한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자결하고 말았다. 이 싸움이 끝난 뒤 내판에는 과부들로 집집마다 곡성 뿐이었다. 마을 한 노인이 자결한 그 여인의 시체는 지금의 내판역 구내에 묻었다. 그랬더니 그 무덤 옆에서 버드나무가 싹트기 시작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버드나무는 더욱 무성해갔다.

그리고 잠시 머리를 푼 여인처럼 축 늘어져서 안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내판에 과부가 많이 나온다는 일화는 이때에 근거를 둔 말이며 과부가 동심일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곳이 내판이다. 한데 지금은 그 버드나무도 수년전에 베어서 없어졌다 한다.

갈 산 리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岐 燕山에 속하기도 했었다. 高麗때엔 淸州에도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燕岐郡 東一面의 地域이었었다. 畵이 많이 나오는 畵山이 있다해서 <畵미> <갈산>이라 부르다가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이웃의 갈호리와 봉무리 일부를 병합하여 갈산리라 하고 연기군 東面에 編入되었다.

도기바위

<침미> 남쪽 길가에 있는 바위를 <도끼바위>라 부른다. 후미치고 바위가 커서 도끼비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다.

鳳舞洞

<하갈>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침산의 봉우리를 降仙臺라 하는데 침산에 神仙이 내려와서 설 때는 여기에서 鳳이 같이 춤을 춘 마을이라 해서 鳳舞洞이라 부른다 한다. 불부바위가 있어서 <불못골>이라고도 부른다 한다. 1901년에 風水師 朴氏가 <봉무동>이라 부르게 하였다 한다. 密陽朴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송능천山所

<침미> 뒷산에 있는 山所다. 英祖때 櫟泉(능천) 宋明欽(송명흠)의 무덤이다.

침 산

<침미> 뒤에 있는 山이다. 이 산에 침의 뿌리가 유달리 커서 재목으로도 사용하였다 한다. 그래서 이 산에서 캔 침뿌리가 유명한 산이라 하여 <침산>이라 부른다 한다. 옛날에 이 산에서 캔 침뿌리로 忠北淸原郡 남이면 산막리에 있는 宋心寺의 대들보를 만들었다 한다 <치근재>라고도 부른다.

치마바위

<上葛> 위 산에 있는 바위를 치마바위라 부른다. 큰 바위가 마치

꼭 치마를 두른 것 같이 생겼다 하여 치마바위라 부른다.

언 터 말

葛山里 上葛과 下葛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淸州 고을에서 公州 고을로 부임하는 官吏들이 쉬어가던 자리라 하여 <원터말>이라 불렀었는데 변해서 지금은 <언터말>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많은 行客들이 쉬어갈 수 있게 좋은 건물이 서있었다 하는데 임진왜란때 불타서 없어지고 지금 땅을 파보면 불탄 재가 나온다 한다.

姑婦(고부) 烈女(열녀) 孫氏(손씨) 成氏(성씨)

烈女(열녀) 密陽孫氏(밀양손씨)는 金基喆(김기철)의 처로서 김재봉의 증조모다. 어려서부터 손씨는 하는 행실이 바르고 총명하니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현숙해지니 이 고을 저 고을에서 며느리를 삼겠노라고 매과를 통해 혼인말이 오고 가던중 명문가정인 安東(안동) 金氏(김씨) 가문으로 출가하였다.

원래 성품이 곱고 착하니 시부모님을 바르게 모시고 남편과도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갔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뿐 손씨가 임신을 하여 4개월이 되던 때에 그토록 믿어 왔고 즐거운 생활이 막을 내리고 손씨는 남편과 死別(사별)하게 되었다. 이 때가 손씨의 나이는 꽃다운 17세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과 고독속에서도 뱃속에서 커가는 남편의 핏줄을 생각하며 슬픔을 달래고 살아갔다.

이처럼 손씨부인은 望父(망부)의 한을 달래며 朔望(삭망)일이 돌아오면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남편의 넋을 위로하였다. 어

느 눈보라 치는 겨울 필요한 재물을 구하기 위하여 백리길도 멀다하지 않고 다녀왔다.

제삿날이 돌아오면 서러워하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보는이들에 가슴이 몽클해져 눈물을 감출길이 없었다.

靑孀寡婦(청상과부)란 말도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겨우 17세의 나이가 너무나 애처러웠다.

남편을 생각하는 슬픔을 달래는 동안 시일이 지나 유복자인 아들이 태어나니 이때부터 손씨부인은 아들의 교육에 전심을 쏟았다. 아들이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손씨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침식을 금하면서 까지 바르게 잡으려 애를 썼다.

이같이 인자한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들 또한 품행이 단정하고 행실이 바르며 성장하여, 아내를 맞아들일 나이로 성장했다. 이만큼 아들을 키워놓고 며느리를 보게 된 젊은 어머니는 잠시나마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며느리 또한 가문 좋은 昌寧(창녕) 成氏(성씨)규수이니 성씨 또한 효심이 지극하였다.

그러나 손씨의 불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새 며느리에게 그 불행을 이어줌이려던가 며느리를 맞은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의 죽음을 당하니 姑婦(고부)간의 비통해 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성씨가 남편을 맞은지 얼마 되지 않은 20세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니, 손씨는 아들을 잃었고 성씨는 남편을 잃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이 일컫기를 그 시어머니에 그 며느리라. 성씨 또한 정절이 곧고 효심이 강해 젊은 시어머니와 자녀 교육에 정열을 쏟았

다. 며느리인 성씨는 남달리 심성이 착해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고 마을에 들르는 불우한 걸인들은 하루 혹은 이틀간 성씨의 신세를 지고 갔다. 두 젊은 과부가 한울타리 안에서 정절을 지키며 사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당시에는 보쌈이라 하여 과부가 된 젊은 여자를 몰래 업어다가 사는 관습이 있었다.

이들 고부도 이러한 일에 대비하여 머리맡에는 항상 낫을 놓고 잠을 잤다. 하니 그 몸가짐이 가히 어떠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때로는 젊음의 기운을 억제키 어려운 밤에 이르면 허벅지의 살을 바늘로 찌르거나 손톱으로 허벅지를 잡아뜯어서 그들의 다리에 온통 찌른 자국과 뜯긴 상처 투성으로 얼룩이 졌다 한다.

이들 두 고부는 먼저 간 남편을 따르고도 싶었지만 어린 자식을 홀로 버릴 수가 없었는지라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겉으로 내색하는 일없이 견뎌온 손씨와 성씨의 몸가짐이 차츰 주위 사람들의 칭찬거리가 되었고, 끝내는 나라에서까지 이 두여인들의 정절을 후손에 길이 물려주고자 旌閭門(정려문)을 지으니 비문은 당시 弘文館(홍문관) 校理(교리)로 있던 趙鎮萬(조진만) 선생이 글을 짓고 張台燮(장태섭) 선생이 비문을 썼다.

비문의 글대로,

「 난초가 골에 났으니 그 향기가 멀리도 가누나 」

하였으니 이 두여인의 정절이야말로 하늘의 태양만큼이나 후일을 밝혀 줄 것이다.

서 면 편

西 面

百濟때는 西面의 一部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北部의 一部는 仇知縣에 속했었다. 新羅統一後 燕岐로 고쳐서 <燕岐文義>와 그리고 대륙 <大麓 木川>의 領縣에 속하기도 하였고 李朝太祖때 全岐縣에 속했으며 그후 燕岐縣과 全岐縣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에 燕岐郡 西南으로 서 燕岐郡에 속하게 되었다.

冠山 아래에 펼쳐진 이 지역은 신라때 井邑縣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當時의 古蹟이 殘存하고 있으며 高麗때부터 名堂地가 많아서 各 氏族들이 자리를 정하면서 定着하여 氏族村같은 구성으로 마을이 이룩되기도 한 곳이다.

1917年 鳥致院面이 新設됨에 따라 北面의 9個里를 편입하여 18個里를 관할하다가 1939年 2월에 5個里를 鳥致院邑에 넘겨주고 13個里를 관할하며 燕岐郡 1邑6面의 한 面이 되었다.

靑 羅 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는 연산 <燕山 文義> 領縣에 속했다. 高麗때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李朝太祖때는 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李朝末葉엔 燕岐郡 西面의 地域이었다.

이곳은 地形이 나발같다 하여 <나발티> 또는 <靑羅>라 부르게 되었다는데 1914年 行政區域 개혁시 이운 洞里를 병합하여 靑羅里라 하고 燕岐郡 西面에 편입되었다.

나 발 터

靑羅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羅州羅氏의 朴居地로 처음은 <羅

發址> 라 불리웠다 한다. 地形이 <나팔> 같다 해서 또한 <나발티> <靑羅> 라 부른다. 옛날에 이 곳에 살던 羅氏들이 오랜 年輪을 살아 갔다 하는데, 羅氏들이 떠난 마을이란 뜻에서 <羅發티> 라 부르다가 <나발티>로 변했다는 一說도 있다.

良 堡

<나발티> 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銀杏나무가 크게 서있는 마을이다. <양진대> <杏亭> 이라고도 부르는데 좋은 밭과 기름진 玉 畵이 많아 양지바른 곳에서 살기가 좋은 곳이라 <良堡> 라 부른다 한다.

獻 堡

<양진터> 맞은편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진터> 라고도 부르는데 북쪽이 트여서 환이 들여다 보인다 한다. 원 마을名은 北向村 으로 <望北> 이라 불렀다 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孝子인 洪禹九가 이 곳에 살면서 村俗에 익숙하고 禮儀가 뚜렷해서 이웃사람들이 그곳이 배울만한 분이 居住하는 곳 이라고 <獻堡> 라고 불렀다 한다.

月 河 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연산 <연산 文義>의 領縣에 속했었다.

고려때는 淸州牧에 속하였고 李朝 太祖때는 전기군의 지역이었다가 李朝 末葉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옛날에 월하방이 있었으므로 <가레리> 또는 <월하> <월동>이

라 하였다 한다.

月 洞

月下里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末葉 정치에 환멸을 느낀 閔氏中의 한 勢道家가 한양을 버리고 草野에 묻히기 위해 이 곳에 내려와 마을을 만들고 風流를 벗삼아 살았다 하는데 그래서 세월좋은 마을이란 뜻에서 <月洞>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孝子 旌門

월하리에 있는 仁祖때의 孝子 閔後蹇(민후견)의 旌門이다.

典 洞

<참고개> 위쪽에 있는 마을을 <典洞>이라 부른다. 李朝 仁祖때 인조가 이괄의 亂을 피하여 公州를 피난할 때에 이 亂을 피해 피난 온다는 말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이 公州 錦江까지 가서 王을 迎接 하였었다.

여기 사람들이 自己에게 환대하여 주는 것에 놀란 인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禮典에 바른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의 마을을 <典洞>이라 부를 수 있게 하사 하셨다 한다. <작은 창고개> <새터말>이라고도 부른다.

月 溪

<월하> 아랫편을 月溪라 부른다. 마을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옛날에 書院이 있었던 마을이다.

옛날엔 장이 서는 시장이 있었는데 조치원 시장이 번성함에 따라

자연 여기 시장은 없어졌다 한다.

옛날에 서원이 있었던 마을이라 해서 <구서원>이라고도 부른다.

富 谷

<월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富谷寺란 절이 있었다 해서 富谷 또는 <부처곡>이라고 부른다 한다.

근 200年間 漢陽趙氏가 많이 사는 마을이다.

베루뱅이

<月溪> 동쪽 냇가에 있는 모퉁이를 <베루뱅이>라 부른다. 벼랑이 지고 물이 깊어서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뜸 옥 골

<전동> 서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한편으로 延安李氏 遠祖墓가 있는데 그 자손들이 墓下에 모이면 영달이 크게 돌아온다 하여 卽 말해서 이 말로 담을 정도로 들어오는 名堂자리라 하여 <斗玉> 또는 <뜸옥골>이라 부른다 한다.

옛날에 이곳은 吳氏가 처음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묘 막

월하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한 효자가 이곳 산속에 부친의 묘를 쓰고 三年間 <시묘>를 하였다 해서 <묘막>이라 부른다 한다.

그후 이곳엔 孝子가 많이 나왔으며 <묘막>하면 孝子孝婦의 마을로 통하게 되었다 한다.

龍 岩 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의 地域이었으며 신라통일후는 燕岐 <燕山 文義>의 頌縣에 속했었다.

고려때는 淸州牧에 속하였으며 李朝 太宗때엔 全岐縣의 區域이었고 李朝 末葉엔 연기군 西面의 지역이었다.

金唐山에 龍居하는 雪山이 있고 <용바위>가 있으므로 龍岩이라 불렀는데 1914年 행정구역 改革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龍岩里라 하고 연기군 西面에 속하게 되었다.

龍 岩 洞

<위양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金塘山에 雪山이 있고 마을뒤 右側으로 龍岩 <용바위>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龍岩>이라 부른다.

옛날엔 漢陽에서 湖南에 이르는 역촌이었고 처음 金氏들이 定着한 마을이다.

용 굴

<위양골> 서쪽에 있는 굴이다. 바위에 굴이 뚫렸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옛날에 龍이 여기에서 昇天하였다 하여 큰 가뭄이 있으면 여기에서 祈雨祭를 지낸다 한다.

용이 나온 굴이라 하여 <용굴>이라 부른다.

위 양 골

<용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때 <위양역>이 있었던

곳으로 驛卒들이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그래서 <역말>이라고도 부른다.

위 지 울

<위양골> 위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臥牛形>이라 한다. <위줄>이라고도 부르는데 서북쪽에 위치한 부락이나 南向村이어서 항상 따뜻한 마을이라 한다.

검 단

<용암>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의 마을名은 琴堂이었다 한다. 서민층의 거주지라 해서 儉丹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瓦 村 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後엔 연기 <연산 文義>의 領縣에 속했었다.

고려때는 淸州牧에 속하기도 하였고 李朝 太宗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연기군 서면에 속했었다. 이 지역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기와집이 많은 곳으로 瓦村이라 불렀다 하는데 또한 기와를 굽던 곳이기도 하다.

1914年 行政改革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瓦村里>라 하고 연기군 西面에 편입되었다.

통 미

<전당골> 앞들 가운데 있던 작은 산을 <통미>라 부른다. 지금은 논을 정리하느라고 없었지만 옛날엔 <통미>의 꽃밭하면 보기가 아

름다운 곳으로 지적했었다.

군 량 골

<창고개>와 <전당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正左山에서 麗元 싸움때 軍糧을 쌓아 두었던 곳이라 하여 <군량골>이라 부른다.

지 와 말

孝坊洞 東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年前 <大室>의 富家와 함께 기와집이 많이 섰던 마을이라 해서 <기와말>이라 불렀다 한다.

<기와말>이 변해서 <지와말>로 변해서 부르게 되었다 한다.

世祖때 화를 입은 忠臣 成三門의 成氏들이 숨어 살기 위해 이곳에 정착하였다 하는데 지금은 16代에 이른다 한다.

궁 바 골

<와촌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 뒷산에 큰 굴이 있었고 그 굴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한다. 헌데 그 호랑이는 밤이나 낮이나 마을을 바라보고 울었다 하는데, 호랑이가 궁해서 우는 고을이라 하여 마을을 <궁바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隱 岩

<웃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숨은바위>가 있다해서 <숨은바위>라고도 부른다.

마을뒤에 험준한 산이 있고 또한 溪谷이 있는데 바위의 한부분이 불쭙불쭙 튀어 나와 있어 바위가 전체를 숨기고 있는 形局이라 하여

<隱岩>이라 부르는데 그 아래에 마을이 있다.

대 실

<대산>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400여년전 成氏家門의 定着地로서 成家의 宗家이며 富로 살던이가 살았다 해서 <大室>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西溪라는 學者가 살았다 한다.

밤나무골

대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밤나무가 많다 해서 <밤나무골>이라 부른다 한다. 珍原朴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礮岩터

<지아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수바위>가 있는데 <장수바위>가 있다 해서 <礮岩터>라 부른다 한다.

李朝初엔 興德張氏들이 살기 시작하여 지금도 張氏村으로 되어 있다. <반암> <중암>이라고도 부른다.

孝 洞

<지아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前부터 順興安氏들이 定着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孝子孝婦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 해서 孝坊洞이라 부른다 한다.

까마귀도 감동한 孝子(효자) 成爾復(성이복) 효자비

이 이야기는 이씨조선말 高宗황제 때의 일이다. 이복은 校衛(교

위) 成仁山(성인산)의 후손으로 본관은 昌寧(창령) 사람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라 남들처럼 서당에서 학문을 배우는 입장이 못되었으나 성이복은 스스로 晝耕夜讀(주경야독)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문을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효행이 또한 지극하니 주위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가 높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심한 병으로 눕게 되었다. 이복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침식을 잃다시피 하여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 이번에는 하늘에 힘을 빌어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성 이복은 집 뒤뜰 정한 곳에 제단을 쌓아 놓고 밤마다 정안수를 떠 놓은후 부친의 쾌유를 기도하였다.

沐浴齋戒(목욕재계)를 하고 밤마다 아버지의 병이 하루 속히 낫게 해달라고 밤마다 빌고 빌으니 그 정성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아버지 대신 자기의 몸을 하늘에 바치겠노라 하며 정성으로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이복이 빌고 있는 단위에 나타나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울어댔다.

그러나 이복은 꿈쩍하지 않은채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하여 빌고 있었다.

이를 본 호랑이는 이복의 정성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한다. 이러한 정성속에서도 하늘도 무심한지 아버지의 병은 점점 위독해져 갔다. 막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목숨만 더 연장시켰을 뿐 천명을 다 했음인지 이복의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복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侍墓(시묘) 3년동안 정성을 다하니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

어느 날은 이복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산속을 헤매이다 宕巾(탕건)이 벗겨졌다.

이복은 탕건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계속 통곡을 하며 집에 다다랐다. 무심한 날짐승까지도 이복의 효심과 애통해 함에 감동이 되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이복이 떨어뜨린 탕건을 주워 그의 문앞 대추나무에 걸어놓고 날아갔다고 한다.

이복이 효성스럽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 잘 알려졌고 마침내는 관가에까지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본 뒤 그 정성이 가특하다 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나라에서도 그의 효성을 알리기 위해 고종 28년(1891)에 旌閭閣(정려각)을 짓게 하여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게 하였는바 參判(참판)李大植(이대식)이 다음과 같은 撰文(선문)을 지었다.

「 아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복의 효성된 마음은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사람들은 효도를 의무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의무이기에 앞서 자연히 솟아나는 마음속에서 孝(효)를 실천함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

기도로 치유시킨 扶安 林氏(부안 임씨)정려문

孝婦(효부) 扶安林氏(부안임씨)는 同知中樞(동지중추) 斗七(두칠)의 아들인 時潤(시윤)의 딸로 연기군 남면에서 태어나 같은 연

기군 서면 杞溪俞氏(기계유씨)의 俞參順(유삼순)에게 시집을 갔다.

시부모 공양에 효성을 다하고 남편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고 사람 대하기를 예로써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남달리 정다워져서 공경하여 향리에서도 널리 이름이 퍼졌다.

한때는 우연하게도 시어머니가 학질에 걸려 병석에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자리에 눕게 되자 시어머니의 치병을 위하여 온갖 약재를 구해 드렸고 명의를 찾아 수백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 나섰으나 백약이 무효인지라 차츰 병세는 악화되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같이 무서운 병에는 사람의 고기가 명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임씨부인은 남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불에 구워서 드렸으니 그토록 오랫동안 대소변까지 받아내던 시어머니께서 완쾌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과연 하늘이 내려주신 孝婦(효부) 임씨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칭송의 말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칭송에 말을 들을수록 임씨 부인은 더욱 시어머님 봉양에 더욱 전력했으며 지극한 정성이 날로 더하였다.

그런데 얼마후 다시 시어머니의 병이 재발되어 자리에 눕게 되니 이번에는 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

그로부터 임씨는 집뒤 높은 산 험한 봉우리에 정성으로 제단을 쌓고 하루에 세번씩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드려 하늘에 기도하기를 “ 황천의 신명과 일월성신, 산신령님께서서는 저의 연약한 정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상히 여기시어 시어머님의 목숨과 저의 몸을 대신케 하여 시어머님의 병환을 낫게하여 주소서 ”하고 빌기를 눈이 오나 비

가 오나 하루도 거르는 날 없이 9년을 한결같이 산에 오르며 기도를 하니 임씨 부인이 산중을 오르내리는 길은 호랑이가 시종 보호하고 산봉우리의 제단은 하늘을 날으는 매가 보호를 하여 항상 제단위 제물에는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같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우시고 사나운 짐승들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임씨부인이 몸소 효행으로 가르쳐 주었다.

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길이기 위해 임씨부인이 기도하던 산봉우리를 “기도봉”이라 부르며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

후일 시어머니 임중에 이르러 임씨부인을 불러놓고 “며느리 너의 효성어린 기도를 나의 천수를 9년을 더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한다.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많은 자손과 함께 기리 福(복)을 누리거라 유언을 하고 사경을 헤매이니 이번에는 임씨 부인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마시게 해서 잠시라도 소생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임씨에게 孝(효) 烈婦(열부) 포상을 주고 널리 표창케 하니 후손들이 열녀문을 건립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알려 빛나게 하였다.

雙 錢 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엔 燕山 文義로 고친 연기의 縣이었다. 고려때는 청주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 때는 全岐縣의 地域이었다. 이조 말엽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이곳은 山勢가 秀麗해서 마치 中國에서 景致가 으뜸인 錢唐과 흡사하다 하여 <錢唐>이라 부르다가 1914年 행정구역 改革時 쌍괴리 전당리를 병합하여 雙錢里라 하여 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年 행정

구역 변경에 의하여 西面에 편입되었다.

전 당 골

<전성말> 서쪽 들가운데 있는 마을을 <전당골>이라 부른다.

마을뒤에 있는 正左山에서 麗元將이 接戰 反元賊徒를 섬멸한 후 여기를 鎮善洞이라 불렀었다. 그후 서기 1400년경 南陽洪氏와 康·俞氏가 이곳에 定着하여 山明이 水麗한 것이 中國의 錢唐과 흡사하다 하여 마을을 <錢唐>이라 부르게 하였다. 그후 <錢唐> <전당골>로 불리운다.

雙 槐

<전당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쌍괴>라 부른다. 또한 <창고개> <창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高麗때 契丹군을 무찌르는 군기창고가 있었다 하여 <창고개>가 원 名稱이다. 近 200年間 全州 李氏들이 살고 있다.

못 터

<통미>옆에 있는 연못터를 <못터>라 부른다. 옛날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큰 장마로 연못은 없어지고 못터만 남아 있다 한다.

쌍류리

백제때는 仍知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는 大麗郡의 領縣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때는 청주牧에 속했으며 이조 太宗때 연기현과 합하는 全岐縣에 속했다가 이조末葉엔 연기군 西面의 지역이 되었다.

草堂山을 仲間에 두고 兩溪谷에서 흘러오는 냇물이 마을아래서 합

하므로 雙流라 하였다는데 1914年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雙流里라 하고 연기군 西面에 속하게 되었다.

일곱길바위

<권터골> 뒷산에 있는 바위를 <일곱길바위>라고 부른다. 일명 <장수바위>라고도 부르는데 바위길이가 일곱길이나 된다 해서 그리 부른다 한다.

솔 티

쌍류리에서 전동면 송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솔티>라 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라 부른다.

<솔티>고개는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솔티> 마을엔 옛날엔 松峴院을 두어서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마을이었다 한다.

<솔티>고개 아래에 있다하여 마을을 <솔티>라 부른다 한다.

月 亭

<빌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는 원래 恩津宋氏의 齊室이 있는 곳이라 <송재실>이라 불렀다. 허나 지금으로부터 100여년前에 前判書 李承純이 이 마을로 落鄉한 후부터는 그의 號 月亭를 따서 그대로 <월정>이라고 부른다.

漢字로는 <月亭>이라고 쓴다. 卽 月亭 이란 정자가 있었다는 연유에서 그렇게 부른다 한다.

聖堂절터

<권터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聖堂절터>라 부른다. 옛날에

聖堂寺란 절이 있었다 하여 <聖堂절터>라 부른다.

生 千

<별말> 북쪽 큰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큰 길가이면서도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때 이곳에 천명이 피난하여 무사했다 한다. 그래서 천명의 목숨이 살아났다 하여 <生千>이라 부른다.

별 말

쌍류리 앞 벌판에 있는 마을을 별말이라 부른다. 들에 마을이 있다 해서 <별말>이라 부른다 한다. 이 부근에서 강물이 서로 합치는가 하면 地形이 또한 行舟形이란 名堂자리라 하는데 근 300년을 두고 江陵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권 터 골

쌍류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엔 소나무와 바위가 많고 권길바위 <50문암>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권씨라 해서 이 마을을 <권터골>이라 부른다 한다.

한지마봉

임진왜란이란 국란이 있을 때 천여명의 백성들이 피난해와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 해서 피난처로 알려져 있고 신라시대 최치원의 딸의 무덤인 석적총(石積塚)이었다고 전해오는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의 생천부락은 많은 전설을 안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이름인 생천부락이란 지명 자체가 천명의 사람이 살았다는

뜻에서 지어졌다니 더욱 흥미롭다.

옛날 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이 이곳 태수로 살고 있었다. 그는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이들을 모두가 힘도 장사이었고 제주도 비상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었다. 그러나 두 남매를 놓고 겨누어 볼 때는 비등비등해서 어느쪽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다툼도 잦았다.

누가 힘이 더 세다느니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느니 하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승부를 가리자고 서로 맞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먼저 자랑하기 위해 씨름으로 판가름하자고 하고 냇가 모래사장으로 나가 남매끼리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누이동생은 여자였으나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허리를 붙잡고 겨누채 한시경이 지나고 두시경이 지나도 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맞서 허리만 꾸부리고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쓰러짐으로 먼저 선뜻 덤벼들지를 못한다. 해가 뉘웃뉘웃 기울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자 그들은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자고 하고 궁리한 끝에 오빠는 서울에 가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누이동생은 산에 성을 쌓기로 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승부가 시작되었는데 오빠는 손살같이 새벽길을 재촉해서 서울로 달려갔고 누이동생은 새벽 이슬풀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 성을 쌓기 시작했다. 여자의 힘으로 성을 쌓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혼자서 성을 쌓는 누이동생은 큰 돌도 단숨에 올리고 해서 힘겨웠으나 성은 차츰 쌓아졌다.

큰 돌을 고르다 보니 성을 쌓는 이 근처엔 돌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건너 산에서 돌을 날라야만 했고 그렇다 보니 발등이 깨어지고 부르뜨기 시작했다.

허나 이를 악물고 돌을 날랐다. 성벽의 돌레가 쌓아지고 돌이 차츰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누이동생은 생각하기에 지금쯤 자기 오빠가 서울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저렇게 억척스레 일하는 것을 보고 반갑기도 했지만 여자가 너무나 억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어머니는 먹을 것을 해 가지고 딸을 찾아가서 먹으면서 일을 하라 하였으나 그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성을 거의 다 쌓았다. 돌하나만 올려 놓으면 완성되는 것이었다. 멀리 산허리를 바라 보았다. 오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건너편 산으로 올라갔다.

「인제 돌 하나만 나르자」 그녀는 힘껏 돌을 들었다가 앞에 다 다시 놓고 뒤를 돌아 보았다. 헌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금전까지 산허리에 보이지도 않았던 오빠가 황소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녀는 허겁지겁 돌을 번쩍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쏜살같이 산을 내려와서 성터로 올라가다가 뒤를 바라 보았다. 헌데 오빠는 벌써 대문을 들어 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그녀는 돌을 안고 넘어졌다. 그리고 비탈진 산을 몇 번이고 구르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한편 산에서 뒹구는 누이동생을 바라본 오빠는 산으로 뛰어 올랐다. 누이동생 곁에 가 보았으나 얼굴이 영망이 된채 누이동생은 죽어 있었다. 오빠는 누이동생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로 무덤을 쌓았다. 여기 이 돌무덤을 최치원 딸의 석적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기를 해서 이긴 그녀의 오빠가 쌓은 그녀의 무덤이라고 전해진다.

석적총이 있는 산봉우리에 오르면 그 산의 산꼭대기를 한치마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이동생이 한치마의 돌을 빨리 못나르고 내기에 졌다 해서 그 산 성터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여기를 찾으면 남아 있는 성벽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성의 남쪽부분은 마지막 돌을 갔다가 못 쌓았기 때문에 쉬 허물어져 성터의 흔적이 여기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新 垌 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의 지역이었으며 신라 통일후엔 연기 < 연산 文義 >의 嶺縣이었다. 고려때엔 청주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조 태종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西面의 지역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년간에 嘉善 洪氏이 여기에 定着하면서 새터를 잡아 洪氏들 40여戶가 集居하면서 새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1914年 행정개혁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行政區域上 新垌里라 하고 연기군 西面에 속하게 되었다.

강 골

<부당골> 서쪽 큰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을 <강골> 또는 <江東里>라 부른다.

마을이 강의 동쪽에 위치한다 해서 그리 부른다 한다.

송 적 골

新垌里 막바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편으로 경기 호남간의 國路가 개통될 때 <작은 솔티고개>가 찢라지면서 小松 <송적골>로 부르게 되었다.

松 亭

新垆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300年間이나 南陽洪氏들의 集居地였고 또한 그후 巨儒박당 정용몽등이 학자들을 迎入하여 松亭을 설립하고 俞洪 兩大姓의 젊은이들을 訓導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마을 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다해서 <松亭>이라 부른다.

살구정이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살구나무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여 마을을 <香花>라고도 부른다.

新 垆

<살구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南陽洪氏인 洪棧의 始占地로 역에서 大林山의 水口까지 沃野 10리가 개간되고 40餘尺의 洪氏들이 集居하여 살던 富裕村으로 새롭게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 새터말> 또는 <新垆>라 부른다.

불당골

<새터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佛堂이 있었다 해서 <불당골>이라 부른다.

옛날엔 洪氏와 全氏가 의종계 살았다 해서 마을을 <友德>이라고도 부른다.

숙 골

<새터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기 1400年代에 燕西洪氏이 定着地이기도 하다. 그 옛날엔 숲을 굽던 곳이라 하여 <숙골> 이라 불렀다 한다.

<숙골>이 변해서 <숙골>이 되었고 洪氏들이 살면서 부터는 (禾洞)이라고 많이 부른다.

꼬마 孝子(효자) 金宗(김종철) 정려

金宗喆(김종철)의 자는 汝明(여명) 이요. 본관은 江陵(강릉)이며 1755년(영조 31)에 金尙基(김상기)의 둘째 아들로 燕岐郡(연기군) 西面(서면) 靑羅里(청라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뛰어난 효성은 여덟살 어린 나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평상시 부모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성질이 곧고, 바르니 형제간 우애심 또한 대단했으며 부모님이 병환중 일때는 아이들이 와서 놀기를 청해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놀기를 거절하는 효도를 보였다.

깊은 산중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에도 매일 한차례씩 내려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가는 정성도 보였다.

평소 병약한 어머니 宋氏(송씨)가 병환중일때의 일이다. 어린소년 종철은 三更(삼경)이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기도를 하니 어린 효자의 기도속에 天心(천심)을 우리는 悲願(비원)이 서려 있었다.

약을 드릴때에는 반드시 그 맛을 먼저 본 뒤에 드렸고 식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며 어머니를 모시었다.

이토록 그의 지극한 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번은 열살때의 일이다. 깊은 밤중에 어머니의 위급한 병환으로 집에서 부리는 종 한사람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좁고 험한 산길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눈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우뚝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魂飛魄散(혼비백산) 한 종은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였다.

이때 어린 효자가 말하기를 “약을 구하러 급히 나왔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종을 재촉하니 호랑이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은 밤이 몹시 깊어 있었다. 그런데 범이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그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거의 꼬리가 밝힐 지경이었다.

집앞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범은 간곳이 없었다.

“ 어린 효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산신령님께 범을 보내어 호위했으니 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효자일세 ”하고 사람들은 칭송하였다.

병약했던 그의 모친은 1767년(영조43)에 끝내 젊은 나이인 38세에 세상을 뜨니 종철은 불과 12세였다. 조석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하여 호곡하니 그에 눈물이 적은 곳은 풀이 말라 붙을 정도였다.

모친이 거쳐하던 곳만 보아도 울었고 손때가 묻은 물건만 대해도 울었다. 부친이 병석에 있을 때에는 대변을 맛보아 가며 시탕하였고 병세가 위급하면 손가락을 잘라 注血(주혈)로서 소생시키기도 하였으나 부친은 1788년(정조12)에 향년 64세를 임종하고야 말았다.

그의 애통해 함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장례를 치루고자 할때 꿈에 한 도사가 지시하여 이르기를 “너의 집뒤 나무 아래가 바로 명당이다 辰坐(진좌)로 써라. 내가 너의 지성에 감동하여 가르쳐 주노라 하

였다.” 꿈속에 도사가 일러준 자리에 부친을 안장하니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몇 대 안 가서 수십호를 이룩하였으며 종철의 장조카 景賢(경현)은 武科(무과)에 오른 이후 蔚珍郡守(울진군수)로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같은 많은 효행을 남긴 孝子(효자) 종철은 1817년(순조17)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62세였다.

그뒤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1868년(고종 5)에 孝(효)로써 朝奉大夫(조봉대부) 童蒙教官(동몽교관)에 추증되었다.

性齊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新羅統一後엔 燕山の 嶺縣에 속했었다.

고려때는 청주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조 태조때에 전기현에 속했으며 이조 말엽엔 연기군 북이면 지역이었다. 뒷산이 城처럼 되어 있으며 <성재> 또는 <성작골> 그리고 <道脈>이라고도 불려왔는데 南陽 洪氏의 학자가 堂號를 性齊라 한 이가 있어 <성재>로 많이 불려 왔었다.

1914년 行政改革때 이웃 洞을 병합하여 性齊里라 하고 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行政區域변경에 따라 연기군 西面에 편입되었다.

書堂골

<과성>앞에 있는 마을이다. 이조 효종때 工判 : 洪禹杓 父子와 藏文堂 洪禹采가 書堂을 짓고 書生을 가르친 곳이라 하여 <서당골>이라 부른다 한다.

두루봉

<두루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비룡산 文脈이 이 마을 뒤로부터 右側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그 모양이 둥근 박과 같다하여 두루봉> 또는 <圓峰>이라 부른다 한다.

原性齊

성제리에 있는 마을이다. 名巨 洪履慶의 孫 洪禹가 그 당시 名儒로서 號가 性齊였으므로 그가 있던 이 마을을 原性齊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槐 洞

두루봉 南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우리재>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작은 동우리같이 생긴 地形이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日常時에 마을 입구에 槐木이 큰 것이 있다해서 槐洞이라고 불렀다 한다.

성 뜸

<괴성>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成氏가 살았다 해서 成氏가 안착한 곳이라 해서 <성뜸>이라 부른다 한다. 西面 面事務所가 있다.

과 성

<동우리재>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새의 동우리처럼 되어 있는데 <동우리재>의 혼동을 피하여 한자로 <괴성> <새말> 또는 <봉촌리>라 부른다.

釜洞里

백제 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연산 <燕山 文義>의 領縣이었다.

高麗때에 淸州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李朝 太宗때엔 전기현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연기군 郡內面의 지역이었다.

옛날에 그릇가마를 묻었던 자리가 있다하여 <가마골> <釜洞>으로 불리워지던 곳으로 1914년에 행정개혁때 치암리와 서면의 오룡리를 병합하여 <부동리>라 하고 西面에 편입되었다.

元釜洞

釜洞面의 원마을이다. 釜洞里에서 가장 빨리 마을이 形成되었던 곳으로 가마솔과 인연이 있는 원마을이라 해서 <원부동>이라 부른다 한다.

稚岩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평처럼 생긴 평바위가 있다해서 마을을 <치암> 또는 <평바위>라 부른다 한다.

가마골

釜洞里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충렬왕 17년에 雙錢里 正在山에서 麗元聯 合軍과 反元 족도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이 마을에 큰 가마를 설치하고 軍兵에게 食事を 먹였다 하는데 그때 큰 가마를 設置했던 마을이라 하여 <가마골> <釜洞>이라 부른다 한다.

五龍洞

<평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부근에 吳龍爭珠形의 名堂이 있고 地形이 五龍처럼 되어있다 하여 <오룡동> 또는 <오룡골>이라 부른다 한다.

紅燭골

<가마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처음 定着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날밤 꿈에 보기를 자기가 정착한 집 부근의 땅이 어찌도 밝은지 어둠에서도 땅에서 光彩가 환한 대낮 같았다 하여 <洪燭골>이라 부르게 하였다 한다.

지금은 마을 부근의 산 흙이 모두 붉은 黃土라 한다.

방죽안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마을 앞에 큰 방죽이 있어서 約10町步나 되어 가무를때에는 전답에 물을 대었다 한다.

큰 방죽안에 마을이 있다해서 <방죽안> 또는 <방죽동>이라 부른다.

山水洞

<오룡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西面 북쪽에 冠佛山이 있고 峰山이 우뚝 솟아 있는가 하면 美湖川 桐江이 유유히 흐르고 山水가 秀麗한 환경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本洞이라 山水洞이라 부른다 한다.

옛 山所가 있다. <산숫골>이라고도 부른다.

鳳岩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에 속했었다. 삼국통일후엔 연산 <燕岐 文儀>

에 속했으며 高麗때엔 淸州에 속하였고 李朝初葉엔 전기현의 지역이
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鳳바위>가 있어서 <鳳바위> <부엉바위> <봉암>이
라 불렀었다. 1914년 행정구역 改革때 군내면의 봉암리 일부를 병
합하여 다시 봉암리라 하여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鳳凰山

鳳岩, 동쪽에 있는 산이다. 봉바위가 있다해서 <鳳凰山>이라 부
른다 한다. 여기서 上古時代의 銅劍 銅矢 동창이 나왔으며 마을이 매
우 유복하게 번성하는 이유를 봉황산에 미루는 방법이 많다.

鳳 岩

<주막거리>앞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鳳凰山이란 산이 있고 그
산에 봉바위란 바위가 있다해서 마을을 봉바위라 부른다.

또한 <鳳岩>이라고도 부른다.

주막거리

<봉암>뒤 큰 길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여기엔 주막과 가
계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큰하여 서성거리는 거리라 하여
<주막거리>라 부른다 한다.

岐陽學校

서면 봉암리에 기양학교란 사립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農村의
靑少年을 깨우쳐 民族의 理念을 배워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는 청
소년들이 위대한 꿈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설립을 본 학교로서 서면

봉암리 二樂堂에 있었다.

設立은 1904년 4월이었고 設立者는 민족애가 뚜렷한 尹浚植과 韓日東 두사람이 있고 初代校長은 尹浚植이었다 한다.

몇 년만에 廢校 했지만 많은 人材를 배출하였다.

봉바위

봉황산 동쪽에 있는 바위를 <봉바위>라 부른다. 이 바위는 꼭 봉황처럼 주둥이가 <창고개>를 향하고 있었는데 <창고개>에 사는사람들이 그 봉황이 <창고개>를 파먹고 똥을 봉황에다 똥으로 봉암은 잘되고 <창고개>는 가난하게 된다 하여 그 바위를 몰래 떨어 버렸다 한다.

起龍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에 속하였고 三國統一後엔 燕西 <연산文義>에 속했었다.

고려때엔 淸州의 관할이었고 李朝初葉엔 연기현에 속했고 李朝末葉엔 연기군 西面의 지역이었다. 地形이 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形計이라 하여 그 뜻을 따서 起龍이라 하였는데 1914년 行政改革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起龍리라 하고 연기군 西面에 편입되었다.

요화리

<동막골>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堯化坊<요화방>이 있었다 하여 요화리라 부른다 한다.

五世九孝碑

<망골> 입구에 있는 碑다. 孝子 洪延慶과 그아들 洪延高 손자 洪禹績, 洪禹平, 洪禹九 증손 禹鎊 현손 洪得一 오세손, 洪相直의 孝行이 지극하여 五世九孝가 됨으로 英祖가 그 사는 마을의 이름을 <孝橋>라 고쳐 줄 만큼 洪氏들의 家門을 빛낸 孝行碑다.

侍墓洞

<망골> 앞에 있는 골짜기를 侍墓洞이라 부른다. 孝子 洪禹九가 그 부모상을 당하여 이곳에서 시묘하는데 범이와서 호위하고 우물이 솟아오르다가 시묘가 끝나자 범도 가고 우물도 끊어졌다 한다.

孝子が 孝道하는 골짜기로 <侍墓洞> 또는 <시묘골>이라 부른다.

망 골

起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옛날에는 이마을 앞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도둑이 많아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가게되어 <막은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망골>이 되었다 한다.

이곳에서 洪氏家內에 일곱효자가 났으므로 英祖가 마을 이름을 <효교>라 고쳐 주기도 하여 <효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랑이골

<매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다랑이골>이라 부른다. 여기엔 옛날부터 논다랑이가 많이 나는 골짜기라 해서 <다랑이골>이라 부른다 한다.

元起龍

<坪田> 동쪽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神

仙地로서 起龍의 원마을이라 하여 <元起龍>이라 부른다 한다.
<건너말>이라고도 부른다.

鳳 崗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參議를 지낸 洪延慶의 第三子인 洪亮公이 처음 定着한 마을로 마을의 形態가 門慶鳥嶺과 같다 해서 鳳崗이라 부른다 한다.

산이 사방으로 둘러 쌓으며 옛날엔 그릇점이 있었던 마을이다. 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東幕골

<망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의 坪田部落 남쪽에 자리잡은 洪氏가 옛날에 어렵게 살때 林氏들의 家門이 번창하면서 林氏들이 동쪽의 막이라 붙여준 洞名이라 한다. 東幕이라고도 부른다.

自 龍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忠州梁氏가 처음 定着한 마을로서 뒤 山脈이 飛龍山에서 이어졌다 하여 龍이 올라갔다는 굴도 있고 해서 自龍이라 부른다 한다.

隱 洞

<망골> 북쪽산에 쭉 들어가 있는 마을이다. <東山>부락 東北便에 작은 언덕을 이룩한 지대에 家戶가 적재되어 있는 마을인데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마을이 이룩되었다 하여 隱洞 또는 <은골>이라 부른다 한다.

坪 田

<망골> 남서쪽 평탄한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을 坪田이라 부른다. 林氏들이 이룩한 마을로 평탄한 들에 마을을 이룩하였다 하여 그리 부른다 한다.

東 山

<新林>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元洞名을 沙器店이 있었다 해서 <사기점골>인데 林氏들이 <新林>에 자리잡다가 家系가 번창해짐으로 동쪽으로 와서 한자리를 잡아 산아래에 부락을 형성하였다 해서 東山이라 부른다 한다.

新 林

起龍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平潭林氏의 一家로 工曹參判을 지낸 林舜宇란 사람이 公州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定着하면서 부터 林氏들이 이룩한 마을인데 그 당시 새로 林氏들이 이룩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新林이란 부르게 되었다 한다.

七名(7명)의 孝子(효자)가 나온 洪延慶(홍연경) 집안 효자비

孝子(효자) 洪延慶(홍연경)을 말하기 앞서 五世 七孝(오세 칠효)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五世 七孝(오세 칠효)란 5대를 내려오면서 7명의 효자가 나왔다는 뜻이다.

때는 조선왕조에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기룡리에 효성이 지극한 홍연경이란 덕망높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 효성과 학문을 가상히 여겨 都事(도사) 벼슬을 주

었고 후에는 工曹參議(공조참의)까지 벼슬이 오르게 되었다.

우리 속담에 “콩심은 데에 콩나고 팥심은 데에 팥난다.는 속담은 바로 이 홍연경을 두고 일컫는 말같이 집안 대대손손 孝子(효자)가 속출하였다.

연경의 아들 延高(연설) 또한 아버지를 닮아 효성이 지극하니 戶郎(호랑) 벼슬 후 司僕寺正(시복사정)으로 승진하였다.

아들대에 이어 연경의 손자대에는 자그마치 3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그들이 바로 禹積(우적), 禹平(우평), 禹九(우구) 형제들이다. 이들 또한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持平(지평)의 벼슬을 내렸다.

연경의 증손인 鏞(만)도 효자인지라 나라로부터 復戶(복호)를 받았다. 그 당시 복호란 忠臣(충신), 孝子(효자), 烈婦(열부)가 난 집의 (호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였다.

연경의 玄孫(현손)대에도 두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바로 得厚(득후), 得一(득일)이며, 득후는 후일 벼슬을 받았고, 득일은 복호를 받았다.

이같은 효자 연경의 가문에서만도 많은 효자가 나왔으니 그 동네가 바로 望洞(망동) 또는 馬龍洞(마룡동)이라 불렀으니 후일 영조임금께서 친히 孝橋(효교)라 부르도록 개칭 했으니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英祖(영조) 대왕때의 일이다. 弘文館(홍문관) 大提學(대제학) 李鼎輔(이정보)와 都承旨(도승지) 李錫祥(이석상)이 쓴 延院日記(정원일기)에 의하면 홍연경의 현손 得厚(득후)의 양자 相直(상직)이 嘉善(가신)이란 벼슬에 오른 뒤에 종종 아침에 入朝(입조)치 않았다.

이를 상당히 여긴 임금 영조대왕은 하루는 도승지 이석상을 불러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도승지가 대답하기를,

「홍상직은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충청도 燕岐(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틈을 내어 성묘차 고향에 내려 가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에 영조가 이르기를

「홍상직의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 !」

하고 감탄하였다.

틈을 놓치지 않고 도승지 이석상은 계속하여 아뢰었다.

「홍상직의 선조들은 대대로 내려 오면서 효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집안일줄 아옵니다.」

라고 거듭 아뢰었다.

도승지에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영조대왕도 깊이 감명된지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

「그러면 洪相直(홍상직)의 本鄉(본향)을 孝橋(효교)로 개칭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마룡동은 효교동이 되었고 지금도 효교동이라 부르며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후에 홍연경의 손자 우구의 후손들이 서면 元新垆里(원신대리)에 모여 살면서 선조들의 현덕을 기리기 위하여 신대리와 기룡리 경계에 효교비를 세웠다 한다.

또한 홍연경의 효행을 알리고 그 높은 뜻을 우러러 받들기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향교에서 그에 대한 사적을 적어 걸어두었다. 이와같이 5세 7효라는 말이 뜻하듯이 대대손손 효행을 근본으로 삼은 홍연경의 가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菊村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후는 연산 <연산文義>에 속했었다. 고려때엔 淸州의 관할이기도 했었고 李朝 太宗때부터 전기현의 지역이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었다.

이 지역은 菊花가 많이 피서 국화향기의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그래서 국촌이라 불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개혁때 이웃의 독동리 대박리 후덕리를 병합하여 국촌리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厚德洞

菊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뒤에 杞溪兪氏 墓가 하나 있는데 그는 天性이 착실하여 어느날 우연히 큰 고을에 갔다가 孤兒가 된 鄭童을 주워다가 키웠는데 그는 또한 머리가 좋아서 글도 잘 읽고 해서 10여년을 공부한 끝에 크게 成功하여 全羅道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한다. 헌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키우고 크게 성공시킨 兪氏가 죽자 그는 전라도에서 여기를 찾아와 은덕에 보답하는 뜻에서 墓地를 정해서 兪氏를 안장하고 兪氏가살던 이마을을 후한 인덕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厚德洞이라 부르게 하였다 한다. <후덕골>이라고도 부른다. 杞溪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느실

菊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이 부락은 地形이 가늘고 긴 峽谷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을 <가느실> 또는 <細谷>이라 부른다 한다. 杞溪兪氏가 많이 살고 있다.

독 골

<국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독골>이라 한다. 옛날 어느 총각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자리를 정했다 해서 <독골> <독동>이라 부른다 한다. 杞溪俞氏가 많이 살고 있다.

대 박

<독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대박>이라 부른다. 大朴洞 後山은 飛龍山 줄기 長長20里를 잔잔하게 山勢가 뺨가가 末端에 와서 함박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大朴 卽 박이라 해서 大朴이라 부른다 한다. <함박산>이라고도 부르는데 杞溪俞氏가 많이 살고 있다.

국 말

<독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가을이면 국화꽃이 만발하는 마을이라 해서 <국말> 또는 菊村이라 부른다 한다. 또한 여기 마을 山形도 만발한 국화같다고 한다.

정잣골

<독골> 백호쪽에 있는 골짜기를 <정잣골>이라 부른다. 여기 엔 느티나무 정자가 있다 해서 <정잣골>이라 부르는데 옛날에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꼭꼭 쉬어가던 마을이라 한다.

섬 들

<독골>앞 북쪽 넓은 들에 있는 작은들을 <섬들>이라 부른다. 여기 섬들은 마치 큰 바다속의 섬처럼 생겼다 해서 <섬들>이라 부른다 한다.

벼락정이

<정잣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벼락정이>라고 부른다. <벼락정이>란 여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 부서졌다 해서 벼락에 맞아 부서진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벼락정이>라 부른다 한다.

여기 바위엔 옛날부터 큰 지네가 살고 있었다 한다. 그 지네는 가끔 바위에서 나와선 지나는 행인을 괴롭히곤 했는데 하루는 여기를 마치 新婚行列이 지나갈때 그 지네가 나타나서 新婦가 타고 있는 가마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자 별안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 지네만 죽게 했다는데 그때 벼락에 지네가 살고 있던 바위도 부서졌다 한다. 그래서 <벼락정이> 또는 <雷岩>이라고 부른다.

高福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燕山 <燕山 文義>의 領縣이었었다. 高麗때엔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고 李朝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이었다.

李朝初葉에 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밑에 位置한 마을이라 하여 (高山)이라 불렀다.

또한 아래 부분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이곳은 (복골)이라 불렀는데 서기 1914년 行政改革時 이곳의 洞里를 병합하여 高福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下 福

<아래복골>이라고도 부른다. <고복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골>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해서 <下福> <아래복골> 이라 부른다.

西 福

<서북동>이라고도 부른다. <위북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북골> 서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하여 서북이라 부른다.

上 福

<고북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처음은 <福골>이라 불렀으나
福골 위쪽에 위치한다 하여 <上福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扶安 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사방말

<상북> 위 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기 1960년에 사방사업이 최
초로 시작되었을때 이곳에 砂防管理所가 있었다 하여 <사방말>이라
부른다 한다.

飛龍山

<西高> 뒤에 있는 산을 飛龍山이라 부른다. 사람이 소리를 치면
이 산에서 울려 퍼지는데 돌을 떼어낸 후부터 잘 울리지 아니한다고 전
한다. 산삼이 있으므로 용이 昇天하기 위해선 산삼을 캐먹기 위해 물
줄기를 타고 올라왔다가 산삼을 먹기까지 50년이 걸리는 세월이 흐
른다한다. 용이 昇天하는 산이라 해서 飛龍山이라 부르며 산삼이 있
으므로 산아래 물줄기에는 잉어가 올라오지 못한다 한다.

西 高

<위북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高福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西高>라 부른다 한다. 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東 高

<고산골>에서 東쪽에 位置한 마을이다. 高福골의 동쪽에 마을이 있다해서 <東高>라 부른다. 동쪽에 福이 깃든 마을이란 뜻이다.

結成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고산골

<동고>와 <서고>를 통털어<고산골>이라 부른다. 李朝初葉 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밑에 마을이 位置하였다 하여 <高山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뒷산을 복이 깃든 높은 山이라 하여 高福山이라 부른다 한다.

비룡산의 산삼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고북리에 가면 비룡산이란 산이 있다. 옛날 부터 유달리 산삼이 많아서 산삼을 캐러 오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으로 온통 산이 진동하였다는 이 산은 산삼과 용에 얽힌 일화로 유명한 산이다.

고려때 왕실에서 산삼이 필요하다 해서 기백명의 사람들이 온 나라에 퍼졌을 때 고씨 한 사람은 금강산을 가야 산삼을 캐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그곳을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금강산이나, 양낭립산, 지리산에 산삼이 많다고 그곳으로 몰려 갔으나 그는 어쩐지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싫어, 짚신을 허리에 찬 채 개경을 떠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홍경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정처없이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곳에 닿았다. 그는 하룻밤을

주막에서 잠자고 어디로 갈까하고 추녀밑을 나서는데 그의 시야에 구름이 가린 산이 꼭 인삼뿌리 같은 산을 발견하고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이 산으로 올라왔다.

산은 험했다. 아래로 흐르는 강줄기엔 잉어떼들이 올라갔다가는 내려가곤 하지만 위로 올라가지를 못했다. 그때였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 옳지 삼뿌리 내 마음에 고기가 놀지 못하는구나 」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봉에 오르니 이번에는 산봉이 여기 저기 구멍이 뚫어져서 산위까지 물이 바위틈에 고여 있었다.

「 옳지 이런 땅이면 산삼이 있겠지 」

그는 이렇게 기뻐하며 발아래를 굽어보니 거기엔 산삼잎이 잔잔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게 아닌가? 그는 정신없이 망테기를 집어 던지고 산삼 한 뿌리를 캐다.

천년은 목은 듯한 산삼이었다. 그는 그 산삼곁에 있는 산삼도 캐고 해서 잠깐사이에 산삼을 망테기 가득 캐들고 그날로 길을 재촉하여 그 이튿날 늦게 궁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많은 포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산삼을 주문을 받고 해서 술을 한모금 크게 마신 다음 그날로 비룡산에 도착했다.

그는 누가 뒤를 쫓아오지 않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한밑천 단단히 잡아야 하겠다고 산위를 올라가서 먼저번에 산삼을 캐던 곳을 찾았다.

헌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것일까? 그가 그렇게도 많은 산삼을 보았던 그 장소에 산삼이 한 뿌리도 없었고 큰 바위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는 다시 주위를 돌아 봤으나 산삼은 한 뿌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기진맥진 해서 쓸어질듯이 엎어져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가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꿈에 한 마리의 용이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그에게 덤벼들더니 그몸을 둘둘 감고선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 이봐, 이 도적놈아, 그래 백년을 정성들여 하늘에 올라가려고 산삼을 키우며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 네가 모두 독식을 해, 너 잘 만났다. 너좀 죽어봐라 」

하고선 금방 잡아 먹을 듯이 혀를 날름대기 시작했다.

고씨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를 짜내기 시작했다.

「 이봐요 이무기님 누가 알고서야 산삼을 캐 갔겠요. 산에 있으니까 캐갔지, 그래 당신이 나를 잡아 먹으면 승천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늘에 오르는 용이 피를 봐요? 그래 잡아 먹어 봐요. 자 」

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떤 일인지 이무기는 칭칭 감았던 몸을 풀고 저만큼 떨어져 가더니

「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눈에 보이게 산삼에 키운 것이 잘못이지...」 하고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또 산삼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도 산삼은 없었다. 그래서 밤이 이슬해서 그는 다시 꿈에 나타났던 바위근처에 가서 안을 들여다 보고 소리를 쳤다.

「 이봐요. 이무기님 산삼 열뿌리만 캐게 해 달라구요. 산삼을 많이 먹으면 승천을 못해요. 몸이 무거워지는 걸요 」 라고 소리치자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 왔다.

「 산위에 더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하라. 구백년도 참는데 백일도 못참아 」

고씨는 생각했다. 개경에서 주문받은 산삼을 얻기 위해서는 백일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봉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를 피할까 생각하다가 정성이 헛될 것 같아서 그냥 비를 맞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줄기의 물줄기가 내려 오더니 땅 바위속에서 이무기가 승천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 보았다. 이무기는 하늘에 오르면서

「 백일만 참아, 백일만 참으면 산삼이 있지 」

하고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후 백일동안 꾸준히 기도를 드렸다. 그가 백일을 채우는 날, 아래를 굽어 봤다. 조금 전까지 풀밭이었던 곁에 황토흙이 깔려 있었고 거기엔 작은 산삼뿌리가 가득히 나고 있었다.

그는 「 와 」 하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너무나 잔 산삼이었다.

고씨는 그 산삼이 클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움막을 짓고 하루 한번씩 산삼을 보며 그 산삼이 어서 자라기를 기다리다가 고씨가 먼저 죽고 말았다.

그후 비룡산엔 산삼이 자라서 푸릇 해졌다. 고씨가 죽은 후 이무기가 몇번 승천했고 고씨의 자손은 여기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자손들은 한번도 산삼을 캐지 못했다 한다. 비룡산 기슭에 가면 물고기가 물줄기를 따라서 강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올라가지 못했다 한다.

이것은 산삼의 뿌리를 적신 물이 내려옴으로 독해서 물고기가 못 올라가는 것이라 한다. 고씨가 처음 살았다는 비룡산 아래를 고북마을 이라고도 부른다.

남 면 편

南 面

錦江邊에 자리하여 元師山 轉月山이 位置한 곳으로 石器時代 後半 靑銅器時代に 人間이 벌써 定着한 곳이기도 하다.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는 熊州에 그리고 景德王때 연기로 고쳐서 연산 <연산文義> 영현에 속했었다. 高麗 顯宗 9年 <1018>엔 청주에 속했으며 明宗 2년에 監務를 둔 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李朝 太宗 6年 <1406>에 各立한 고을에 속했다가 14년에 全義를 합쳐서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갈라서 縣監을 둔 고을의 地域이었다.

李朝때엔 오랫동안 연기현의 고을이 지금의 남면 연기리에 있었으므로 李朝文化는 급속히 받아들인 고장이기도 하다. 이조말 高宗 32年 <1895>엔 연기군으로 행정구역을 바꿨으며 연기군청이 연기리에 있었다. 서기 1911년에 연기군청이 鳥致院으로 들어가고 연기군 남쪽에 위치하므로 南面이라 하여 2個里를 編入하여 14個里를 管轄하는 面이 되었다.

水山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高麗때엔 淸州에 붙었다가 원래부터 연기현에 속했던 곳이다. 本來는 李朝末葉부터 연기군 南面의 지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金瓶山이 秀麗하므로 秀山하라 부르다가 水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서기 1914年 행정구역 개혁때 <국사리> <대천리>를 병합하여 水山里라 부르게 되었다.

태 천

<수산>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강진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굵고 깨끗하여 단단한 토지위에 튼튼한 人物이 나오는 곳이라 하여 태천이라 부른다 한다.

둔덕기

<수산>동남쪽 둔덕에 있는 마을이다. 國土峰 아래가 되는데 順興安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둔덕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하여 둔덕기라 부른다 하며 <둔덕> <국사봉>이라고도 부른다.

수 산

<둔덕기>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있는 金瓶山이 수려하여 秀山이라 부른다 하는데 변하여 水山이라 부른다.

眞儀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백제멸망 후엔 熊津에 오래 속해 있었다. 李朝太宗 때에는 公州로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公州郡 삼미면의 지역이었다. 이 지대 앞을 흐르는 금강의 여울이 깊다해서 <진여울> <진탄> <진의>라 불려 왔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창동> <덕성동> <가정리> <성전리> <송현리>와 연기군 남면 <북룡리>를 병합하여 연기군 남면에 編入되어 眞儀里가 되었다.

진여울

舊리에 있는 將軍峰이 마치 將軍들이 村坐하고 元師가 出陣하는 形像이라 해서 陣灘이라 하였다 한다. 陣灘이 곧 <진여울>과 통하는데 <진여울>이란 여울이 길다는 뜻에서 錦江邊의 진여울이라 부른

다 한다. 星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창 말

<진여울> 옆에 있는 마을이다. <창동> <모창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창고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창말>이라 부른다.

흰여울

<진여울>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白洞>이라고도 부른다. 白也洞이라고도 부르는데 <희여물>이란 데서 연유한 地名인데 지금은 변해서 <흰여울>이라 부른다.

찬샘골

眞儀里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약수터로 통하는 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이 피부병과 속병에 효력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이샘물로 찾아온다고 한다. 찬샘이 있다는 마을이라 해서 <찬샘골> <寒泉>이라 부른다.

瓦家里

眞儀里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때 여기만이 기와집이 많았고 모두 유복하게 사는 마을이었다 한다. 기와집이 마을이라 하여 <瓦家里>라 부른다.

書堂골

진의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글을 못 배우는 농촌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집을 짓고 글을 읽는 곳이라 하여 書堂골이라 부른다.

지름바위

<성재>남쪽에 있는 바위다. 바위가 기름을 칠한것 처럼 미끄럽다 하여 <기름바위>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름바위>라 부른다.

솔고개

솔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진여울>에서 <종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솔이 많이 있었다 하여 <솔개고>라 부르고 그 고개 아래에 마을을 <솔고개> <松峴>이라 부른다.

德 岩

眞儀里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에선 덕망높은 사람들이 옛부터 많이 살았다 하여 <덕암>이라 부른다 한다. 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星 田

<진여울>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哲宗때의 학자 全齊 任憲會가 꿈을 꾸는데 꿈에 갈매기떼가 별밭에 서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을을 星田이라 지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부르고 있다.

宗村里

百濟뎨, 豆仍只縣에 속해 있으면서 일찍부터 장터로 발달한 마을이다. 新羅統一後는 백제流民들이 자리하여 뿌리를 내린 곳이기도 하여 고려때에도 큰 장터였었다.

李朝 太宗때엔 公主로 합쳐지기도 했었으며 李朝末葉엔 공주군 삼기면의 지역이었었다. 지대가 낮은 산등성이에 있으므로 일찍부터 開

化한 지역이다. 낮은 산등성이에 있다 해서 <밀마루> <宗村>이라 부르다가 <장터>로 통치하기도 했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마을을 병합하여 宗村里라 하고연 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밀마루>가 宗村이라 부름을 宗은 <밀종> 村은 마루촌이란 이치에서 그리된 것이라 한다. <장대>라고도 부른다.

문화현

宗村里 2區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李朝末葉때 한양에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文化 한사람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말하기를 이마을은 文化峴이라 부르면 장차 큰 마을이 될 것이라 하여 그리 부르게되었다 하는데 그후 이곳엔 그 선비의 말대로 차츰 번창해 간다 하여 文化峴이라 그냥 부른다 한다.

도 산

<밀마루>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외딴 산이 있는데 이곳에 圖學君子的 墓地가 있고 선비가 많이 배출하는 마을이다 하여 <도산> <도림>또는<도리미>라 부른다 한다. <도리미>란 편안한 마을의 속칭인데 放牛于挑林의 平和村이란 뜻도 된다.

밀마루

<도산>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낮은 산등성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宗村><밀마루>라 부르는데 <밀종> 宗字와 <마루촌> 村字로 <宗村><밀마루>로 뜻을 같이하는 地名이다. 또한 장이 서므로 <장터> <장대>라고도 부른다.

뽕나무골

<송담리>옆에 있는 마을이다. 뽕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다해서 이 마을을 <뽕나무골> 또는 <상현>이라 부른다.

돌부처

獨樂亭 근처에 있는 석불이다. 옛날에 林將軍이란 분이 西域에서 옮긴 石佛이다. 6.25때 괴뢰군들이 이 부처에 대고 총을 쏘서 石佛이 조금 손상되었다.

사당제

宗村里에서 지내는 祠堂祭다. 李朝末葉에 이곳을 지나던 黃氏한 사람이 아주 이곳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그후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 후 黃氏들의 제자들이 스승의 거룩한 넋을 추모하는 뜻에서 사당에 재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던 것이 이곳 祠堂祭의 처음이라 하는데 이곳에 재물을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리면 福을 받는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당제를 지낼 때 모여든다 한다.

옥 정

宗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고려 末葉에 太子를 가르친 이초로가 옷담을 먹고 옷이웁아 고통을 겪다가 옷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를 지나다가 잠깐 쉬게 되어 마침 곁에 있는 샘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셨더니 마침내 病이 完快되어 갑자기 여기 샘이 유명하게 되었다. 옷병을 고친 우물이 있다해서 玉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셋 골

<뽕나무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토지가 비옥해서 논한마지기에 벼가 석섬씩 난다 하는데 三性郡守가 나온 마을이라 해서 셋골 즉 <셋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셋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화옥동> <옥동>이라고도 부른다.

月山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었다. 신라 경덕왕때 연기라 고친 그안에 속했었다. <燕山文義>郡의 영현이기도 했었다.

李朝 太宗때 全義와 합쳐서 全岐縣이었을 때 그곳에 속했고 그후 燕岐縣에 속하게 되었다.

轉月山이 이 地域에 있다 해서 <月山>이라 불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月山里라 하여 그대로 南面에 속하게 되었다.

꽃재

<갯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꽃나무가 많이 있다. 安氏들이 先祖山이 뒷산인데 山形이 芦花形이라 한다. 꽃나무가 많은 뒷산이 있다 해서 이 마을을 <꽃재> 또는 花峴이라 부른다.

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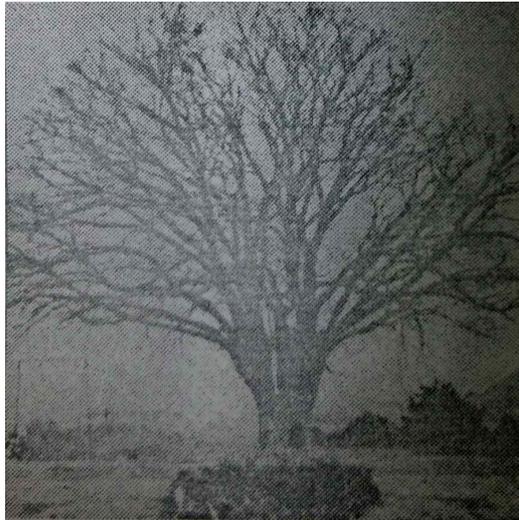
月山里에 있는 마을이다. 月山 뒷산에 큰 溪谷이 있는데 恨에 맺힌 사람들이 이곳에 산다해서 <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후 변하여 <황골>이라 부른다. 또한 大洞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부터 금강으로 지나는 배들이 이곳 마을을 큰 마을이라 하여 大洞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한다. 三國時代에도 이곳은 큰 마을이었다. 黃牛渡江形의 名堂이 있다 한다. 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介洞

轉月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介字 모양이라 하는데 옛날 이 곳을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곳에 유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地名을 지어 달라함으로 그 선비가 말하기를 山形과 山形이 마치 介字와 같다 하니 <介洞>이 좋겠다하여 그 후 부턴 介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갯골>이라고도 부르고 <제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동>이라 부르는 것은 孝宗때 黃 선비란 학자가 여기에 살고 있었을 때 尤菴 宋時烈이 이곳에 왔다가 그후 <제동>이라 부르게 하였다 한다.

느티나무



南面 月山里에 있는 느티나무를 護軍林景秀公이 심은 느티 나무로 전해 내려온다. 朴景秀公이 鄉里인 여기에 내려와서 月山里 大洞에 은거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수명이 400餘年 되는 나무다.

금강 하류의 逆水砂로 심은 나무로 수명이 길다 한다.

합 강

月山一區에 있는 마을이다. 금강이 <황골> 마을 앞을 흘러서 美湖

川과 합치는 곳에 위치한다 하여 강물이 합친다는 뜻에서 <합강>이라 부른다. 여기를 합강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옛날에 여기엔 地名이 없었는데 하루는 漢陽으로 가던 나그네 한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錦江을 건느다가 이곳 地形을 보고 <合江>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하는데 그 후 여기를 <합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燕岐里

옛날 연기현의 읍터다.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경덕왕 때 연기로 고쳐서 <연산文義>郡의 영현이였었다. 李朝 太宗때는 全義와 합쳐서 전기현이였었고 그 후 연기현이 되었고 李朝末葉엔 연기군 읍터로서 군내면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옛 고을의 이름을 따서 燕岐里라 하여 연기군 南面 연기리가 되었다.

培達學校

연기현의 고을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배움의 必要性을 느끼고 처음 설립을 본 학당이 培達學校이다. 設立은 1908년 봄이고 設立者는 林東勳 李鶴俊 韓一東 張景俊 네사람이다. 그들은 그들의 私財와 特志金 그리고 地方有志들의 聲援으로 私立 연기배달보통학교를 창설하고 초대교장에 韓一東이 就任하였으며 그후 1912년 3월까지 50여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는데 同年 5月 10日 연기공립보통학교로 昇格하면서 同時에 客舍로 이전하였다. 郡內에서 보통학교로서의 처음이다.

뜻있게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켜서 우리 나라의 앞으로 큰 人物이 되게끔 성의껏 가르켰으나 많은 애로속에 학당을 은근과 끈기로 이어온 참으로 보배로운 학교였었다.

花 沼

南面 연기리에서 月山里를 돌아 官湖書院을 가다 보면 山기슭 約 5

리 정도에 連한 곳을 花碩沼라 부른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丹楓을 겨울에는 雪松이 佳景을 이루는 여기는 더구나 恨岩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一品이라는 풍류인들의 말이다. 詩客들이 作詩하는데 벼룩물이 마를새가 없다 해서 花碩沼 부른다 한다.

위사티

연기리 서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 李朝때에 이곳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므로 <위사티>라 부른다. 연기현의 청사도 여기에 있었다. <아사티><신촌>이라고도 부른다.

바위내

<향교말>앞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바위가 많고 앞에는내가 흐르고 있다. 바위와 냇물 사이에 마을이 있다 하여 <바위내>라 부른다.

서 부

연기리 일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부터 고을원이 여기에 있을 때 관청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西部라 부른다.

校 村

燕岐里 東部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에 鄉校가 옮겨와서 지여짐에 따라 <교촌> 즉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교촌>이라 부른다.

환재골

燕岐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高麗 때에는 湫通里에 邑이 있었으나 李朝初葉에 邑을 연기에 환도하여 연기현이라 하였으며 <환재골>

은 그 당시 나라의 한재 창고가 있다 하여 <환재골>이라 하였다. 한다. 換財란 옛날 춘궁기에 나라의 양곡을 백성이 빌려서 봄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가 가을 추수기에 상환하는 제도를 <환재>라고 말한다.

구향교골

연기리 一區 西部에 위치한 마을이다. 지금은 校村으로 향교가 இரு하였지만 옛날엔 향교가 있었다 하여 <구향교말>이라 부른다. 李朝中葉때 이곳의 縣監 朴縣監이 自己의 先塋을 여기에 墓로 모시기 爲해 향교를 다른 곳으로 이사시켰다 한다.

社倉고개

연기리 북쪽에 있는 고개다. 이조때엔 兵器倉庫가 있었던 곳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간직했던 고개다. 兵器가 저장되어 있었던 터라 하여 <사창고개>라 부른다.

松院里

백제때는 熊州에 속했으며 고려 성종2年 <983>부터는 公州牧의 관할에 있었다. 李朝末葉엔 公州郡 長元面의 지역으로서 원래 여기엔 산과 溪谷에 소나무가 많았고 書院이 즐비하게 많아서 松院里라 하였다 한다. 서기 1914年 행정구역 개혁때 공주군 장기면에 편입 되었다가 서기 1973年 7月 1日에 연기군 南面에 편입되었다.

錦湖書院

<원터>에 있는 향현사인 金湖書院의 터다. 竹堂 柳長全..忠景 公 柳珩 · 錦沙 柳忠傑을 배양하였던 곳이다. 고종 5년에 철폐되었다.

双孝子旌門



<머레>앞에 있는 旌門은 孝子 林自儀와 林太儀 형제의 그윽한 효성을 기념하는 孝子旌門이다. 扶安林氏들의 始祖 林八及의 孫이며 兄인 林白儀와 弟인 太儀가 母親喪을 당하여 墓에서 歲墓三年中 그 효성이 지극함을 山神靈이 알고 호랑이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게 하였다. 그 후 어느날 兄弟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호랑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구원을 청하기에 그들은 잠이 깨어 그곳으로 달려가 본즉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마을사람들이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兄弟들은 마을사람들께 사정을 해서 호랑이를 구출하여 주었더니 그 호랑이는 함정에서 나와서도 도망을 가지 않고 그들 兄弟앞에 엎드림으로 兄弟들이 호랑이 등에 타자 그 호랑이는 그들을 墓墓까지 데려다줬다. 한다. 李氏朝鮮 21代 王인 英祖가 그들의 지극한 孝心을 알고 여기에 孝子旌門을 세우게 하고 그들의 효성을 길이 빛나게 한 旌門이다.

烈女碑

<원터>앞에 있는 烈女碑 烈女 一介의 烈女碑다.

원 터

<머래>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錦湖書院의 터가 있다 하여 <원터>라 부르며 <새터><원촌>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옛날 이조시대 때 진라도 사람들이 한양 가는 길에 여기를 지나다가 書院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한양이나고 물을 정도로 서원이 많이 있다 하여 <원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송계동

<원촌>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소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松溪洞 <松溪>라고 부른다.

三世旌門

만젓골 앞에 있는 旌門이다. 評事 李穆의 三世의 孝子旌門이다.

遠 湖

松院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水原朴氏와 柳氏가 많이 살고 있다. <원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錦江가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이 마치 먼 곳에 보이는 湖水가의 마을이라 해서 遠湖라 부르며 <미래> 라고도 부른다

대소골

<송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해서 <대소골>이라 부른다 한다. 대나무로 한마을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겠다. <竹洞>이라고도 부른다.

만자골

<대소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이곳엔 奄子가 있었다 한다. 여기 있는 奄子에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마을이다. 많은 자식을 얻어 나가는 <암자>가 있다 해서 <만자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만자골> <만자동>이라고도 부른다.

쌍효자 이경설 정려

李景高(이경설)의 자는 相虞(상우)요 본관은 全州(전주)로서 戊午土禍(무오사화)때 화를 입은 寒齊(한재) 李穆(이목)의 8대 손이며 李廷煥(이정환)의 손자이다. 그의 조부 이정환은 자를 輝遠(휘원) 호를 松岩(송암)선생이라 하였다. 병자호란의 國恥(국치)를 통분히 여겨 「悲歌(비가)」 10수를 지었으며 효행이 뛰어났다. 부모상을 당하매, 죽으로 끼니를 이으며 6年을 侍墓(시묘)하니 이소식을 들은 顯宗(현종)이 특별히 백미를 하사하여 식사를 들도록 전하였으며 그 효행을 기리빛내었다.

그 뒤 이정환은 66세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성을 한 孝子(효자)로써 세상을 떠났다. 숙종때 송암의 旌閭(정려)를 명하였으나 건립하기를 못했었다. 이경설은 이정환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효행과 학덕이 높은 조부의 영향을 받아온 경설은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웠다.

그 아우 景益(경익)은 자를 公舉(공거)라 하였는데 형제가 함께 자라면서 형은 아우 위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아우 경익 또한 형의 말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섬기니 보는 이들이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들은 두 몸이면서 마치 한몸같이 생각하였고 또한 행동하였다. 이 경설이 18세때(아우는 13세) 뜻밖에도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 평소 예 효행이 뛰어난 형제는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하며 어머니를 부르짖었으나 어찌할 길이 없었다.

모든 예를 갖추어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머니를 잃은 것은 이보다 더한 죄악이 없는 일이다.. 마땅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侍墓(시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형의 말에 아우가 따르니 어머니의 산소 옆에 侍墓(시막)을 짓고 형제가 조석으로 上食(상식)을 올리는데 마치 살아계시는 분을 모시듯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여 죽만으로 끼니를 이었고, 머리와 수염을 깎을 줄을 몰랐다. 상식을 올리고는 이어 슬프게 호곡하는 형제의 울음소리는 적막한 산속에 구슬픈 메아리를 남기곤 하였다. 이렇게 지성으로 형제가 3년상을 시막에서 지내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불러 雙孝子(쌍효자)라 일컬었다.

그 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悔恨(회한)의 정을 아버지에게 더욱 뜨거운 효도를 다지게 했다.

이들 형제는 항상 생각하기를 “아버님을 편히 모시는 것이 곧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과 같다”고 여기며 지성으로 아버지를 섬기었다. 원래가 청빈한 선비 집안이라 가세가 빈약하였으나 아버지에게는 항상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봉양을 하였으며 형제가 한 울타리 안

에서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니 이같이 따뜻한 형제애를 매일 대하는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아버지의 온돌방에는 훈훈한 열기가 감돌았으며 이 두 형제들 가정 또한 화기에애함이 봄날같았다.

이러한 두 아들의 효성에 아버지는 75세까지 편안한 여생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이들 형제의 두터운 효행과 뜨거운 우애는 이웃 고을에 까지 널리 알려졌으며 저승길 또한 같은 해에 떠나갔으니 그 때가 1708년 (숙종 34) 이경설은 58세요, 아우 경익은 53세였다.

그러나 정문은 이보다 앞선 1699년 (숙종25)에 형제가 다같이 命旌(명정)이 세워졌고, 후일 1723년 (경종3)에는 그의 조부 이정환과 함께 형제가 司憲府持平(사헌부지평)에 증직되고 동년 3월에 3효자의 정려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아우 경익은 그의 아들 東明(동명)이 이인좌난에 공을 세워 原從功臣(원종공신)이 됨으로써 1728년 (영조4)에 左承旨(좌승지)에 추증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조부 및 손자에 걸친 兩世(양세) 3효자의 정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로 소중히 보존되어 오고 있다.

陽化里

옛날 上古時代엔 淸流部曲과 良化部曲이 있었던 庶民地帶였었다.

백제때는 두인지현의 地域이었으며 고려 현종때 淸州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燕岐縣 그리고 1913년 행정구역 개혁때 南面의 元岩里 轄

천리 월룡리 내산리 평촌리와 그리고 公州郡의 이웃 名里의 一部를 병합하여 良化部曲의 이름을 따서 陽化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앵청이나루

양화리에 있는 나루터다. 조치원 부강쪽에서 흐르는 물이 합치는 곳을 <습江>이라 하고 그 습江에는 1km 公州쪽으로 錦江邊을 타고 내려오면 냇시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나루터다. 옛날 이곳에 <앵청이>이라고 부르는 아가씨가 주막을 하고 있었는데 못사내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곤 하다가 나루터 이름도 그 아가씨 이름따서 앵청이<나루>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안세거리

轉月山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안세거리>라 부른다. <세거리> 안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上古時代에 이곳에 良化部曲이 있었다 한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대다.

세거리

양화리와 진의리를 통털어 이르는 마을명이다. 동쪽의 형강 <荊江>과 북쪽의 작천 <鵲川> 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금강을 이루는데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장사배들이 드나드는 것이 마치 세거리를 이루는 것 같았다 한다. <시거리>라고 부를 때도 있다.

上 村

<안세거리> 뒤쪽인 원수봉 밑에 있는 마을을 <上村>이라 부른

다. 이 마을을 <원암>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가운데서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그리 부른다 한다.

상여바위

轉月山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모양이 상여처럼 생겨서 <상여바위>라 하는데 이 바위에선 비가 오기 전날이 구질구질할 때 곡소리가 들린다 하며 이 바위에서 곡소리가 들리면 그 해엔 洪水가 난다고 전한다.

佳鶴이

<안세거리> 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가라지 <강아지풀>이 많았으며 또한 地形이 鶴의 形局이라해서 <가학이>라 부른다 한다. 그 외에도 <아래말> <하촌> <학천> <가학> <가라기>라고도 부른다. 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굴 말

<세거리> 바깥편에 있는 마을이다. <굴말> <구을촌> <곡촌> <바깥세거리> <외삼>이라고도 부른다. 上古時代에 清流部曲이 있었다.

龍 泉

<전월산> 山峰에 있는 우물을 龍泉 또는 靈泉이라 부른다. 여기 우물은 山峰에 있으나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는다 하는데 가물이 들면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전해진다. 옛날에 한 이무기가 금강에서 百年을 지내고 산으로 굴을 파고 올라와서 轉月

山에서 百年을 지낸 다음 이 용천을 통해서 昇天하여 龍이 되었다 하는데 보통 이무기는 三百年은 물속에 있어야 용이 되어 昇天하곤 하는 것인데 200년만에 昇天하였다 하여 이 우물을 靈泉이라고도 부른다 한다. 여기에서 명지실에 돌을 매달아 넣으면 그 명지실이 금강으로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원수산

남면 양화리에 있는 山이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군사가 이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왜군들이 마침 쳐들어오므로 산에 진을 치고 있던 우리나라 군사와 왜군들의 시체로 피바다를 이루었으나 끝내 우리나라 군사들이 적에게 산을 빼앗겼다 하는데 그때 죽은 시체로 골짜기가 생겼고 왜군에게 원한을 갚지 못하였다 하여 원수산이라고 부른다. 父母山이라고도 부른다.

절 골

남면 양화리 一區의 산에 있는 첫 골짜기를 <절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큰 절이 있어서 그 절이 나날이 번창해 가는데 어느 한해부터 빈대가 생겨서 극성을 부려 중들이 모두 달아나고 절을 불태워 버렸다 한다. 옛날에 절이 있었던 자리라 하여 이 골짜기를 <절골>이라 부른다. 高麗때 창건을 본 절에는 이곳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넋을 봉안하고 그 후손들이 자주 찾아들며 불공을 드렸던 절이었으므로 크게 번창했던 절이라 전한다.

압각수

南面 陽化里 있는 은행나무 <鴨脚>이라고도 부른다. 이 古木은지

금으로부터 약 580여 년전의 나무로 典書 林蘭秀가 고려 遺臣으로 고려가 망하자 不事二君之節로 鄉里에 내려와 自己집 뒤편에 은행나무 二株와 백자나무 한그루를 심은 것인데 백자나무는 倭政時 枯死 하고 은행나무 두그루만 살아서 옛날을 되새기고 있다.

떡갈나무

남면 水山里 큰마을 서편 산속에 있는 老木이다. 전해오는 말로는 韓山 李判書 墳墓앞에 나무의 높이가 10餘尺이나 되고 나무의 周圍가 약 3아름이나되는 古木으로 수령도 여기에 처음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알길이 없으나 古木이 늙어서 한편 시들시들 하나 등갈에서는 枯葉이 항상 파릇파릇한데 百歲가 된 老人도 말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에도 똑 같았다 하는데 수령이 500년 넘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 한데 이상스러운 것은 풍년이 드는 해는 잎이 무성하고 흉년일 때는 葉이 시들시들하다 하며 또한 나무잎을 만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돌아온다 하여 마을에서는 신단처럼 모시는 古木이다.

회화나무

남면 양화리 북쪽에 있는 花木을 林興公의 회화나무라고 말한다. 林蘭秀와 함께 고려 遺臣인 그가 이조초엽에 여기에 은거하면서 築石設檀한 나무다. 처음엔 두그루를 심었으나 한그루는 40여 년전에 枯落하고 한 그루만 남아 있는데 워낙 오래돼서 花葉만 무성해서 옛을 말하는데 수령이 580년 가까이 되는 古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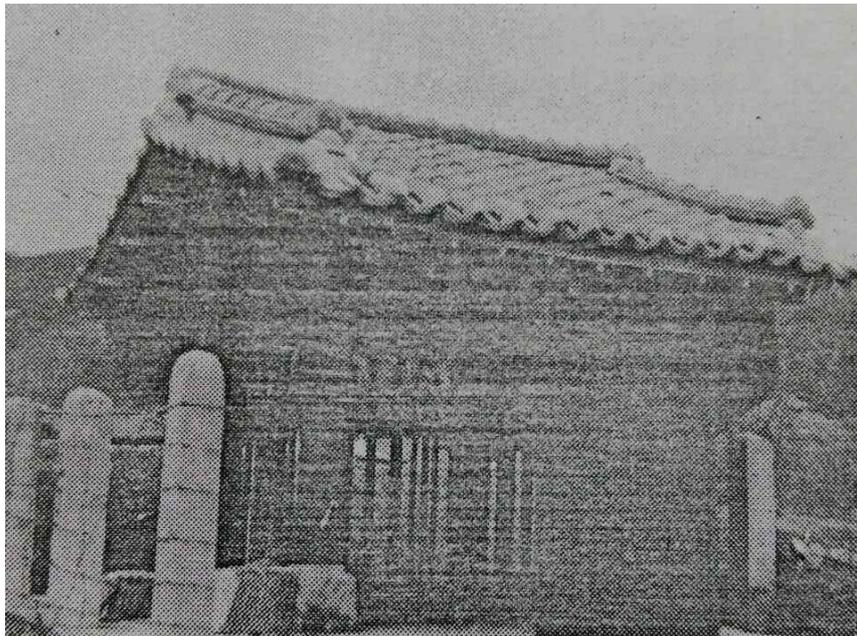
轉月山

남면 양화리에 월산리 뒤에 있는 山이다. 산 높이가 262m 되는데

清流部曲이 있던 仇乙村앞이 뒹으로 <구름다리>라 하던 것인데 漢字로 轉月山이 되었다 한다. 山頂에 우물이 있는데 旱災가 있을때 祈雨祭를 지내면 영험이 있으며 우물가에 능수버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커서 금남면 반곡리를 넘어다 보면 그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하여 그 나무가 크기가 무섭게 반곡리 사람들이 밤을 타서 베어 버린다 한다.

烈女沼

남면 陽化里 월용곡 뒹편에 있었던 沼를 烈女沼라 한다,仁祖 병자호란때 生員林尙의 妻인 韓山李氏가 난리속에 慘殺沼한 곳이라 해서 烈女沼라 부른다 한다.





松潭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의 지역이었다. 신라 경덕왕때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의 영현의 되기도 했었다. 李朝末葉엔 公州郡 長岐面의 지역으로서 마을이 소나무가 무성할 뿐만이 아니라 옛날엔 마을 한가운데에 못이 있었고 그 못안에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우거진 소나무가 풍류여서 여기를 <松潭>이라 불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노을리><나성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松潭里라 하고 연기군 南面に 編入되었다.

표석골

<송담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林氏묘소의 표석이 서 있다 하여 <標石골>이라 부른다. <표석동>이라고 부를때도 있다.

느티나무계

<작은 갈밀> 뒤산에 있는 놀이터를 <느티나무계>라 부른다.

느티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인데 이 부근 사람들은 <느티나무계>하면 신선한 곳으로 부르게 되어 있다.

느티나무

松潭里 小葛山洞 뒤편에 있는 石拾蝕年이 넘는 古木이다. 扶安林氏들의 젊은이들이 靑雲을 품고 글을 읽던 松月亭의 밖에 심은 나무로 나뭇가지의 모양이 마치 꽃송이 모양과 같아 울창함과 華麗함을 자랑하는 나무다.

葛 米

<松潭里>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다. 마을 뒤에 묘한 산이 있으며 고려말엽에 이 곳을 지나던 林團將軍이 말하기를 여기 地形은 葛蔓形이라 깊은 갈대밭이 장차 변해서 곡식을 생산하는 들이 될 것이라 하여 葛米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葛山>이라고도 부르며 扶安 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孝誠(효성)으로 錦江(금강)의 얼음 녹인 林命楫(임명즙)

정려문

林命楫(임명즙)의 자는 伯涉(백섭)이요. 본관은 扶安(부안)으로 영조 20년 (1744년) 林宗儒(임종유)의 7 남매중 장남으로 燕岐郡(연기군) 南面(남면) 松潭里(송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덕망높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학문 또한 뛰어 났으며 남달리 孝誠(효성)이 지극했다.

어머니 李氏(이씨) 또한 왕통의 피를 이어 받은 讓寧大君(양녕대군)의 10대 손으로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명즙은 많은 것을 배웠다. 명즙의 가정은 유복한 편이었으나 불행히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결을 떠나지 않고 4년간 약시중을 들었다.

이때 임명즙이 사는 마을에서 십여리 밖에 유명한 의원이 한분 살고 있었는데 대단한 고집이 있어 웬만한 세도가들이 왕진을 청해도안 가는 의원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명즙은 아버지에 병을 낫게 해드릴 일념으로 수차례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왕진을 청했다. 돌부처 같은 옹고집 의원도 끝내는 어린 소년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이 되어 왕진 치료를 하니 부친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명즙의 아버지는 정조 7년(1783년) 11월 14일에 향년 58세의 생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지성스럽고 애통해 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버님의 시신을 모셔 출상을 하려면 연기군 남면 진의리의 西斤沼(서근소) 나루를 건너야 하였다. 때마침 추위가 몰아쳐와서 錦江(금강)의 물이 반이나 얼어 있었다.

상여를 나룻배로 모셔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얼음위로 상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출상을 하루 앞두고 난감한 입장에 처한 그는 강가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애통해 하니 그 구슬픈 울음 소리가 天涯(천애)에 닿는듯 하였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니, 하느님도 그 효성에 감복하였는지 밤사이 금강의 얼음은 모두 녹아 다음날 아침 상여는 나룻배로 모실 수 있었다.

걱정 끝에 비통해 함을 머금고 무사히 초상을 치루고 애통한 마음으로 날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이씨마저 風丹(풍단)이란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 풍단이란 병은 고열이 나고, 환부의 피부가 붉어지며 붓고 심해지면 腫瘡(종창)과 疼痛(동통)을 일으키는 일종의 전염병이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에는 사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그 역시 사약에 한 가지로 (민간요법) 소리개의 깃이 특효약임을 전해 듣고 소리개 깃을 구하고자 수 십여 일을

산과 들을 헤메었으나 좀처럼 구할 길을 막연했다. 이때 또 “천지신명은 어찌하여 微物(미물)의 깃을 이토록 감추시나이까? 굽어 살피사 소생에게 소리개의 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곡히 기원하니 또 한번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마침 하늘을 날아가던 소리개가 그의 마당에 깃을 몇 개 떨어 뜨렸다. 그는 그 깃을 고이 태워 어머니의 환부에 발라드리니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의 모친 이씨는 아들의 효심을 받으며 병마로 시달리다 순조 3년(1803년)에 세상을 하직하니 그는 날마다 애통해 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슬프게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다. 이때 그의 호곡소리는 이웃마을에 까지 슬프게 울렸다. 그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결국 모친이 세상을 떠난지 불과 5년뒤인 1808년(순조8)에 세상을 떠나 그토록 목메게도 잊지 못하던 부모님의 곁으로 가니 그의 나이 64세 였다. 그의 뛰어난 효행은 인근 고을을 진동하였다. 이에 이 지방의 유림들까지 그의 효행을 조정에 알리어 표창케 했다. 조정에서는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經筵參贊官(경연참찬관)의 벼슬을 내리고 정문을 세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효행을 본받게 하였다.

錦江(금강)의 상류가 굽이 굽이 흐르고 鷄籠山(계룡산)이 굽어보는 야산과 평야로 이루어진 연기군 일대는 옛부터 孝脈(효맥)의 고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후일 사학자 李圭泰(이규태)는 그의 저서 “韓國의 人脈”(한국인맥)에서 「계룡산은 敬天思想(경천사상)이 명맥을 잇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 예찬했으며 「효도는 錦水五邑(금수오읍)에 뻗은 儒脈(유맥)의 필연」이라 燕岐(연기) 지방에는 旌閭(정려)를 받은 孝子(효자) 烈女(열녀)가 전국적으로 으뜸인 백명을 넘고 있다

고 하였으니 가히 충청도 사람의 眞脈(진맥)을 여기서 알 수 있다.
하겠다.

보통리

通湫用水란 말로부터 緣由된 里名이다. 냇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와
눌왕리 연기리를 거쳐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꼭 여기서사는 사람
들에게는 寶物과 같다고 表現했었다. 연기리로부터 보가 통해 감으
로 <보통>이라 불렀다.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燕岐縣에 속
있다가 李朝末葉엔 연기군 군 내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마을을 병합하여 汎通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жат 띠

<성산>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栢子木이 있었다. <жат
띠><栢峙>라고 부른다. 경주이씨 光山金氏들이 많이 산다. 마을에
서 보는 塘山이 마치 半月처럼 생겼다 하여 <月里>라고도 부른다.

보통이

<жат띠>재 넘어에 있는 마을이다. 연기리로부터 보로 통해본다
해서 <보통이>이라 부른다. 坡平尹氏 濟州高氏 普州姜氏들이 많
이 살고 있으며 두매에선 큰 마을이다.

젓 막

汎通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연기리가 큰 고을이었을때 이 곳은
큰 장터였었다. 물건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새우젓> 이었다
하는데 그 새우젓을 싣고 배가 錦江 따라 올라와선 여기에서 거

래가 되었다 한다. 새우젓이 쌓여진 고장이라 하여 <젓막>이라 부른다 한다.

방축리

<방축>은 李朝末葉 <도선>이란 道師가 이곳을 지나다가 마을을 본즉 마을의 地形이 방에 든 소같이 생겼다 하여 <방축골> <방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연기군 남면의 一部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편입하여 方丑리라 하고 燕岐郡 南面に 속했다.

정문말

<방축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成張 二烈女旌門이 있다해서 <정문말>이라 부른다.

은행나무

德洞에 있는 나무다. 이 곳 出身인 林葉이 20여세에 軍資監主薄의 벼슬까지 올랐고 머리가 비상하여 義에 두드러진 사람이었는데 丙子 胡亂때 竹山싸움에서 용감하게도 오랑캐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여 단신분투하였으나 力不足으로 戰死하였다. 오랑캐들이 勇將인 그의 屍體를 유달리 끌어내서 불태워 버린 것을 봐도 그의 용맹을 알 수 있다. 그 후 후손이 戰地까지 찾아가 불탄 屍體의 재를 한주먹 가지고 와서 이 곳에 招魂하고 茶體를 지냈는데 每年 병자년이면 이 은행나무의 나뭇잎이 不開한다고 전한다. 수령이 410餘年이 되는 은행나무다.

도림말

<방축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地形이 황소의 도래처럼 생겼다 하여 이 마을을 <도람말>이라 부른다. <근곡>이라고도 부른다.

오 산

<턱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마치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鰲山이라 부른다.

턱 골

<방축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조때 고종황제의 스승이었던 한림학사 任公이 落鄉하여 처음에 살던 곳이라 <德洞><턱골>이라 부른다 한다. 昌原黃氏가 많이 산다. 유덕군자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한다.

화동고개

<방축리>에서 <진의리>로 連結하는 고개를 <化通고개>라 부른다. 병자호란때 명나라의 장수가 여기를 지나다가 본즉 여기에서 장차 유능한 명장이 나타나서 명나라를 괴롭힐 것 같아서 고개를 단 칼로 잘라서 통하게 하였다 해서 <화통고개>라 부른다 한다.

늘왕리

<늘왕리>君子라는 옛말에서 由來된 地域으로 <君子林>이라고 부르던 지역이기도 하다.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 景德王때는 燕岐郡의 영현이었다가 고려현종때 淸州에 속하기도 하였다.

訥旺山아래 位置하므로 <느랑이>라 그리 불렀던 곳이다. 本來 연 기군 南面의 一部로서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訥旺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왕바위

<칭룡>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그 바위를 <왕바위>라 부르며 여기 마을도 그 바위 따라 <왕 바위>라 부른다. <旺岩>이라고도 부른다.

원땃골

<눌왕리>에 있는 마을이다. 英祖 4年 (1728)때 申天永이 亂을 일으켰을때 연기의 원님이 이 곳에서 피난하였다. <원곡> 이라고도 부르며 강진李氏들이 많이 산다.

새터말

<느랑이>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새 터말>이라 부른다. 또한 <하늘>이라고도 부른다.

文 岩

<새터말>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서 마주보는 旺子峯이 이 마을에서 바라보면 王子가 스승앞에서 글을 배우는 形象이라 하여 <文岩>이라고 부르며 또한 <무남골>이라고도 부른다. 장수黃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느랑이고개

<느랑이>동쪽에 있는 고개를 <느랑이>고개라 부른다. 조치원에 서 大田과 公州로 통하는 고개인데 고려 충렬왕 17년(1291)에 韓希愈(한희유) 金忻(김훈) 등이 元나라 장수 薛??干(설다간)나만 알대왕(那蠻大王)과 함께 <원수봉>과 淸州 境界에 있는 正左山에 웅거하였다가 크게 침입하는 거란군사들을 맞아 正左山 아래에서 싸워 이기고 이고개에서 또 크게 이겨 公州 곱안 나루까지 추격하여 섬멸하는데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려 있었다 한다. <의랑티>라고도 부르는 고려때의 격전지이다.

馬 洞

訥旺里에 있는 마을이다. 韓末에 말을 기르던 洞里라 하여 <馬洞>이라 부른다. <마굴>이라고도 부른다. 죽산 安氏들이 많이 산다.

羅城里

백제때는 豆仍只縣의 지역이었다. 新羅 景德王때 연기로 고쳐서 연기군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때 淸州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연기군이 있었던 연기리와 가까이 있었고 신라때 신라군에 의해 築造된 城이 있다 해서 羅城, 나리재라 부르다가 서기 1913년엔 공주군 요당면에 속했고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區域을 병합하여 羅城里라 하고 燕岐郡 南面에 편입되었다.

岐湖書士

羅城에 있는 前 岐 胡書社의 터, 西河 林椿 典書 林蘭秀 府使林穆 威毅將軍 林興等 三代의 四位를 배양하였던 書社다. 高宗 5년(1868)

에 헐리고 現代 林氏家廟가 되었다

사성사루

羅城앞 錦江에 있는 나루터. 羅城에서 금남면 대평리로 건너가는 나루터를 <나성 나루터>라 부른다. 羅城里에 있는 나루터라 해서 羅城 나루라 부른다.

獨樂亭



羅城기슭에 있는 亭子를 독락정이라 부른다. 망망한 들가운데 있는 羅城을 등지고 낙락장송이 우거졌으며 앞에는 맑은 금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그 옆에는 흰 모래가 퍼져 있어서 그 경치가 썩 아름답다.

李朝初에 양양부사 林穆이 그 아버지 林蘭秀의 유언으로 이 곳에 독락정을 짓고 한가이 남은 해를 보냈으며 敬齊 南秀文이 글을 짓고 四佳亭 徐居正이 詩를 지어 찬양한 亭子다.

나리재

羅城里에 있는 土城을 <나리재>라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나리재>라 부른다. 羅城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들을 지나 錦江가에 있는 높이 45m되는 외딴산에 土城을 쌓았는데 백제때엔 農城이었다 전한다. 여기 성안에 林氏家廟가 있고 기슭에 獨樂亭이 있다.

참샘골

羅城里에 있는 찬샘이 있는 마을을 <참샘골>이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二百餘年前부터 산계곡에 自然水가 흘러나와 오고가는 사람들이 웅달샘을 파놓은 것이 처음이었다 하는데 물이 季節에 관계없이 차고 피부병에도 약효가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샘이라 여기엔 扶安林氏들이 살며 <약수터>로 통한다. 高麗末葉의 記錄을 보면 公州 고을에서도 몸에 병이 생기면 羅城의 찬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때는 유명하였던 약수터였다.

高亭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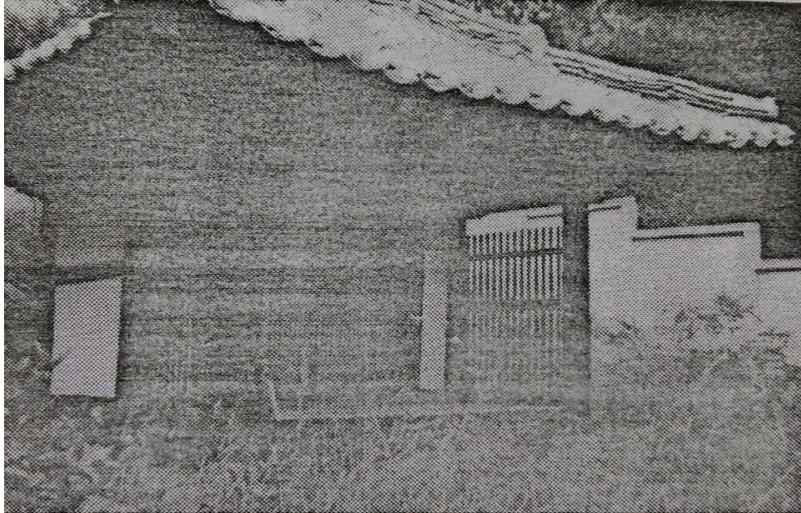
백제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고려현종때부터 공주군에 속했었다. 李朝太宗때 연기현 이었다가 末葉엔 연기군 남면의 地城으로서 <높은 정이> <高亭>이라 불렀는데 西紀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里를 병합하여 高亭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鄉校말

高亭里에 있는 마을이다. <향교말><아랫말>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말에 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어서 많은 人才를 배출함으로 <향

교말>이라 부른다 한다.

御書閣



高亭리에 있는 御書閣이다. 옛날에 太祖가 이 곳을 지나다가 목이 타서 물을 찾을 때 康氏의 子婦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大王에게 물을 떠주는데 그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서 줬는데 大王이 물을 마시기전에 말하기를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운 뜻이 뭐냐고 물은 즉 그 子婦가 대답하기를 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체할까 걱정이 돼서 그리하였다 하므로 그 고귀한 忠誠에 감탄하여 親筆을 나렸다 한다. 太祖 英祖 正祖 高宗 四御泰壬하기 위해 약 200餘年前에 閣을 건축하였으며 康氏의 御書閣이라 부르고 있다.

國土峰

高亭리에 一區에 있는 山이다. 고려말엽에 어지러운 國運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三政承이 國論을 協議한 山이라 하여 國事峯이

라 부르던 것이 國士峯이 되었다 한다. 이 山을 섬기면 그 섬기는 집에서 훌륭한 子孫을 둔다하여 여기 마을사람들은 一年에 한번씩 山祭를 지내며 國士師을 모신다.

銀高介

高亭里에 있는 고개다. 李朝末葉에 郭政丞이 이 곳에 先親의 墓를 마련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때 따라오던 스님이 말하기를 지금 郭政丞이 끼고 있는 銀가락지를 부처님께 시주하면 子孫代代 富貴榮華를 누릴 것이라 하여 그 은가락지를 스님께 시주를 하고 先親의 墓를 여기에 썼더니 그 후 子孫이 후하게 영화를 누렸다 하는데 그래서 이 고개를 <銀고개><시주고개>라 부른다.

소학동

<높은 정이>남서쪽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巢鶴이란 학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여기로부터 많은 人才가 배출되었다 하는데 그 학자와 연유한 마을이라 해서 <소학당>을 약해서 <소학>이라고 부르다가 변해서 <小也>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래는 공주군 장기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에 연기군 남면 고정리로 편입되었다

東 山

<높은 정이>동쪽 산밑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에 마을이 있으면서 해가 뜰 때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뜨는 해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하여 <東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柑木亭

<중리>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다른 곳에 비해서 유난히도 감나무가 많고 여기 감나무에서 따는 감이 크고 맛이 좋아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감나무골> <柑木亭>이라 부른다 한다.

범지기

<높은 정이>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모양이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한다. 옛날에 범이 산속에 있는 마을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므로 砲手들이 몰려 들어와선 여기에서 여장을 하고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하는데 그래서 범을 지키는 곳 <범지기>또는 虎罽(호준)이라고 부른다 한다. 호랑이 떼들이 몰려와서 사람을 해친것은 山神을 잘못모셨다 하여 먼저 山神을 모시고 호랑이 사냥을 하자 호랑이는 모두 도망쳤다 한다.

月 城

<높은 정이>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여기는 달과 연유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이다. 옛날 단란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날 스님이 한사람 찾아와서 시주를 원하기에 시주를 듬뿍하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달이 밝게 비치는 밤에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질때까지 기도를 드리라 해서 하루는 달밝은 밤에 기도를 드리며 소원을 성취한다 해서 月城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葛雲里

백제 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연산현의 영현이었다. 고려 현종 때는 청주에 속하였다가 이조태종 때 연기라 하여 현이 있었다.

李朝末葉엔 연기군 南面에 속하였으며 산이 칩닝쿨처럼 영키어 열기설기 서러있고 여기에서 물이 귀해 구름을 봐도 물을 보는 것처럼 반가워 하여야 할 지역이라 하여 葛雲이라 하였다 한다.

元師山

南面 갈운리와 진의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산의 높이가 223m가 되는데 봉우리가 둘로 되어 있다.

고려 충렬왕 때 거란군사와 크게 싸웠던 자리다.

元師山城

南面 葛雲里에 있는 元師山 山頂 南쪽에 있는 山城을 元師山城이라 부른다. 고려 충렬왕 17년에 <거란>의 來侵 때 元將 ??다干과 고려의 장군 한희유 金忻를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서면 正左山부터 적을 追跡하여 元師山城에 留陣하면서 적을 전멸시킨 유서깊은 山城이다.

倉 村

갈운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社倉이 있었고 馬田畝과 말을 가두어두던 倉庫가 있었다. 그래서 倉庫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倉村 또는 창말이라 부른다.

金 砂

<원수봉>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새울><검사>라고도 부른다. 고려말 金氏 한사람이 이 곳을 지나다가 山勢를 본즉 山에 금줄기가 뻗었다 하여 이 곳 地名을 金砂라 지었다 한다. 文士 林樂龍의 號도 金砂라 한다.

자지턱 골

<창말>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紫芝洞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 근처엔 紫芝란 약초가 있어서 약초가 있는 마을이라해서 <자지턱 골>이라 부른다.

金砂驛

金砂 서쪽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때 <金砂驛>이 있었다 하여 그때부터 金砂驛이라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원셋골

<원수봉>북쪽에 있는 마을을 <원셋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고을 원님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원셋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원셋골>이라 부르며 또한 <원곡>이라고도 부른다.

등근거리나무

<금사역>앞에 있는 큰 길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하는데 옛날에 역쪽들이 말을 매 놓고 쉬어갔던 곳으로 알려진 거리다.

원갈운이

<갈운이>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연기읍에서 오리가 되는데 여기엔 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갈운이>윗쪽에 있다 하여<윗갈운리>라 부르며 <갈운이>아래에 있는 마을은 <아랫갈운이>라 부른다.

吳光均殉節碑

<금사역>에 있는 烈士 吳剛杓의 碑 서기 1850년 「한일보호주약」이 체결되자 烈士인 그는 七賦의 罪狀을 상소하였으나 觀察部에서 却下되자 明岡山中에서 六年間 은거하다가 서기 1910년에 조국의 미래가 암담해지자 公州 明倫堂에 들어갔다가 絶命辭를 강당류상에 부착하고 10월 16일에 자결한 烈士이다.

치열봉

남면 갈운리에 있는 山峰이다 옛날 어느 夫婦가 子孫을 두지 못하여 子孫두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중이 찾아와서 말한대로 치알을 치고 百日間 기도를 하였는 즉 玉童子를 얻었으므로 기꺼워하였다 한다. 그 후 그 아들은 커서 科에 급제하여 권세가 대단하였다 하는데 그 후부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면 권세가 불길처럼 뻗힌다 하여 치열봉 <熾熱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국치를 당하자 자결한 吳剛杓 (오강표) 순절비

吳剛杓(오강표)선생은 1843년 (현종9년) ~ 1910년 구한말의 사로써 자는 明汝(명여)요, 호는 無貳齋(무이재)이고, 寶城(보

성) 사람이다. 보산군 子慶(자경)의 후손으로 공주군 사곡면 율리도덕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바르고 義(의)로 좌우명을 삼았으며 효성 또한 지극하여 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행진 끈을 끌러본 일이 없이 3년상을 마쳤다 한다.

선생은 스승을 섬기기를 극진히 하고, 친구를 사귄데 있어서도 예로 행하며 충의의 마음이 남달리 강하였다.

무이재 선생은 실로 의지의 인물이요, 그의 글은 곧 의지의 기록이다. 비록 오늘날 남아 있는 時文(시문)이 수편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뜻없는 소리 백편이나 천편보다 낫다. 마치 시끄러운 참새떼 지저귀는 속에서 창공에서 길을 이끌고 가는 기러기의 외마디 맑은소리를 듣는 느낌인 것이다.

오강표는 학문속에서 충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민족 지사였으며 일생을 살아온 의인이다. 오강표는 일찍이 당대의 거유이었던 鼓山(고산) 任憲晦(임헌회)와 良齊(간재) 田愚(전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이 일본측의 강요로 체결되자, 오강표는 “신하된 도리로 나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어찌 살아 남을 수 있으랴”하고 五賊(오적)을 토주해야 한다는 辭意峻嚴(사의준엄)한 상소를 올리고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아편을 구해 明倫堂(명륜당)에 들어가 대성통곡한 뒤에 약을 먹었으나 半死(반사)의 지경에서 가까스로 소생하였다.

이로부터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일컬어 狂士(광사)라 하였다. 그후 오강표는 討賊(토적)의 글을 여러번 지었으나 師友(사우)들이 후일을 기다리라 만류하므로 다시는 세상에 살 뜻이 없어 항시 독약을 휴대하고 明岡山(명강산)속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絶命詞를 지어 선산과그

의 스승 임헌회의 묘에 고유한 후 公州文廟(공주문묘)에 들어가 글을 벽 위에 붙이고 대성통곡한 연후에, 講學樓(강학루)에 올라 조용히 목을 매 죽으니 이 때가 1910년 10월 16일이었다.

절명사에 이르기를 「 비록 살아서 조선땅을 되찾는 것은 어려우나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을 어찌 볼 것이냐? 」 하였다. 또한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애절한 우국충정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

「 오호라, 내 금년나이 칠순에 이르니 나라가 파하고 임금이 망하는 때를 당하여 일책을 들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죽음만 같지 못하다.

어찌 분함과 원한을 참고 왜놈에게 굽힐 수 있으랴? 나는 이씨조선의 사람이요, 죽어도 이씨조선의 귀신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성인이라 하였고 맹자는 의를 취하라 하였으니, 흰 머리 붉은 충성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로다. 松庵(송암) 崔鍾和(최종화)가 영결사를 製贈(제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봉황산 울울하고 창창한데
협기는 천년의 수양산과 같도다.
금강물은 깊고 푸른데
후세 사람들은 沉湘(원상)에 비하세.
슬픈 노래 한 곡조로 당신을 보내니
가을바람 소슬한데 한낮에도 춥도다.
천하만고에 어찌 이러한 때를 만나
뜻높은 당신이 불귀의 길을 가오.

이리하여 오강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오강표가 죽던 날 倭皇(왜황)이 勅書宣布(칙서선포)에 즈음하여 군수실에 서

는 회의를 하고 있던 중 오강표가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경 실색하여 「우리가 어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랴」 하고 뿔뿔이 흩어져 스스로 해산하였다.

왜놈들도 역시 놀람과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진실한 충신은 보았다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종화는 오강표 行狀(행장)에 이르기를 「초야의 한 布衣(포의)로 붉은 피 滿腔(만강) 하고 愛國憂國(애국우국)하기를 생을 버리기에 이르렀으니, 매운 그 마음은 참으로 옛 사람에 부끄럽지 않다」 하였다.

또 1946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白凡(백범) 金九(김구) 선생도 追挽(추만)을 올렸다. 한편 1905년 11월에 그가 읊은 嘆吟(탄음)을 보면 그의 심회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군사부 밖에 무슨 의가 있을까.

속국의 백성이 어디서 살으랴

이밖에도 그의 蔬(소), 시, 부가 無貳齊集(무이재집)에 전해지고 있다. 그의 시는 맑고 조용한데 그 특색이 있거니와, 그의 鄉思(향사)라는 시를 보면, 소소한 가을기운 산속에 스미는데 갑자기 일어 나는 고향의 그리움이여!

천리강남에 기러기야 네 가거라.

혹시나 네편에 고향소식 들어보자.

반쯤 트인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는데,

파초 잎 속에는 가을색 머금은 꽃

물고기 접시속에 새맛이 그득한데

나룻터 사람은 금강에서 왔다 하네.

차 끓이는 연기가 가늘게 흔들리고

정적속에는 가득한 정 흘러넘치네.

하늘 끝 돌아가는 구름 저절로 막히는데,

푸른산 한 조각이 석양에 비치네

이처럼 오강표는 학문 속에서 충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준 우국지사로서 일생을 살았던 것이다. 더욱 그가 춘추 7순에 한일합방(1910)의 소식을 듣고 목을 매어 자결한 것은 그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없이 내가 없다는 큰 뜻에 산 그의 뜻을 배우고 익혀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 받아야 할 인물이었다.

전월산의 버드나무

전월산에 오르면 龍泉이란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근처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때 이야기라 전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을 앞으로 하고 우뚝 솟은 전월산은 상봉에 龍泉이 금강까지 산속으로 물이 뚝려 있어서 흐른다 했다. 그래서 이무기가 금강에서 자라난 龍泉까지 올라와선 백년을 기도하면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된다 한다.

고려 초엽 금강에서 맑게 자란 이무기가 승천을 목적으로 전월산 산속 물줄기를 타고 용천까지 올라 왔었다. 넓은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세월을 보냈던 이무기가 물줄기를 타고 전월산 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정말 답답했었다. 용천에 올라와선 물 밖에 몸을 내놓지 않고 앉아 있어야만 했다.

이무기가 용천에 온지 그럭저럭 많은 해가 지났다. 하늘에서 우렁차게 천둥소리가 들려오면 누구는 승천하는구나 하고 초조하여지기도 했지만 여유있게 기다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피는 것 같더니 전월산이 온통 먹구름에 쌓였다. 이무기는 아직 승

천하기는 빠르데 웬일인가 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벼락 치는 소리가 더욱 크게 하늘이 찢어질 듯 울리더니 한편이 흰해지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전월산의 파수병은 들어라. 전월산의 그대는 승천하면 처음 누구 나가 청룡이면 그러하듯이 천궁을 지키는 파수병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몸가짐이 깨끗하듯이 승천할 때는 티끌하나 없는 맑음 이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주의하는 즉 그대가 승천할 때는 흠을 털고 깨끗이 함은 물론 승천할 때 혹시 어린 아이를 뺀 신부가 보면 절대 안되니라 이점을 주의 하도록..... 알았느냐?」

함으로 그는 얼굴도 쳐들지 못한 채,

「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로부터 몇십년이 흐른 후 이번에는 더욱 크게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이무기에게 승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무기는 흠을 닦고 승천할 때를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물줄기가 내려왔다.

이무기는 그 물줄기에 올라탔다. 그리고 한참 승천하는데 하늘의 중간쯤 가다가 물줄기가 멈추더니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무기는 이상해서 하늘을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 바보같은 녀석!

산부를 주의 하랬잖아. 건너마을 반곡에 산부가 너를 쳐다보잖아 이 천치바보야」

이무기가 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순간 이번에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 오더니 도로 용천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산부 때문에 끝내 이무기는 승천을 못하고 여기에 떨어진 후

그 이무기는 용천의 버드나무가 되어 버렸다.

버드나무가 되어버린 이무기는 반곡 마을을 원망하는 듯 자라선 그 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버드나무가 자라서 반곡 마을에서 보이면 이번에는 반곡마을 아낙네들이 바람이 나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전월산 버드나무가 자라서 반곡 마을에 보이게 되면 반곡 마을에선 여인네들이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려다가 좌절된 이무기의 심술인 것이다.

그래서 반곡 청년들은 밤이 되면 전월산에 올라와서 이 곳 마을 사람들 몰래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다 하는데 전월산 아래 남면 양화리 사람들은 또한 버드나무를 베어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한다는 것이다.

한번 이룩하기 위해 몇 백년을 구도하였다가도 이루지 못한 이무기의 한도 대단하겠지만 버드나무가 자라면 바람이 나는 부녀자들이 큰일이라 해서 버드나무를 베어버리기 위해서 한 밤중에 전월산 까지 올라가는 반곡리의 사람들의 정성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며누리바위

사화(士禍)를 둘러싼 슬픈 이야기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쌀 독아지에 쌀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채 책만 읽는 것을 부덕으로 삼던 그 선비가 그의 학문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정에게까지 알려지자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되고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다. 물 한사발 떠다 먹을 줄 모르는 그 선비는 조정에 앉아서 벼슬길에 올랐지만 시종을 부려 먹을 뿐 손끝하나 정사엔 간섭하지 않는 선비였다 한다. 여러 대신들의 모임에서도 남의 이야기나 듣고 있을 뿐 임금이 말을 던지면 도학에 대한 강론을 유창하게 늘어놓을 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가르켜 학자 참외란 말이 떨

어졌었다. 헌데 불행하게도 영의정과 좌의정이 반항하는 사화가 일어나자 그는 곤은 마음으로 사화에 동의하는 강론을 말하다가 역적으로 몰리고 사약이 내려졌다. 그는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 모르겠다」

하고 사약을 마시고 숨졌다.

그래서 책벌레인 대감인 선비는 죽고 그의 아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골말)에 내려와선 심심풀이로 길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양반의 규수가 질삼을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녀가 짜는 모시나 명주는 어찌나 품질이 좋았던지 시장에 들고 나가기가 무섭게 팔렸다. 그녀는 질삼을 하는 틈틈에 밭도 일구고 일을 열심히 했다.

아들에게는 겨울엔 따뜻한 방에서 여름엔 시원한 방에서 글을 읽게 하였고 자기는 일만 열심히 하였다. 아들이 자라서 과거를 보러 가게끔 글도 많이 읽혔지만 역적의 아들이라고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자 아들은 서원에 나가면서 남을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조정에서 그녀의 아들에게 부름이 왔다. 그것도 판 벼슬이 아니고 조정에서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모신다는 벼슬이었다. 아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랐지만 어머니는 어쩐지 한양에 보내기가 싫었다. 그해 아들은 건너 마을에 사는 고려때의 명신의 후예와 결혼했다. 아들이 장가를 들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사양할 것 같아서 서둘러 장가를 보냈지만 장가를 들던 그 이튿날 아들은 어머니 승낙도 없이 사연 한쪽지를 적어 놓고 집을 떠났다. 아들을 한양에 잃은 어머니는 그날 하루 쉬었을 뿐 또 열심히 일을 했다. 며느리에겐 부엌에 들어와서 사발하나 못부시게 하면서 일을 하고 길쌈을 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피곤하면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초저녁

에 잠을 자고 이른 새벽에 또 베를 짜는 어머니 몰래 며느리는 초저녁에 길쌈을 하는 것을 배웠다.

어머니의 꾸중을 들으면서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 길쌈을 하는 며느리는 숨씨가 어머니보다 좋았다. 며느리가 길쌈을 하자 건너마을 며느리 친정 집에선 야단 법석을 떨었다. 자기 남편을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할 수 없이 길쌈을 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만 내가 귀여워 하던 딸에게 길쌈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대들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 대신 며느리가 나와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출가외인에게 무슨 간섭이나고 오히려 친정집과 절교를 하므로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여 그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십년이 흐른 뒤였다. 마을이 떠들썩하게 금부도사의 행차라고 요란하더니 얼굴이 무섭게 생긴 도사가 찾아와선 나졸을 시켜 덮어 놓고 어머니와 며느리를 끌어내어 무릎을 꿇게 하더니,

「그대 들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천하의 역적을 둔 에미와 그 처에게 내리는 나라의 사약이니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나 죽자고 어머니가 말하자 도사가 말하기를 임금님이 옳은 일을 하자는데 임금님에게 반대하는 언행을 함은 물론 나라까지 뒤 엎으라 하였다고 설명하자 어머니는 말하기를,

「정말 장한 아들이구만 어찌 그렇게 장한 일을 하노. 옳고 나쁜 것을 잘 가리는 아이라 바른 말을 하였구만……」

하고선 사약을 한꺼번에 마시고 쓰러지자 며느리도 눈물 한방울 없이 사약을 마시고 어머니를 끌어 안은채 숨졌다 한다.

이래서 그 선비의 맥은 끊어졌지만 그 후 몹시 비가 내리던 날 우연히도 전월산 기슭에 바위가 땅에서 솟구쳐 올라 왔다.

며느리가 명주를 짜는 형극의 바위인데 큰 바위에 더 큰 바위가 없
혀있는 바위로 며느리가 어머니를 추켜세운 바위로 명주를 짜는 것 같
은 형극은 그들의 삶에 대한 정성을 너무나 뼈아프게 나타냈다 한다.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 전월산에 있는 이 바위를 그래서 「며
느리 바위」라 부른다 한다.

금 남 면 편

錦 南 面

금남면에 人類이 定着하기 시작한 것은 石器時代부터로 추정한다.

原始時代 人類가 생존을 누렸던 장소는 대개의 경우 氣候的으로 온화한 지대 또는 食住에 便利한 지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기온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食住에 곤란을 겪지 않는 河邊지대인 여기에 인류가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곳이라 보겠다.

물론 集團的으로 부락의 형성은 馬韓때로 추측하나 長在里에 있는 支石墓를 보더라도 금남면의 인류의 역사는 오래된 지방으로 봐야겠다. 백제때는 所以縣에 속했으며 百濟文物의 혜택은 그리 받지 않은 외곽지대였고 行政的 影響의 미침도 오히려 신라통일로 봐야할 것이다. 百濟文周王때는 態津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 景德王때 燕岐로 고쳐서 그 영현이었고 고려현종때는 淸州에 속했으며 李朝太宗때 全岐縣이 되었다가 숙종때는 文義縣에 속하기도 하였다.

허나 公州郡의 영현으로 大部分 歷史를 접은 것이 사실이며 서기 1914년 郡面廢合때 公州郡 鳴灘面 陽也里面이었던 것이 금강 남쪽에 位置하고 있다 하여 금남면이 되고 연기군에 편입되었다.

柑城里

山이 마치 城처럼 둘러있고 산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어서 풍경이 아름답다는 뜻과 감귤나무가 있어서 <柑城구지> <柑城>이라 부르다가 그대로 <柑城里>가 되었다. 本來는 百濟때는 <所以浦>소이포현에 속했고 그後 態津 公州郡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에 公州郡 양야

리면의 지역에서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산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백로 수천마리가 늘 安息하고 있어서 別天地를 이루며 自然保護地域이기도 하다. 百濟때는 末葉에 羅唐軍이 侵略해 왔을때 끝까지 抵抗한 百濟軍의 山城인 蘇文城을 끼고 江으로 올라다니며 끝내 百濟의 마지막 山城도 錦南에 있었으며 柑城은 큰 싸움이 있었었다.

장 터

1910年前엔 장이 크게 섰던 지역이다. 李朝때 李參判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장대리> <감성장터>라고도 부른다.

<감성구리>앞에 있는 마을로 여기 시장이 太平里로 옮겨감에 따라 장터가 자연 없어졌다.

가운데뜸

柑城里 가운데에 마을이 생기자 여기 부락을 <가운데뜸>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평산 申氏가 많이 사는 마을이다.

연 정

마을에 蓮꽃과 亭子가 있다 해서 蓮亭이라 부른다 平山申氏가 많이 살고 있다.

白鷺棲身處

白鷺가 서식하는 柑城의 老松地帶는 자연보호 지역이다.

산에는 약 700년이 넘는 老松이 울창한데 오랜 옛날부터 白鷺가

살고 있다. 여기 사람들은 백로를 信仰처럼 받들고 있는데 백로가 많이 모여들면 그해는 豊年이 오고 백로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기 때 문이라 한다.

金川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오랫동안 公州에 속해 있었다. 이조말엽에도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다가 서기 1914년에 <청사동><학봉리>를 병합하여 金川리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지대는 소가 누운 形局의 명당이 있다 하여 옛날엔 <소대> 手溪라 부르던 곳인데 변하여 <쇠내><金川>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金剛 道本院

서기 1922년 金剛大道 第一世道主 李土庵이 大法堂을 짓고 불상을 봉안하여 金剛大道의 本院을 만들었던 곳이다. <황새미> 마을에 있다.

鶴 峰

<황새미> 남동쪽 언덕에 있는 마을이다. 앞산의 모양이 鶴의 모양 같다 해서 이 마을을 鶴峯이라 부른다. <새재><학봉리>라고도 부른다.

臥牛山

소가 누워있는 형극의 명당이 이 산에 있다고 한다. 그 명당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부위영화가 따른다 하여 숫한 地管들이 스쳐 지나갔던 곳이라 한다. 원금천 뒤에 있는 산이다.

원금천

金川里의 원부락이다. 오랜 옛적부터 부락이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山勢를 따라 몰려온 유민들이 많이 스쳐간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氏族들도 多樣한 마을이다. 백제 고려때 큰 마을이었다 한다.

중방골

<원금천>동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靑寺라는 절이 있다.

<중방><靑寺洞>이라고도 부른다. 골짜기에 절이 있어 僧의 房이란 신성시한 뜻에서 마을이름이 생성되었다 한다.

황새미

뒷산이 황새를 닮았다 한다. 황새와 白鷺는 공통적 해석이 따르는데 柑城의 白鷺와 因緣이 있는 마을이다. 風水說엔 땅속에 무수한 황새의 알(卵)이 있다는 해석이다. 金剛大道本院이 있는 고을로서 금천리에 있는 마을이다. <황학동><황산>이라고도 부른다.

達田里

馬韓때에도 한 부락을 형성하였던 곳이다.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부터 公州郡에 속했다. 李朝때는 많은 風流客들이 쉬어갔던 곳이다. 山幕이 많았었다 한다.

앞산의 모양이 반달같다 하여 <달밭>또는 月田이라 하였는데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達田里라 하고 燕岐郡 錦南面에 편입되었다. 李朝末葉엔 公州郡 鳴灘面이 지역이었다.

닭 재

達田里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마치 닭이 알을 품고있는 형국이라 하여 <닭재>라 부른다. 또한 <鶴峯>이라고도 부른다.

망 골

<육정동>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망골>이라 부른다. 명종때의 학자 東州 成悌元의 묘가 있다. <망동>이라고도 부른다.

望墓臺

玉正峰아래에 있는 돌대를 望墓臺라 부른다. 명종때 학자 東川 成悌元이 매일 朝夕으로 이 곳에 올라와서 그 아버지 묘소를 바라다 보았다 하여 望墓臺라 하는데 그 위에 사적비가 있다.

成三問 堂

李朝 端宗때의 忠臣이며 死六臣인 成三問의 祠堂이다. 達田里 333번지 곧 <원달전>에 있는 祠堂으로서 처음에 여기에 詞堂이 생기기는 그 외손 박호<朴壕>의 子孫이 洪城에서 奉祀하였는데 광무 7년(1903)에 고종의 특명으로 成主英을 奉祀孫으로 정하고 祠堂을 達田里로 옮겨 每年 成三問이 돌아간날에 제사를 지낸다.

梅竹軒集 木板 100枚가 보관되어 있다.

새터말

<원달전>동쪽에 새로된 마을을 <새터말>이라 한다. 本來 李朝부터 회덕군 九則面의 地域인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때 錦南面 達田里에 편입되었다. <신기><신달전>이라고도 부른다.

聖 洞

달밭 위쪽에 있는 마을을 <聖洞>이라 부른다. 成씨가 이 곳에 살았으므로 成洞 또는 成里라 부르던 것인데 成字를 聖자로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 한다.

玉 井

<원달전>뒤에 있는 산 玉井峯 아래에 있는 우물을 玉井이라 부른다. 물맛이 청렴하여 옥료수와 같다 해서 이 고장 사람들이 많이 아끼는 우물이다.

元達田

達田里의 원마을이다. 梅竹軒 成三問의 불천지위 사당이 있는 마을이다.

원당이

옛날에 이 마을엔 元氏라는 큰 부자가 살았다 한다. 그는 이 근처의 富者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姓을 따서 마을 이름을 <원당이>로 변했다 한다. 達田里에 있는 마을이다.

자 월

<원달전>앞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의 모양이 반달과 같다 해서 紫月이라 부른다.

洪가봉

洪장자라는 富者가 살았다는 마을이다. 마을 이름을 부자의 성을 따서 <洪가봉>이라 부른다.

이나주

李朝時代 李氏라는 사람이 나주벼슬을 하였다 하여 이 곳에 사는 李氏의 姓과 그의 벼슬살이 한 고을을 따서 <이나주>라 부른다.

지루고개

洞里로 들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고 해서 지루하다 하여 <지루고개>라 부른다. 집이 20 家口정도 있는 고개 마을이다.

南谷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었다. 고려때부터 公州郡에 속했던 지역이다. 원래는 길옆에 집이 띄엄띄엄 놓여 있어서 道獨洞이라 외롭게 불렀으나 물이 남쪽 골짜기에서 흘러오므로 <南谷><南谷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李朝末葉엔 公州郡 鳴灘面의 地域이었다다가 西紀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때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전에 백정 3,4戶가 살았던 곳으로 그들을 가르켜 <남산백정>이라 불렀었다. 지금도 이곳 남쪽 골짜기에 백정의 묘비가 있었다.

양지뜸

南谷里 양지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항상 바람이 없고 햇빛이 밝다 하여 <양지뜸>이라 부른다.

큰 골

南谷 근처에 있는 마을 扶安林氏들이 많이 산다. 가장 큰 골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큰골>이라 부른다.

무중골

개울에 큰 바위가 있어서 물이 瀑布처럼 떨어진다. 南谷리에 있는 마을로서 <수락리>라고도 부른다. 많은 중들이 모여들며 지나간 곳이라 하여 <못중골>이라 부르던 것이 地名의 원뿌리였다 한다.

변해서 지금은 <무중골>이라 부른다.

강변말

마을 한 가운데를 강물이 흐르고 있어 마을을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 하여 <강변말> 즉 강변가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말

산봉오리에 정자가 있어서 그 아래 마을을 산정말이라 부른다 佛敎에 뿌리를 한 전설이 있는 마을이다.

斗滿里

백제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했었다. 李朝末 葉엔 公州郡 양야리면에 속했다가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산동>과 公州郡 反浦面의 <용포리>일부를 병합하여 斗滿里라 한 것은 山으로 둘러쌓여 있는 地帶이고 해서 옛날엔 두 매 안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그리 부르게 되었다 한다.

山 洞

斗滿里의 산골에 있는 마을이다. 濟州高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두 매 안 산속에 마을이 있다 해서 山洞<산골>이라 부른다.

원두만

斗滿里의 원마을 옛날에 이곳에 부락이 생길 때 처음 생겼고 斗滿里의 산골 마을에선 가장 처음이었던 마을이라 해서 <원두막>이라 부른다. 현 家口는 60여세대이며 濟州 高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강장골

斗滿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康將軍이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데 그는 힘이 장사였고 무예에 능통했다 한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묘가 이곳에 있다 하여 <康將골>이라 부른다.

道岩里

돌이 많아서 <돌골>이라 불렀던 地域이다. 백제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부터 공주군에 속해서 李朝末葉엔 공주군 反浦面에 속했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도동>과 <명암리> 이름을 따서 <도암리>라 하여 서기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第 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掌

도암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행정> <행정리>라고도 부르고 도암리 바깥쪽에 위치한다 해서 <바

깎말> <외촌>이라고도 부른다.

신선객이 바위를 캐러 이 곳에 머무르면서 땅속까지 석반이어서 돌을 캐다가 숙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마을이다.

올바위

중촌 북쪽에 있는 <올바위>아래 마을을 역시 <올바위>마을이라고 부른다. 바위에 구멍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올라나오는 바위 아래 있다 해서 <올바위>라 부른다 한다.

鳴岩이라고도 부르며 화순 崔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또한 그 앞들을 <鳴岩들>이라고 부른다.

안 말

<중촌>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내촌>이라고도 부른다. <안말> 바깥 마을은 이 지대에서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라 해서 <중촌>이라 부른다. 여기엔 화순 崔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大朴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의 地域이었으며 高麗때 公州郡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公州郡 鳴灘面에 속해 있었다가 西紀 1914년 行政區域 폐함에 따라 大朴里라고 하여 燕岐郡 錦南面에 編入되었다.

이곳 산의 모양이 함박꽃과 같다하여 <함박금이>즉 큰 마을이란 뜻에서 <대박>이라 부르다가 大박리라 呼稱하게 되었다 한다.

초정골

<초정골><초정장터><신촌>이라고도 부른다. 大朴리에 새로

된 마을이다. 초정이 있어서 음력 8월이 되면 물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섰다고 한다.

초정약수터

<초정골> 냇가에 있는 새 우물을 초정 약수터라 부른다. 물맛이 짜하고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하여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 많다.

웃 말

<상촌><대유산동>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으로 부터 20年前 까지만 해도 柳氏들이 많이 살았으며 지금도 그들의 묘소가 있는데 柳氏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하여 <대유산동>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웃말>아래에도 부락이 있는데 여기는 <아랫말>이라 부른다.

사기점골

<함박금이> 뒷골짜기를 <사기점골>이라 부른다. 그릇굽기에 적당한 흙이 많이 나와서 많은 그릇을 구어 냈는데 여기서 산출되는 그릇은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丑山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이었다가 新羅統一後 態州에 속하였으며 高麗 顯宗때 公州郡에 속했었다. 李朝 末葉엔 公州郡 양야리면에 속했다가 이곳엔 <추리산>이 있으므로 漢字로 옮겨 <추산>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축산>이라 부르다가 西紀 1914년에 行政區域 改革에 따라 이웃 洞을 병합하여 <축산리>라 하고 燕岐郡 錦南面에 編入되었다.

구령말

<축산> 건너 구석에 있는 마을이다. 九龍爭珠形의 名堂이 있다 하여 약해서 <구령말>이라고 부른다. <구룡><구룡리><꿩말>이라고도 부른다. 全州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鳳 川

<금천리>의 <황새미>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금천리 <학봉재>에서 흘러오는 강물의 아래에 위치하며 황새미 아래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해서 <봉천>이라 부른다. 봉천마을 윗마을을 <上鳳川>이라고 하고 아래 마을 <下鳳川>이라고 부른다.

축 산

마을뒤에 추리산이 있어서 <축산>이라 부른다 한다. 마을앞이 龍形이어서 <龍山>이라고 부르던 때도 있었다. 명당터가 있다고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灘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高麗때는 公州郡에 속해서 李朝末葉까지 2領域이었던가. 여기는 마을앞에 병처럼 생긴 여울이 있으므로 <호여울>또는 <호탄>이라 불렀던 地域인데 또한 사창의 창고가 있었으므로 <동창>이라 불렀는데 1914년 行政改革때 <호탄리>라 하여 燕岐郡 錦南面에 編入되었다.

돌 탑

<동창> 앞, 좌, 우에 있는 탑을 <돌탑>이라 부른다. 작은 돌을 쌓아서 약 3m가량 쌓아 올렸는데 매년 정월 보름날 <돌탑제>를 지낸다.

洞 倉

호탄리에 있는 마을에 사창이 있다 해서 <社倉>이라 불렀다 한다. 日常時代 그들이 이 창고를 털어서 面事務所로 使用했었다. 全州李氏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다.

안 터

<동창> 동쪽 넘어에 있는 마을이다. 전에 安氏가 살았는데 도깨비가 장난하여 솔뚜껑을 솔안에 넣는 여러 가지의 이상한 일이 생김으로 이 마을을 비웠었다 한다. 지금 錦湖 中學校가 있는 자리이다. 安氏가 처음 살았다 하여 <안터>라 부른다. 지금은 安東金氏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黃龍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高麗때는 公州郡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公州郡 鳴灘面의 名堂이 있다 해서 風水說에 따라 <동고지> <둥그지> 또는 <黃龍>이라 불렀다 한다. 西紀 1914년에 行政區域 改革 때 <연소동> <서북리> <원각리> <대지리>를 병합하여 黃龍里하고 燕岐郡 錦南面에 編入되었다.

닭 미

黃龍 西便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산의 모양이 닭같다 하여 <닭미>라고 부른다. 또한 <서북>이라고도 부르는데 部落 西山이 鼓形

이어서 鼓字를 卜자로 해서 <西卜>이라 부른다 한다.

용 미

黃龍리에 있는 마을 뒷산이 龍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 하여 <용미>라 불렀다 한다. <넉미>라고 부르던 때도 있었다. 全州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연소동

黃龍리에 있는 마을이다. <제비집골>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지형이 제비집같이 생겼다 해서 <제비집골><연소동>이라 부른다.

元黃龍

黃龍의 원 마을이다 옛날 어떤 風水師가 말하기를 東쪽에 黃龍渡河形의 名堂과 臣地가 있다 하여 東臣地라 상송하였다 하는데 그 東臣地가 바로 지금<元黃龍>이란 마을이 있는 곳이다.

기와집골

<동고지> 모퉁이에 있는 골짜기를 <기와집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여기에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기와집이 있었던 마을이라 해서 <기와집골>이라 불렀었다. 지금은 변해서 <지와지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큰 골

<동고지> 옆에 있는 큰 골짜기를 <큰골>이라 부른다. 옛날 어떤 風水가 이 산골짜기에 名堂의 <큰골>이 여기에 있다 해서 <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항각골

<큰골>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地形이 마치 항아리 그릇 모양이라 해서 <亢角洞>이라 부르다가 <항아리골>이라 불렀었다. 변해서 <항각골>이라 부른다.

龍浦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高麗때부터 公州郡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公州郡 양야리면에 속했었다. <구렁목>과 <잉어바위>밑으로 흐르는 錦江의 뜻을 따서 龍浦里라 하고 燕岐郡 錦南面에 編入 되었다. 1936년 큰 장마로 인하여 大平里가 江으로 변하자 그 주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동시에 市場도 함께 옮겨져서 그대로 <大平場>이라고 시장이 서고 있는 구역이다.

佳 洞

<쑥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錦石으로 龍秀川이 흘러들어 가는 곳을 앞에 두고 마을이 아름답다 하여 <佳洞>이라 부른다 한다.

木亭里

龍浦面二區에 있는 마을이다. 팽이나마가 있다 해서 <팽목정리>라 부른다.

성 재

<龍浦里>에 있는 재 즉 龍浦里 二區로 넘어가는 곳에 조그마한재가 있는데 이 재를 성재라고 부른다. 鷄龍山을 타고 내려오는 우산봉을 막바로 바라보는 곳에 있으며 우산봉 성터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

하여 <성재>라 부른다 한다.

잉어바위

<장터>서쪽 큰 길가에 있는 잉어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을 <잉어바위>라 부른다. 옛날엔 냇물이 이 바위 밑으로 흘러 내려 갔는데 물이 깊고 잉어가 늘 밑에서 놀며 또한 바위가 잉어처럼 생겨서 <잉어바위>라 하였다 하는데 그 아래의 마을이다. 지금은 잉어바위가 길옆에 파묻혀 있다.

구룡말

지금의 태평리 버스 정류소가 있는 마을 어귀엔 九龍弄珠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는데 아홉 마리의 용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 행운이 깃든 지대라는 것이다. 아홉 용이 웅크리고 있다 하여 <九龍말>이라고 하나 그 외에도 <구룡리><꿩말><구룡><구렁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썩 티

<장터>뒤에 있는 마을이다. 오랜 옛날 이 곳에 王朝의 습을 어겼다 하여 마을을 모두 불태워 버렸는데 그 불탄 자리에 이상하게도 썩이 나오기 시작하여 썩발을 이루었다 한다. 썩이 많은 곳이라 하여 <썩티>라고 부른다.

장 터

<잉어바위>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1936년 큰 장마로 인하여 태평리가 없어지고 그 곳에 새장이 새로 터를 잡았다 하여 <장터><태평장>이라 부른다.

大平里

百濟때는 豆仍只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부터 公州郡에 속해 있다가 이조 말엽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었다. 여기는 큰들 곧 금강가의 마을이므로 대평리라 불렀었다. 서기 1910년에 柑城에 있는 市場을 이곳으로 옮기어 대평장이라 하였고 1914년에 이웃 <삼거리><하거리><고사동>을 병합하여 大平리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하였다 서기 1946년 큰 장마로 온동네 360호가 모두 강으로 변하고 그 이재민이 거의 용포리로 옮기는 동시에 시장도 자연 그 쪽으로 옮겨졌다. 지금 여기엔 새로 지은 10여호가 살고 있을 뿐이다.

또한 大平리는 廢里가 되어 行政區域上 龍浦里에 편입되었다.

塔山里

<강당산>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여기에 큰 절이 있었는데 절에 빈대가 많아서 절을 불태워 버리고 탑만 외롭게 남아 있는데 그 탑 부근에 마을이 생기자 <탑산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新村里

옛날부터 마을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李朝때 부터 마을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地域이다. 옛날엔 이 곳에 꽃이 많이 피는 지대였고 절이 있었다. 새로 마을이 생긴 區域이라 하여 新村里라 하였다.

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公州郡 양야리면의 地域이었다가 1914년 行政改革때 燕岐郡 錦南面에 編入되었다.

웃 말

<웃꽃절골><화사리>라고도 부른다. 이 근처는 景致가 아름답기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큰 말

이 곳에 부락이 생길 때 맨 먼저 마을이 形成된 곳이라 하여 <元新>이라 부르며 <큰말>이라고도 부른다. 家戶는 40世帶가 살며 새로된 마을의 처음 마을이다.

비학산

新村里 뒤에 있는 山을 비학산이라 부른다. 山의 모양이 학이 날아오는 형국이라 하는데 여기에 名堂이 있다 하여 地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여기 명당은 천송이의 꽃과 천필의 비단이 있는 명당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금남국민학교가 있는 자리는 천송이의 꽃이요, 공동묘지가 있는 자리는 천필의 비단자리로 전해지기도 한다.

먹먹바위

<화암사> 아래에 있는 바위를 먹먹바위라 부른다. 반석위에 큰바위가 집의 처마같이 나와있는 바위인데 수백명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 <묵암>이라고도 부른다.

새 말

新村이라고도 부른다. 새롭게 개척되는 이 지대에서 근자에 생긴마을이라 해서 <새말><新村>이라고 한다.

꽃절골

新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이 곳에 花寺란 사찰이 있었다.

꽃이 많이 피는 곳에 절이 있다 하여 그 절 명칭도 花寺라 하였고, 이 근처를 <꽃절골>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고초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靈谷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해 있다가 高麗때부터 公州郡에 속해서 李朝末葉엔 역시 公州郡 反浦面에 속했었다. 이 곳 地形이 영구와 같다하여 <영구골> 또는 <영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에 <영무리>가 되고 1973년 7월 1일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마을마다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서 있는 지역이다.

버드나무골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서 있는 마을이다. <한양궁>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인데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버드나무골>이라 부른다.

병풍바위

靈岩리에 있는 바위를 <屏風바위>라 부른다. 큰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서 있다 하여 병풍바위라 부른다.

屏岩里

<영구골>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山勢가 좋고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다 해서 <屏岩里>라 부른다.

翰林亭

李朝 中宗때 翰林學士 申適美가 여기에 정자를 지으라고 터를 닦고 있는데 어떤 行人이 말을타고 거만하게 여기를 지나려다 하인들과시비가 벌어졌다.

그때 申適美가 그 싸움을 말렸다 한다. 현대 그 行人이 말을 타고 얼마 안가서 말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申適美는 정자 짓는 것을 중지 하였다 한다.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정자를 지으려던 그 터를 가르켜서 <翰林亭>이라 부른다 한다. <회병골> 서북쪽에 있는 옛터다.

漢陽宮

李朝 中宗때 翰林學士 申適美가 己卯土禍에 몰려 벼슬길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은거하면서 늘 한양의 왕궁을 생각하며 살았다는데 그래서 이 곳 마을 地名을 그때부터 <漢陽宮>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영구골>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엔 평산 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영구골

한양궁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마을의 地形이 영구와 같다 해서 <영구골><영동>이라 부른다. 全州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취병골

영구골 근처의 마을이다. 全州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銀 나무

한양궁 한 가운데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樹齡이 3백년이 넘는나무로서 이 나뭇가지 사이엔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 괴이한 나무이다.

그런데 이 오동나무 가지를 꺾어서 삶아 먹으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낙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여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永垆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에 와서 公州郡에 속해서 이조말엽엔 公州郡 鳴灘面에 속했었다. 洞里터가 10리가 넘도록 길다 하여 그리 부르고 길이 빛이 날 터라하여 永垆里라 하였다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연기군 금남면에 속했다.

屯 垆

고려때 거란의 군사들이 침입, 진을 쳤던 곳이다. 군사들이 진을 쳤던 자리라 하여 <屯垆>부르는데 <우려울>윗쪽에 있는 마을이다.

우려울

永垆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옆의 시냇물이 여울져서 물이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 하여 <우려울>이라 부른다. <명탄><명촌>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에는 공주군 명탄면의 소재지이며 지금은 국민학교가 있다.

밤 절

<음달둔디>안쪽 금병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고, 밤나무가 무성하나 열매가 열지 않다가 仁祖가 公州로 피난한 뒤부터는 밤이 열기 시작하였는데 그 밤이 탕기만큼 커서 임금님께 진상했다한다

검바위

<검배>위쪽에 있는 바위를 <검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여럿이 박혀 있는데 그 바위 빛깔이 모두 검다.

그 바위 아래에 먹는 우물이 있는데 바위가 검다해서 <검은바위>라 불러 오다가 변하여 <검바위>가 되었다.

검 배

<우려울>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은 바위>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검배>라 부른다. <검바위><검암>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람재

<청룡안>에서 금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바람재>라 부른다. 고개가 높고 북쪽이 확 트여서 늘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고개라 해서 <바람재>라 부른다.

삼맛골

<우려울>남서쪽에 새로된 마을이다. 여기는 옛날부터 삼을 많이 심었다 하여 <삼맛골>이라 부른다. 처음엔 <삼밭골>이었는데 변해서 <삼맛골>이라 부르며 <삼마곡><신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당미

<우려울>위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다. 옛날에 사당이 있었다 하여 <사당미>라 불렀다 한다. 사당이 있는 골짜기란 뜻이었다는데 변하

여 <사당미>라 부른다.

안버드내

<우려울>앞에 있는 들이다. 옛날엔 버드나무가 많았고, 버드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안버드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안버드래>가 되었고 마을은 없어져서 지금은 들만 남아있다.

<유산>이라고도 부른다.

양달둔디

고려때 거란군사가 쳐들어와서 진을쳤던 자리로서 양지바른 곳을 <양달둔디>라 부른다. <양둔디>라고도 부르며 음달진 곳을 <음달둔디><음둔디><상평>이라고도 부른다.

계량이

永堡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 곳에서 芥子이 많이 나왔다 하여 <계량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계량이>라 부른다. <지랭이> <계량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靑龍안

<양달둔디>위 산속에 있는 마을을 <청룡안>이라 부른다. 청룡가닥이 마을을 싸고 있다 해서 <청룡안>이라 부른다 한다.

밤 절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를 찾으면 밤절이란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밤절과 인연이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 이 마을과 인조때인

조와 인연이 있다니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든다. 허나 밤절엔 인조가 꼭 들려갔다는 이야기로 풀이하는 밤절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다.

언제부터였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곳에 절이 하나 있었다.

절은 부근에 다른 나무가 아닌 밤나무가 육중하게 둘러 싸고 있어서 참으로 전경은 으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나 절간이나 다녀와」 우울한 사람이나 눈물흘리며 괴로와 하는 사람에겐 이 정도로 말을 할 수도 있듯이 절의 풍경은 아늑하고 아름다웠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밤나무들이 봄 여름 철에 푸릇한 신록을 자랑할 뿐 열매는 열지 않았다. 밤나무는 틀림없는 밤나무였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밤나무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초로 보는 밤나무야」 이렇게 웃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해였다. 밤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스님이 밤나무숲을 산책하다가 위를 바라보고 「어머나 밤이 열렸어」 하고 깜짝 놀라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가 놀랄만도 했다. 밤송이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밤나무에 밤송이가 매달린 것도 신기했지만 어찌면 그렇게 밤송이가 많이 매달렸느냐는 것이었다. 꼭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다닥다닥 열렸었다.

스님들은 밤나무에 정성을 다했다. 어디를 보나 밤나무엔 밤송이로 가득했다. 스님들은 밤나무숲을 가꾸며 가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밤송이는 무럭무럭 부풀어 갔다. 가을이 되어 밤송이가 입을 벌리기 시작할 때는 밤송이가 사발만했고 열매 하나가 주먹만 했다. 마치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밤나무가 충익되어 한꺼번에 몰아쳐서 열매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절간의 스님들은 늦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밤을 털어서 광속에 가득히 싸놓았다.

그해였다. 조정에선 왕실에 반기를 든 이괄이가 난을 일으켜 평양에서 영변을 거쳐 한양으로 밀려와선 왕실을 점령하고 말았다. 그때

의 임금인 인조는 할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고생을 하면서 시골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때의 영의정 이원익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물론 도중에서 먹는 음식도 시원찮았고 나라 걱정도 심했지만 인조의 얼굴은 근심에 쌓여 마치 환자같았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 하고 헤메다가 마침 지금의 연기군 금남면 금병산을 지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난을 수습하며 백성들께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며 걷다가 마침 절간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하룻저녁을 쉬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절로 들어섰다. 임금님이 절로 들어서자 여기 스님들은 임금님께 뭘 대접해야 하나 하고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생각끝에 우선 과일을 먼저 올리기로 하고 금년에 수확한 주먹만한 밤을 깨끗한 쟁반위에 가득히 채워서 들여보냈다. 현대 임금님이 이렇게 밤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 인조는 한참동안 영의정과 밤을 맛있게 먹더니 주지스님을 불렀다.

「짐이 들연 찾아들어 밤섬께나 없애야겠네 그러 이왕이면 이 밤을 찌고 또 구어서 좀 줄 수 없을까」 인조는 그때서야 활짝 웃는 것이었다.

스님들은 술에 밤을 찌고 한편에선 밤을 굽고 해서 임금님께 바쳤다. 그날 저녁 석반도 그 이튿날 조반도 밤으로 식사를 끝냈고 이 절을 떠날때는 밤 한섬을 얻어서 짐꾼에게 실려 가지고 떠났다.

그 후 이괄은 충신 정충신 장군과 남이흥 장군의 충성스런 반격에 패망하고 임금님이 한양에 입성하게 되었다. 인조는 마지막 피난지였고 공산성에서 한양길에 오를 때 영의정 이원익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의정 그 밤절에 상을 내려야겠소」 「밤절이라니요?」

「허허 밤을 나보다 더 많이 먹고도 그절을 잊었다니……」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깜박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러 했듯이 이 절엔 상이 내려졌고 자연 절 이름은 밤절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절간은 없어지고 그 절간이었던 마을
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다.

홍개터골

오백여년전 일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에 홍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 고장에서 소문난 부자로 집은 백간에서 한간 부족한 九九간이었고 대궐같은 집엔 향시 운기가 흐르듯 곡식가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가 하면 사람의 인적도 끊어지지 않았다. 하기야 이때만 하여도 선비들이 나라의 정사에 실망한 듯 여기저기를 방랑하며 스스로를 달랠때 였지만 그래서 그런지 홍개네 집에도 시인 묵객이 설새 없이 드나드는가 하면 동냥 오는 거지 시주다니는 중까지 합쳐서 이 만저만한 손들이 드나드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가 무식해서 우직하게 돈 방식에 앉은 홍개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때 문에 향시 이마의 주름살이 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드나들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그 날도 홍개네 집엔 안방에선 그림을 그린다는 도화사가 시골갔다 한양가는 길에 노자가 떨어졌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까지 연 아흐래 동안을 술에 취한 전직 원님들이 정자에 앉아서 시조를 읊고 있었고 사랑채에선 머언 친척이 되는 노인이 책을 베고 앉아선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 집 주인이지만 어디가서 낮잠을 한숨 잘라해도 누울 방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마루에 앉아서 듣기 싫은 시조가락에 힐끔 눈을 흘겼다. 「제기랄 돈은 내가 벌고 치우는 놈들은 따로 있고 허참」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서는데 이번엔 대문간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제기랄 중놈까지 성화군」 하며 대문간으로 나가선 불경을 외우고 있는 중을 밀어내며 이렇게 말을 했다.

「여보, 중앙반 내가 말이야 자네가 달라는데로 동냥을 줄테니 내부 탁좁 들어줄테야? 이봐, 어떻게 하면 집에 손님이나 거지, 중놈들을 못오게 하지 응? 그런 방법은 없을까?」 중은 아무 말없이 불경마저 멈추고 묵묵히 서 있었다. 「이봐, 방법이 있어, 없어, 방법만 가르쳐 주면 이 바람에 곡식을 가득 채워준다니까……」 흥개가 이렇게 소리치자 그때서야 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는 것이었다.

「이 집 뒤곁에 가면 백마 두 필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 겁니다. 그 백마를 잡아서 목을 베어 뒤곁에 묻었다가 3년이 지난 뒤 앞 기둥을 파보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중은 이렇게 말하고는 바빠 이 집을 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자정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곁에 가 보았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서자 중의 말대로 백 마 두필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옳지 이 놈을 잡아서 파묻으면 곡식이 축나지 않겠다」 그는 백마를 죽이고 목을 베어서 거기에 파묻었다. 그 다음날이었다.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손님들이 새벽에 모두 길을 떠나고 방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다. 「옳지 이제 됐구나. 아이구 이젠 사는 것 같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백마를 죽이고 파묻은 그 이튿날부터 거지 한사람이 집 문전에 열신거리지 않았다. 헌데 이상하게도 그 후 부턴 가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광속에선 쥐가 우글거려서 곡식가마를 텅텅 비어놓았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점점 가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흥개는 삼년이 지난 뒤 앞 기둥옆을 파 보았다. 그가 조금 흙을 파자마자 백마 두 필이 뛰쳐 나오더니 집 울안을 서너번 돌고선 대문을 차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백마가 사라진 그날부터 더욱 가운은 기울어 갔다. 이젠 밥을 지을 래도 곡식이 한바가지도 없게 되었다. 그는 거지가 된 것이다.

그는 들어온 복을 결국은 백마 두 필을 죽임으로써 끝장이 난 것이다. 지금 여기를 찾으면 대궐같은 집터만 남아 있고 사람들은 큰 부자가 살던 곳이라하여 흥개터골이라 부른다.

長在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 현종때 公州郡에 속했다. 이조 말엽엔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에 장절이란 절이 있어서 <장재골> 또는 <장재>라 불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금산리>와 <석삼동>일부를 병합해서 長在里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金 山

<장재>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괴화산>아래 부락인데 이 곳엔 금이 세자 세치나 매장되어 있다고 전해 내려오며 김정승의 묘가 있다 해서 <金山>이라 부른다. 또한 <길재><질재><금산리>라고도 부른다.

쌍바위산

<장재>뒤에 있는 산을 <쌍바위>산이라 부른다. 맨 위에 있는 권돌 무덤의 바위가 쌍으로 되어 있어서 <쌍바위산>이라 부른다.

괴인돌무덤

長在리에 있는 바위 무덤을 <괴인돌무덤>이라고 부른다. 권돌이

세개가 있는데 둘은 장재리 큰 길가 아래 위에 있고, 하나는 뒷 산에 높게 있는데 모두 양쪽에 넓은 돌로 광중하니 만큼 옆을 대고 그 위에 크고 넓은 바위로 덮었는데 맨 위와 끝에 입는 것은 모양이 같고, 다만 한가운데 있는 것은 덮은 바위가 유난히 넓고 둥그스럽다.

질재의 금잔디

충남 금남면 장재리에 가면 바위무덤이 셋이 있고 거기에 괴화산이 있어 옛날부터 명당 자리로 손꼽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옛날 백제 때 이야기다. 불운하게도 나라를 빼앗긴 백제의 유민 한 사람이 몸종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금강 기슭을 올라가고 있었다.

실은 웅진 기슭에서 자리를 잡을까 하였으나 자기가 사비성에 살 때 서라벌에 아는 장사꾼들이 많아서 살기 위해서는 더욱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까짓것 있는 재산을 신라에 바치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살던 백제가 망하고 나니 그럴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재촉하면서도 향시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산을 발견하고 그 아래 짐을 풀 다음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움막을 짓고 그리고 짐은 땅속에 파묻은 다음 몸종을 공나루에 한번 보내 봤다. 그는 사비성에서도 이름난 부자였으므로 혹시나 자기에겐 해로움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몸종을 공나루에 보낸 것이다.

몸종을 보내놓고 그는 나머지 종들을 불렀다. 「잘 들어라. 나를 보살핀지도 꽤 오래되는구나. 지금부터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살 수 있을만큼 재산을 줄테니 모두들 헤어져 가서 잘 살아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큰 금한덩이씩을 나누어 줬다.

종들은 좋아서 모두 얼굴이 함박만 했지만 그들은 갑자기 얼굴이 어

두어 지더니 한 종이 금덩이를 땅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님 사람은 재복을 탐내면 도적이 되기 쉽고 돈은 땀흘려 벌라 하시면서 금덩이는 웬 금덩이입니까? 저희들은 죽어도 주인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한 종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종들도 머리를 끄덕거리며 금덩이를 모두 주인앞에 갖다 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말하기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 앞에서 땀을 흘렸으니 포상으로 주는거야 이런 것이 땀흘린 보람이야」 하고 그들을 타일렀지만 그들은 땀을 흘려서 벌은 금덩이가 아니라고 모두 우기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공나루로 갔던 그의 몸종이 헐레벌떡 들어와선 「주인님 주인님을 잡으라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주인님이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자수문도 대문짝만하게 써 있구요」 하고 근심스럽게 주인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참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죄가 있다면 돈을 벌은 죄밖에 없는데 자수라니...내 금덩이는 강물에 버릴 지언정 놈들에게 줄 수가 없지 암」 그도 무슨 결심을 한지 몸을 바빠 일으켰다. 주인의 이 말을 들은 중한 사람이 얼굴을 번쩍 들더니 「주인님 주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죽어도 재산은 나라를 짓밟는 놈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주인님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숨어 살으셔야 합니다. 자 모두 들어요. 이러구 앉아 있지 말고 이산을 두르고 각자 모퉁이 산정에 강독에 집을 지어요. 주인님은 여기에 집을 지어드리고 뿔뿔해요. 주인님을 놈들이 잡으라 한하는데 우린 주인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요」 그 종의 말이 떨어지자 그의 지시에 따라 종들은 각자 뿔뿔이 헤어져 가더니 모두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는데 나당군의 군사들은 말을 타고 몇 번이고 찾아와선 그들의 주인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을 못봤느냐고 물

어 봤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못봤다 했고 주인도 농부로 가장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했다. 돈이 딸리면 금괴를 한쪽 잘라서 종이 사비성에 가서 팔아서 보탬을 했다. 그들은 금괴가 있어서 나날이 부자가 되어갔다. 주인은 종들이 농부로서 자기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마음껏 도와줬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늙어선 부자가 되어 땅을 가지고 살았다.

어느새 주인은 늙어서 목숨대로 살다가 죽었다. 종들은 주인의 장례를 크게 치루었다. 그리고 장례날 몸종이 말하기를 「우리 주인의 재산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씨대로 곱게 쓰여져야 하오. 나에게 유언하기를 지금대로 금괴를 맡아 사용하라 했소. 허나 내가 보기엔 이제부터 우리에게 금괴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것 같소. 어쨌든 아주 주인 산소 곁에다 남은 금괴를 묻어 버립시다.」 하고 말하자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날로 금괴는 주인 산소곁에다 묻었고 또한 종들이 죽을 때도 자식들에게 금괴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한다. 그들은 늙어서 모두 죽었고 주인의 금괴가 이 산에 묻히자 어떤 일인지 이 산이 밤에도 빛을 낸다고 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충남 연기군 금남군 장재리 「질재」에 있는 산은 밤에도 환하게 보인다고 하여 「괴화산」이라 불렀다 한다.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이 산에 금괴가 석자 세치나 묻혀있다 한다.

永峙里

百濟때는 所以浦에 속했으며 고려에 와서 公州郡에 속해 李朝初葉을 접고, 李朝末葉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었다. <영재>라는 고개가 있으므로 <영재>또는 <영티>라 부르다가 永峙里가 되었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槐 木

永峙里 內洞에 있는 괴목이다. 樹齡이 5백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나무에 상처를 입으면 몇날 몇일을 우는 소리를 낸다 한다.

李朝末葉에 한번 벼락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갈라졌는데 나무에서 우는 소리가 나므로 마을 사람들이 그가지를 바로 바쳐줬더니 나무가지가 살아났으며 우는 소리가 끊겼다 한다.

부첫골

永峙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 하여 <부첫골>이라 부른다. <佛谷>이라고도 부르는데 五層石塔이 있다.

사양골

부첫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陽也里面이었으나 명탄면과 橫斜地點에 있었으므로 <斜陽>이라 불렀다 한다. <사양> <사양골>이라 부르며 日常時代는 <斜陽> 이라고도 불렀다.

안 골

<영티>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막바지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해서 <안골><와룡동>이라 부른다. 여기엔 臥龍弄珠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永 峙

영재라는 고개가 있고 그 아래 마을이 있다 해서 <영티>라 부른다. 永字形의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龍潭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公州郡 反浦面에 속했었다. 龍이 날아갔다는 <비룡소>가 있다해서 용담리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별 말

용담리 별관에 있는 마을이다. 별관에 마을이 있다해서 <별말><坪村>이라고 부른다.

비룡소

별말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비룡소>라는沼가 있어서 마을도 비룡소라 부른다. <비룡>이라고 부를때도 있었다.

용담이 서쪽에 있는 소, 그 위에 飛龍上天形의 名堂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沼에서 龍이 하늘로 날아갔다 해서 <비룡소>라 부른다. 達城徐氏와 平山申氏가 많이 사는 마을이다.

새터말

<별말>옆에 있는 마을이다. 새로 마을이 생겼다 해서 <새터말><신대리>라 부른다.

성 재

<우산봉>기슭에 있는 옛 성터, 성을 돌로 쌓았는데 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聖德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었다. 고려때부터는 公州郡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公州郡 反浦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에 행정개혁때 聖德里라 부르게 되었다. 이 곳은 옛날부터 德을 쌓아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에서 그 숭고한 德을 높이 사서 聖德里라 하였다 하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속하게 하였다.

화병골고개

<한삼>에서 서쪽 노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화병골고개>라 부른다. 이 고개를 넘다보면 산천이 아름다워서 마치 병풍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해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성 덕

<한삼>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덕을 쌓아서 남을 깨우치는 사람이 살며 그 덕을 이웃까지 번지게 한 사람들이 산 마을이라 해서 <성덕>이라 부른다. <성덕>마을앞의 들도 <성덕들> 이라 하는데 덕을 쌓는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키우는 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한 삼

<성덕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汗三里>라고도 부르는데 화순현씨들이 많이 산다.

東五里

<한삼>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계룡천>에 마을앞으로 흐르며 <동호>라고도 부른다. 냇물이 깨끗해서 동쪽에 있는 호수같다 하여 <東湖>라고도 부른다.

石三里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李朝末葉엔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선비들이 많이 묻혀간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엔 돌로 만든 장승이 셋이 있어 石三洞으로 부르다가 石三里가 되었다 한다. 연기군 금남면에 속해있다.

元石三

석삼의 원마을을 <원석삼>이라 부른다. 이 곳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 해서 <원석삼>이라 부른다.

안 골

돌삼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에 있다 하여 <안골><內洞>이라 부른다. 坡平尹氏들이 많이 산다.

돌삼골

안골 밖에 있는 마을이다. 돌로 만든 장승이 셋이 있다 하여 <돌삼골><石三>이라 부른다. 光山 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돌장승은 각각 다른데 서쪽의 것은 흰바위, 남쪽의 장승을 수리바위, 뒷산에 있는 장승은 말바위라 부른다 한다.

石橋里

錦南面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6km 地點에 있는 곳이 石橋里다.
옛날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다 하여 石橋里라 하였는데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해 있다가 末葉에 公州郡 명탄면 지역이었다. 지금은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라 부른다.

新 村

<돌다리>앞에 새로된 마을이다. <새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 국민학교가 있다. 靑松 沈氏들이 많이 살며 새로된 마을이라 하며 <新村><새말>이라 부른다.

돌다리

<新村>뒤에 있는 마을이다. <石橋>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는 큰 돌다리가 없었고 강은 건너기 위해 아낙네들이 합심해서 돌로 징검다리를 놓고, 다녔다 한다. 靑松沈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芙蓉里

蓮꽃이 물에 뜬 형국의 蓮花浮水形의 名堂이 있다는 芙蓉峰이 있다 해서 芙蓉里라 부르는 이 마을은 본래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공주군 명탄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개혁때 <초오개동>과<봉기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芙蓉峰

蓮花浮水形의 名堂이 있다는 해발 222m의 산이다. 芙蓉里뒤에 있

는 산으로서 蓮꽃이 물에 뜬 형국의 名堂이라 해서 名山으로 꼽는다,

元芙蓉

芙蓉里에서 처음 생겼던 마을이라 해서 <원부용>이라 부른다. 이 지역에선 가장 오래된 마을이란 뜻에서 <원부용>이라 부른다 한다.

新 基

芙蓉리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부터 마을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곳으로서 새롭게 터전이 잡혀지는 마을이라 해서 <新基>라 부른다.

새오개

새오개란 고개에서 한쪽에 있는 마을을 <새오개>라 부른다. <새오개>고개는 <새오개> 마을에서 봉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고 또한 여기에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원천리로 넘어가는 나루도 <새오개나루>라 부른다. <새오개>를 <草五介>라고도 부르며 밀양 박씨들이 많이 산다. 산맥이 五介所로 분포되었다 하여 <草五介洞>이라 부르며 大朴里 草介 뒷마을이 된다.

鳳起里

李朝末葉엔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개혁때 盤曲里 一部를 병합하여 <봉기리>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뒷산에 飛鳳歸巢形의 名堂이 있다 하여 風水가 널리 알려진 곳이며 또한 여기에 연유해서 地名을 <鳳起>라 부르기도 하였고 앞에 새여울이 있으므로 <새여울>이라 불렀고 변하여 <사려울>

이라 부르기도 한다. 百濟때는 所以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부터 公州郡에 속해李朝 때에도 행정구역은 公州郡에 속했었다.

괴바위

<사려울>뒤에 있는 바위를 <괴바위>라 부른다. 바위의 모양이 개처럼 생겼다 하여 <개바위>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괴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누에섬

<사려울>앞에 있는 <삼성들>건너 錦江가운데 있는 섬을 이룬 이 곳은 모양이 꼭 누에처럼 생겼다 하여 <누에섬>이라고 부른다.

삼성들

옛날에 이곳에는 李氏, 崔氏, 鄭氏가 크게 평평거리며 살고 있어 감히 다른 姓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려고는 염두도 못냈다 한다. 三姓이 아성을 쌓고 산 들이라 하여 <三城들>이라 부른다 한다.

옛날엔 <三姓들>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새나루

鳳起里에서 南面 양화리로 건너가는 나루를 <새나루>라 부른다. 地形이 고양이 모양으로 되었다 하여 그 후 나루터의 위치가 약간 변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므로 <새나루>라 부른다. <고양이 나루><고이뱅이 나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려울의 느티나무

<사려울> 뒷산에 樹齡이 470년쯤 되는 높이 25m, 둘레 9.2m의 老木이 있다.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는 말로는 이 나무에 나뭇잎이 일제히 피면 豐年이고, 한편에만 피기 시작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느티나무를 해롭게 하면 不具者가 된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지극히 보호하는 나무다.

사려울

飛鳳歸巢形의 名堂이 있다는 산아래의 마을이다. 앞에 여울이 있으므로 <새여울>이라 부르며 변하여 <사려울>이라고도 부른다.

새 말

<사려울>아래편에 새로된 마을이다. <신봉>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새말><신봉>이라 부르는데 陽川許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元 鳳

옛날에 飛鳳歸巢形의 名堂을 찾아 이 곳에 山勢를 따라와서 자리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鳳起里에서 처음 마을이 크게 생겼던 지역임으로 鳳起里의 元마을이라 하여 <元鳳>이라 부른다.

鉢山里

李朝初葉 太宗에 의한 太子의 亂때 신덕왕후 康氏의 일족이 화를 입게 되어 이 곳으로 피난, 숨어 살게 되었으나 그 후 宋時烈등 많은 학자들의 탄원에 의해 官員의 登用이 허락되었었다. 그때 英祖朝의 후손인 康氏 父子가 거듭 大科에 급제하는 경사가 있어 뒷산을 重光山이라 하고, 이 곳에 重光寺란 절을 세우게 하였다.

重光寺를 세운 산의 山勢가 마치 주발을 엮어 놓은 형국이라 하여 <바리미><鉢>와 같은 산이 있다해서 鉢山里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百濟때는 所以浦懸에 속했고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해서 李朝末葉엔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鉢山里로서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점 말

발산리 산 깊숙이 있는 마을이다. 산속에 인가 한 채가 있으므로 <점말>또는 <店村>이라 부른다 한다.

바리미

<발산리>에 있는 큰 마을, 마을 서편의 산이 주발을 엮어 놓은 형국이라 하여 <바리미>또는 <鉢山>이라 부른다 한다. <바리미>에 가운데가 되는 마을이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바리미>가운데 있다 하여 <가운데 바리미>라 부른다.

佳 洞

<발산리>에 있는 마을로서 <용두리>쪽에 있는 마을을 <佳洞>이라 부른다. 옛날에 화를 입은 문객이 숨어 살며 글을 읽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시 큰일을 하였다는데 선비가 잠시 쉬어가면 큰 공이 돌아오는 마을이라 해서 <佳洞>이라 부른다 한다.

13세에 시묘한 康協(강협) 정려문

康協(강협)의 자는 子慶(자경)이요, 본관은 信川(신천)이니 1674년(현종15년) 康厚墩(강후돈)의 네째 아들로 태어났다.

枕(침) 權(환) 橙(징)등 3명의 형 가운데 둘째와 셋째 형은 入養(입양)되어 出系(출계)하였고 아래로 아우 恒(항)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강협은 어려서부터 천성적인 효자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아들보다도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었고 마음씨가 어질고 착했다. 한번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굽히지 않고 꼭 실천하는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매일 밤이면 부모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이면 문안을 여쭙니 부모도 그의 효성에 감탄하였다. 그는 가난함을 타하지 않았고 옳은 일을 찾아 선행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람의 보람으로 삼아야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수나 다르게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불과 13세가 되던 9월 어느날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던 그의 슬픔과 충격은 매우 컸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협은 슬픔을 억누르며 의젓하게 예를 갖추며 슬프게 哭泣(곡읍)을 하니,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듯하였다.

그 슬픔속에는 마치 피를 토해내는 아픔이 숨어 있는 듯이 들렸다.

보는 사람들까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협을 동정했고 한편으론 그의 효성을 칭송했다.

“ 안되었네 이제 겨우 열세살이면 아버지가 더 살아계셔야 할 나이 아닌가. 저토록 슬피하니, 산촌초목도 감동하게 생겼네 그려 ”쫄쫄... 가여운지고! 아마 고인도 눈을 감지 못하겠네.

드디어 아버지의 장례는 집에서 數里(수리) 떨어진 花寺洞(화사동) 골짜기에 묻히었다. 거기에는 근처에 인가도 없는 깊은 산속이었

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조객들이 하산한 뒤에는 그는 주저 앉은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그는 꼼짝할 생각도 않고 지금부터 侍墓(시묘)를 하겠노라고 하였다.

그는 묘소 옆에 조그마한 여막을 짓고 기거하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모셨다. 밤이면 온갖 사나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적막하기 그지 없었지만 천성이 강직하고 효심이 뜨거운 그는 무서운 줄을 몰랐다. 이렇게 3년동안을 목욕은 고사하고 옷을 갈아 입지도 않았으며 음식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에 그쳤다.

그의 형상은 말할 수 없이 흉했으나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해 드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上食(상식) 때마다 슬프게 호곡하니 깊은 산속에는 그의 곡성이 조석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성으로 3년 시묘를 끝내고도 매일 거르지 않고 성묘를 하였다.

그 뒤 만년에는 일가친척과 이웃 아이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치며 때때로 孝(효)의 근원과 忠(충)을 강론하기도 했다.

효행을 몸소 실천으로 가르치며 후세들 교육에 전념하던 그는 마침내 1750년(영조 26) 3월에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50여년의 세월이 흘러 掌福卿(장례경) 趙定熙(조정희) 진사 張喆相(장철상) 등이 조정에 주청하니, 高宗(고종)은 가상히 여기어 정문 세울곳을 물색케 하니 그가 태어나 살았던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에 정문을 세우니 그때가 1905년 11월 이었다.

孝子(효자) 康協(강협)의 侍墓(시묘) 생활은 13세 어린 소년에 효행이란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게 한다.

盤谷里

百濟때는 所以浦懸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남면의 전월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지형이 소반과 같으므로 <盤谷>이라 불려왔는데 1914년 행정개혁때 盤谷里라 하여 연기군 錦南面에 편입되었다가 여기엔 班鳳抱卵形의 名堂이 있다 한다.

槐花山

錦南面 반곡리, 석삼리, 장재리, 석교리 경계에 잇는 산을 괴화산이라 부른다. 산의 높이가 200m인데 산정에 느티나무가 있다.

이 산에 掛橙形의 名堂이 있어서 세거리에서 바라보면 환하게 불이 쬐여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다.

앵청이나루

금남면 반곡리에서 남면 양화리로 넘어가는 나루를 <앵청이나루>라고 한다. 나루 옆산에 앵소형의 名堂이 있다 하는데 앵소형 명당이 있는 곳의 나루라 하여 <앵소형나루>라 하던 것이 변하여 <앵청이나루>라 부르게 되었다.

盤 谷

반곡리에 있는 큰 마을이다. 家口가 170세대나 되는 마을로서마을의지형이 소반과 같다 해서 <반곡>이라 부른다 한다. 여양 陳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약샘골

<반곡>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약샘골>이라 부른다. 여기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약샘>이라 부르며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

한다. <약샘>이 있는 골짜기란 뜻이다.

여수바위

<반곡>동북쪽 산기슭에 있는 바위를 <여수바위>라 부른다. <獨
巖>이라고 부르는데 바위모양이 여우처럼 생겨서 그리 부른다 한
다.

錢積들

<반곡>아래에 있는 들을 <전적들>이라 한다. 이 들에서 일을
하면 돈이 자꾸 쌓아지는 들이라 해서 이 곳 사람들은 그리 부른다.

朴山里

百濟때는 所以浦懸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公州郡에 속해 있다가 李
朝末葉엔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이 되었다. 뒷산에 朴參判의 墓所가
있어서 朴山이라 불러 왔고 또한 산모양이 작약과 같이 생겼다 하여
<작약골>이라 불렀었다. 1914년 행정계획 개혁에 따라 회덕군 구
죽면의 <신동리>일부를 병합하여 朴山里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작약동

朴山里에 있는 마을, 산모양이 작약과 같이 생겼다 하여 <작약동>
이라 부르고 朴參判의 墓所가 있다 하여 朴山이라고도 부른다.

고랫돌

朴山里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길어서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여

그 땅이 질퍽하여 바다의 고래가 노는 것 같다 하여 <고랫돌><고래
실>이라 부른다.

도깨비와 솔뚜껍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고 있었다. 움막을 짓고 겨우 먹을 것을 구
해 놓은 안씨가 청승스럽게 날씨를 점치고 있었다.

「내일도 비가 오면 큰일인데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 오지」 그가
날씨를 근심할수록 비는 더욱 그치지 않았다. 금강변에선 물이 제법
홍수가 되어서 내려가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는 움막한쪽에 기대서 잠이 들었다. 한참나이에 여기 저기를 떠
돌아 다니다가 겨우 여기에 자리잡은 그였다. 눈앞에 보이는 갈대밭
을 개간하면 제법 논이 되고 밭이 되어 여기에 자리잡은 그였다.

그가 한참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꿈속에 머리에 빨
이 뚫힌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앞에서 하얀 이를 내놓고,
빙글빙글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안서방 이사람터
를 잘못 잡았구만 여기는 우리 땅일세 자네가 여기에선 살 수가 없네.
아니 남의 땅에 움막을 지어 누구 허락을 맡고 집을지어 히...히...히」
도깨비들이 아니꼽게 웃더니 갑자기 불뚱이 되어 금강쪽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그는 부시시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도깨비들이 몰려간 금강쪽을 바라봤다. 거기엔
불뚱이 마치 햇불을 든 것처럼 여기 저기에 깔려 있었다. 담력이 좋
은 그였으므로 꿈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서 가까이 있는 솔뚜껍을 열려 했다. 헌데 솔뚜껍은 열어지지 않
았다. 그는 불을 켜서 솔을 보았다. 헌데 이상하게도 솔뚜껍이 솔안에
곱게 들어 앉아 있었다. 도깨비들의 장난이었다. 그는 솔뚜껍을 도끼로

깨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금강쪽을 바라봤다. 불뚱이 더욱 요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이튿날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하늘에 별이 보였다. 새벽에 사냥을 한번 해야겠다고 활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마침 노루 한마리가 자기앞에서 무시력하고 뛰어 나왔다.

그는 날새게 활을 잡아다니고 화살을 날려서 그 노루를 잡아선 신이 나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노루 한마리면 적어도 닷새 양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노루를 한쪽 구석에 놓고 또 잠이 들었다.

그가 잠이 들자 바로 꿈속에 이번엔 제법 화를 내는 도깨비가 나타났다. 「너 두고 두고 보자니까 안되겠는걸 오늘 밤까지 여기서 뜨지 않으면 죽지 않을만치 매를 칠거야. 누가 널더러 노루를 잡아 먹으랬어」 하고 획 돌아가서 사라져갔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 한낮이었다. 헌데 곁에 잡아서 매달았던 노루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는 그가 잡아온 노루를 찾다가 노루가 없어지자 화가 나서 몽둥이를 큰 놈을 장만했다. 그리고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헌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았다. 어느새 밤이 또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몽둥이를 가까이 놓고 앞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리고 한참 있다가 금강쪽을 바라보니 불뚱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며 잔간사이에 불뚱이 번지더니 뿡가리 소리가 들려오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몽둥이를 바짝 곁에 하고 앞을 의식하는데 깜박 잠이오기 시작했다. 그는 억지로 잠이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 쳤으나 소용없었다.

그가 잠속에 묻혔을 때 금방 도깨비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선 「이바보같은 자식 아직 떠나지 않았구만...너좀 맛좀 봐라」 하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도 꿈속에서 대항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나 도깨비들이 덤벼들어서 사정없이 때리는 바람에 그의 몽둥이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꿈속에서 실컷 얻어맞고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 움막을 부시고 살림을 부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꿈속에 얻어맞고 신음하다가 눈을 떠보니 도깨비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자기 얼굴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손에 피가 묻어 흘렀다. 그는 몸을 일으켜 봤다. 몽둥이로 얻어 맞아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주위를 바라보았다. 움막은 여기 저기 부서졌고 살림이 밖에 내 동댕이쳐졌다. 그리고 밥솥은 여전히 또 솥뚜껑이 솥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서야 생각했다.

「여기는 내가 살곳이 아니구나」 그는 그 이튿날 기염 기염 움막을 기어나와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선 크게 부자가 되고 잘 살았다 한다.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안터마을 - 여기는 안씨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안씨들이 도깨비 때문에 살지 못하고 대대로 물려난 곳이다. 지금의 금호중학교 자리가 되는데 안씨들이 처음 자리를 잡았다 하여 「안터」 라고는 부른다.

전 의 면 편

全 義 面

燕岐郡에서 地域的으로 일찍부터 人類가 定着하기 始作한 고을이다.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 景德王 때부터 金池縣으로 고쳐서 <大麓 木川>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 全義로 고쳐서 淸州牧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여기를 <仇知><金池><全里>라 불렀다. 李朝太祖 4年 <1395>에 監務를 두게되고 太宗 13年 <1413年>에 예에 따라 縣監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燕岐를 합하여 全岐縣에 속했었다. 또한 그후 16年 <1416>에 各己 分離되고 高宗 32年 <1895>에 忠北 淸州郡 德坪面의 8個里를 편입하여 全義郡이 되었다. 그래서 7個面을 관할하다가 1914年 郡의 폐합에 따라 燕岐郡이 되면서 前 全義郡은 <全義> <全東> 面으로 分離되어 13個里를 관할하는 面이다. 百濟시대부터 오랫동안을 고을의 中心地로 邑地로 불렀던 全義는 옛 문화가 서려 있는 고을이기도 하다.

高登里

百濟때부터 큰 골짜기여서 북방을 막는 山城이 있었던 地域이다. 높고 곧은 큰 골짜기가 있는 山城아래 部落이 생기면서 부터 <곧은골> <고등이>라 부르게 되었다. 옛날엔 漢陽과 통하는 三南大路가 여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간 고장이기도 하다. 本來 全義郡 北面의 地域이었다가 西紀 1914年에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세거리

마을앞에 東 西 北으로 가는 갈랫길이 있다 해서 <세거리>라 부

른다. <안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사거리> <삼기>라고도 부른다.

文筆峰

옛날부터 文人 名賢이 나올 곳이라 하여 산을 文筆峰이라 부른다 한다. <세거리> 동쪽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산이다.

고등이 고개

옛날엔 三南大路가 있어서 많은 行人이 넘어다닌 고개다. 선비들이 흥얼거리는 시조가락에 들새가 잔잔하였다는 옛 시조의 일절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고개다. <고등이재> <고등현>이라고도 부르며 고등리에서 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고등이내

全義面 高登里 高麗城에서 발원하여 <서정리>를 거쳐 全義읍내 앞에서 사기소내와 합하여 <조천>이 되는 옷내를 <고등이내>라 한다. 高登里에서 발원한다 하여 <고등이내>라 한다.

高麗山城

全義面 高登里 高麗山위에 있는 山城을 高麗山城이라고 부른다. 고려 때 쌓은 山城으로서 옛날 백성들이 한 번 난리를 만나고 이 山城에 피난하였으나 식수가 적어서 갈증이 심하여 목이 아픔으로 城 아래에 <아야목>이라는 部落이 있어서 이 部落에서 목을 추겼다는 說이 있는 山城이다. 城안에 祈雨祭를 지내던 祭壇이 있으며 燕岐八景의 하나로 지적한다.

高麗山城

全義에서 북쪽으로 13km地點 高登里 高麗山 頂上에 있는 山城이다. 山城이 처음은 百濟때 山城으로 추산되나 확실한 記錄이 없고 고려 때 山城을 고쳐 쌓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옛날의 山城임에는 틀림없다. 山城은 200間의 土石混築城이고 옛날에는 北方의 外敵을 막은 것이 틀림없으며 고려 때에는 지금의 天安에 王建이 駐主되면서 부터 외곽성 구실을 한 것 같다. 山城에 고려태조廟가 있었고 祈雨 祭壇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太祖廟에 每年祭香을 하였으며 祈雨祭壇은 土俗的인 信仰인 祈雨神에 대한 제단을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山城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추측이 된다. 고려말엽의 忠臣 金承露가 落鄉하여 高麗王朝의 悲運을 哀哭한 것으로 보아서도 고려 때는 중요한 山城으로 생각하였던 山城이다.

觀亭里

옛날 大部鄉이 있었던 고을로 死六臣의 한분인 朴彭年이 世店하였던 고을이다. 옛날엔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하였던 고을로 李朝에 瓦鮮 全義郡 北面의 地域이었다. 옛날부터 史觀亭이 있고 마을 앞에 亭子가 있어서 觀亭里라 하였다 한다. 西紀 1914년에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軍糧골

옛날 大部鄉이 있을 때 <시루성>에 군사가 주둔하였고 여기엔 軍糧을 저장했었다. <시루성>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西紀 1914년까지 여기엔 全義郡 北面 面事務所가 있었다 여기에서 땅을

과다가 수백년된 軍糧米가 나왔다. 군사들의 양식을 저장하였던 마을 이라하여 <軍糧골>이라 부른다.

冷 井

관정리 上大末 말미고개 밑에 있는 우물이다. 우물이 차고 藥水라 하는데 위장병과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해서 널리 알려진 우물이다. 全義縣에 들리면 말미고개 냉정을 다녀왔느냐는 逸話가 있는 우물이다.

雷岩書院

벼닥바위 아래 四觀亭뒤에 있는 書院터 李朝孝宗 때의 학자 李翔을 섬겼던 書院이다. 孝宗 때 세워졌으나 高宗 5年 <1868>年에 헐리었고 터만 남아 있다.

李 翔을 弘文館 大提學 文信의 증손이요 左贊成 功의 孫이고 戶曹 參議 有謙의 셋째아들로 태어나서 孝宗 때 宋 時烈의 추천으로 世子 侍講院에 出任하여 大司憲과 戶曹參議을 漢城府右伊 吏曹參判을 지냈다.

느릿골

군량골 부근에 있는 마을, 느릅나무가 옛날에 많이 있었다 해서 <느릅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느릿골>이라 부른다. <유동>이라고도 부른다.

대추리

마을에 큰 가래나무가 서 있었고 사관정 옆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엔 술이 흔해서 酒客들이 많이 모여 들었고 가는사람 오는 사람 모

두 여기에서 술에 취하곤 했다한다. 대추리의 「동동주」는 유명한 약주다. 술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취촌>이라고도 부른다.

태 우

死六臣의 하나인 朴彭年의 父親 朴 仲林과 伯文 朴 孟年, 숙부 朴 秀年 三兄弟가 살았던 마을이다. 그들이 모두 태우<大夫> 벼슬을 하였으므로 마을이름도 <태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觀亭里의 선비의 고을로서 李朝 500年을 통해 뛰어난 人材가 많이 나왔었다. 清白史가 나니면 학자로서 그 이름을 전국적으로 떨친 마을이다. 선비의 고향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을을 觀亭里에서 제일 큰 마을이며 上古時代엔 태우향 <大部鄉>이 있었다 한다. 李朝 孝宗때 학자 李 翊도 여기 살면서 號를 타우 <打愚>라 불렀다 한다.

寒石亭

觀亭里 <中大夫> 마을앞에 있는 亭子터, 李朝世宗 때 判書 朴 安民이 創建한 亭子이나 지금은 없어지고 짚이 되어 버렸다. 지금 亭子터에서 기와장이 나오고 있다.

탑고개

<중대우>에서 天原郡 城南面 중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탑고개>라 부른다. <중실> 쪽으로 <탑골>이 있어서 이 고개를 <탑고개>라 부른다.

椒 井

<답고개>에 있는 우물, 世宗 26年 <1444>에 世宗이 한글을 研究하다가 피로에 겹쳐 안질이 생기자 그 안질을 고치기 위하여 그 해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淸州 조정 <椒井>에 머물렀었다.

그때 여기 조정 <椒井>보다 더 좋은 곳을 물색하다가 4월 15일 兵曹의 제청에 의하여 木川 <椒井> 두곳과 全義 <椒井> 네 곳을 수축하고 6월 1일 내섬시윤 <內贍寺尹> 金浸의 답사보고에 의하여 가을에 이곳이 行宮을 짓고 명년에 거둥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윤칠월 22일에 안질이 있는 李內隱과 金乙生을 이곳에 보내어 치료를 시험해 보고 그 이튿날 또 前宗布署令 張澤과 信打을 보내어 눈병을 치료하게 하였으며 가을에 木川 大井里에다 行宮을 지으려다가 민폐를 생각하며 그만두고 같은 27年 <1445> 2월에 조정물을 병에 넣어 서울로 올려다가 시험하였던 우물이다.

月照山

全義面의 主峰이 되는 산이다. 옛 고을 全義에서 달이 밝게 뜨고 마을을 밝히는 산이라 해서 月照山이라 부른다. 고려성 위쪽에 있는 산이다.

안 골

고등이 마을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에 마을이 있다 해서 <안골> 또는 <內洞>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山으로 둘러쌓여 있다.

찬샘골

<시루봉> 동북쪽 밑에 있는 마을 찬 우물이 있고 절이 있는데 옛

날부터 찬 우물이 유명해서 행인이 많이 찾아오는 마을이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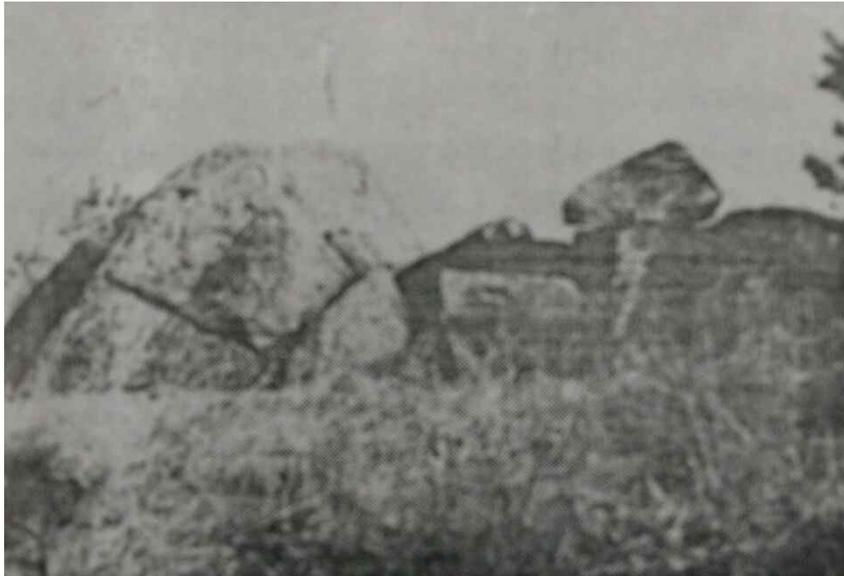
장터골

四觀亭 앞에 있는 들이다. 上古때 태우향 <大部鄉>때에 여기에 시장이 있었다하여 그때부터 <장터골>로 부른다 한다.

四觀亭

<下大夫> <하태우>라고도 부른다. <태우> 아래 부분에 있는 마을이다. 李朝孝宗때 학자 朴愚 李翔이 창건한 四觀亭이 있다해서 마을을 <四觀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벼락바위



<군량골>과 <四觀亭> 境界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를 벼락바위라 부른다. 큰 집 채만한 바위 한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바위가 갈라졌다 한다.

朴 골

<四觀亭> 뒤에 있는 골짜기, 死六臣인 朴 彭年의 祖上과 朴氏들이 살은 마을이라 하여 <박골> <朴洞> 이라 부른다.

말미고개

<상태우>에서 천원군 성남면 말미로 넘어가는 고개 <椒井>이 고개에 있다.

<구리고개><동현>이라고도 부른다.

射場들

<태우> 중앙에 위치한 <중태우> 앞들을 <射場들>이라 부른다. 임진왜란 前後해서 여기 儒林들이 武術을 닦던 곳으로 왜란때는 많은 義兵들이 倭賊과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다. 화살을 날리던 들이란 뜻에서 <射場들>이라 부른다.

文穆詞

관정리 四觀亭에 자리한 詞堂으로 孝宗때의 학자 李 翔先生을 모신 詞堂으로 국사학자 이병도 박사의 현판이 있는 사당이다.

三賢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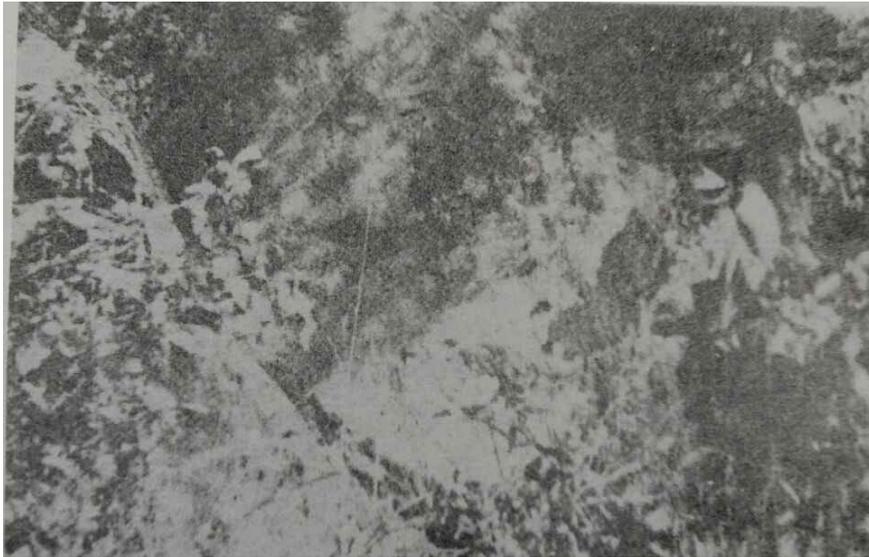
全義面 觀亭리에 位置했던 書院으로 孝宗 肅宗때의 학자 李 翔 愼後尹 洪芳 등이 師文一體라 하여 弟子와 後孫들이 英祖때 建立하였다가 그후 正祖朝에 雷岩書院 建立으로 廢詞하고 雷岩書院에 拜香하

였다.

我也目

高麗城 아래에 位置하며 <세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흥건적이 쳐들어 왔을 때 高麗城에 피난하였던 사람들이 食水에 많은 고충을 느끼다가 城 아래로 내려오며 물을 마실 때 「아야목아」 「아이구 목아」 하고 부르며 이곳 샘물을 마셨다 하는데 그샘이 있는곳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아야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흥흥건적과 우리 군사가 크게 싸웠던 격전지이다.

三賢바위



옛날의 三賢詞에 있는 바위를 三賢바위라 부른다. 雷岩書院에서 글을 읽던 儒生들이 바위에 三賢洞이란 글씨를 새겼다는데 지금도그

글씨따라 이 바위를 <三賢바위>라 부른다 한다.

老谷里

상고시대 태우향 <大部鄉>이 여기 있을 때 곡창이 있었던 지대다. 10여년간이 이 곳에서 사람이 먹는 白土가 나왔다하는데 調査해 본 결과 쌀이 쌓여있던 곡창이 흙에 묻혀 白土化한 것이 었다 한다. 本來 新井里의 <갈우물> 위쪽 골짜기이므로 <갈실> <가리실>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거리실>이 되었으며 <거리실>을 또한 老谷이라고 불렀었다. 全義郡 北面의 地域이었으나 서기 1914년에 <土老谷> <中老谷> <下老谷>을 병합하여 老谷리라 하고 全義面에 편입 되었다.

上老谷

<노곡> 위쪽에 있는 마을, 늙은 시어머니 같은 바위가 있다 하여 <上老谷> <윗거리실>이라 부르고 늙은 시어머니 같은 바위 아래에 있다해서 아랫마을은 <下老谷>이라 부른다 한다.

어리미재

<거리실>에서 천원군 성남면 밤실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깊고 골이 길어서 옛날엔 도적 떼들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다닐때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넘어다녔다 한다. <永峴고개>라고도 부른다.

兄弟峰

<거리실> 뒤에 있는 山이다. 산봉오리 둘이 쌍으로 서 있다.위

봉오리는 좀 높고 아래 봉오리는 위것보다 낮다. 형제간에 의중계 지내다가 끝내 그래도 도량이 넓은 兄의 신세가 많았다하여 위봉오리는 넓은 兄의 녀이란 전설이 있다.

大谷里

石器時代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보이는 지대다. 이 곳에서 石器時代의 돌칼과 돌화살촉이 出土되었는데 산의 모양으로 보아 穴居部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한다. 高麗때는 驛里部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한다. 李朝때는 역리부락으로 金堤驛이었다. 본래는 全義郡北面의 地域이었다. 北面의 <대사동>과 <맹곡리>의 이름을 따서 대곡리라 하여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역 말

<맹골> 북쪽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을 <역말> 또는 <역리> <김제역말> <진계역말>이라 부른다. 本來 天安郡 소동면의 지역으로서 李朝때 金堤驛이 있었던 마을이다. 또한 <역말>은 <학수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산 모양이 학모양 같고 그 가운데 내가 흘러 <학수동>이라고도 부른다.

한적골

大谷里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고동이재> 밑이 되는데 옛날에 큰절이 있었다 하여 <한적골>이라 부른다. 3층석탑이 있다. <大寺洞>이라고도 부른다. 임진왜란때는 중들의 피난처여다 한다.

石 塔

全義面 大谷里 <옹골> 한구석에 있는 石塔은 높이가 102m의 3층석탑으로 塔蓋받침이 3단식으로 되어있고 蓋石塔身이 一個石으로 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30年前에 閔子爵의 母親이 崇佛의 뜻이 깊어서 大谷里 塔鄉하여 附近 절골에서 이곳에 옮겨 왔다 한다.

맹 골

<한적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孟氏가 살았다 하여 <맹골><맹곡>이라 부른다 한다. 이곳엔 마을 위 논에 맹꽂이가 많이 울어서 맹곡, 즉 맹꽂이가 우는 골짜기 마을이란 이야기도 있다..

궁 말

<역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앞뜰에 宮갯이 많이 있었다 하여 <궁말><궁리>라 부른다.

東校里

李朝肅宗 때까지 全義鄉校가 여기에 있었다 하여 全義 東 쪽에 자리한 鄉校의 연유와 東村과 구교동의 이름을 따서 東校里라 하였다 한다. 本來 全義郡 군내면의 地域이나 全義面으로 편입 되었다.

도람말

<동촌> 동남쪽 산 모퉁이를 돌아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를 돌아 마을이 있다해서 <도람말>이라고 부른다 한다.

샘 골

<동교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다. 전의향교가 있었다 하여 <구

교동>이라고도 부른다.

산직말

<샘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산직집이 있는데 산직집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산직말>이라 부른다. <산직리><상교동>이라고도 부른다.

募 山

질그릇을 굽던 곳으로 여러사람이 모여 들었다 하여 募山이라 부른다 한다.

新興里

本來 全義郡 대서면의 地域이다. 처음은 西紀 1914년에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사리><생송리>를 병합하여 <송사리>라 하다가 그후 1929년에 새롭게 흥하는 地域이라 하여 新興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물방아거리

<사스리>앞에 있는 길을 물방아 거리로 부른다. 옛날엔 물방아가 있어서 많은 농부들이 드나들던 거리다.

生 松

<사스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큰 소나무가 하나 유창하게 서 있었다 해서 <生松>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여기엔 兩班들이 많이 살아서 양반독세에 생주리를 많이 틀었다 하여 <생주리>라

고도 한다. <생주리는 죄인을 벌 주는 것>安東金氏가 많이 산다.

沙 土

모래가 많은 마을이라 하여 <사스리><沙土>라고 부른다. 신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순천 李氏가 많이 살고 있다.

雲堂里

마을의 편안을 위해 자주 제사를 지내는 佛堂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구름이 산처럼 밀려오는 곳이라 하여 雲堂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本來는 충북 청주군 덕평리의 지역이었으나 고종 32년에 전의군에 편입되고 서기 1914년에 운강과 당리의 이름을 따서 雲堂리라 하여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당 말

부락의 안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佛堂이 있다 하여 <당말><당리>라 부른다. 옛날에 불당이 있었다. 불당은 당재에 있으나 그 아래 마을임으로 <당말>이라 부른다.

佛堂谷

운당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 <불당골><부곡리>라고도 부른다.

楊 村

마을앞에 버드나무가 많았다 하여 <양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불당골>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리>라고도 부른다.

雲 崗

구름이 항시 산처럼 하늘에 떠서 마을을 내려다 본다하여 <운강>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서 보는 구름은 운치가 있기로 유명하다. 불당골 위에 있는 마을이다.

元省里

風水로 보는 여기는 龍의 形局을 한 竹의 뿌리처럼 생겼다 하는데 靑龍의 모양으로 마다마디가 고르게 되어 있다 해서 끈기있는 선비의 안식처로 통하는 地域이다. 本來는 全義郡 大西面의 지역이다. 서기 1914년에 行政區域改革에 따라 원당과 삼선당의 이름을 따서 元省리라 하고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古 城

마을 뒷산이 성을 둘러 싸은 것 같은 形局이라 하여 古城이라 부른다. 노루목 옆에 있는 마을이다.

노루목

뒷산의 모양이 노루목처럼 생겼다 하여 <노루목>이라 부른다. <장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엔 砲手들이 여기에서 노루를 잡으면 천벌을 받는다 하여 사냥을 하지 못한 구역으로 노루가 많이 살았다 한다. <古城> 옆마을이다.

대부리

元省里에서 가장 큰 마을 靑龍꼬리가 대<竹>의 뿌리처럼 마디지

고 길게 뻗어있는 형국이라 한다. 풍양정씨가 30戶 가량 살고 있다. <대하리> <竹根>이라고도 부른다. 뒤의 산도 대뿌리라 하는데 산에 바위가 많이 박혀있다 한다.

元 堂

三省堂 위쪽에 있는 마을, 坡平尹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堂이 있었던 곳으로 <원당>이라 부른다.

孝烈文

古城앞에 있는 정문, 趙 百連의 아내 烈女 慶州金氏와 孝子 趙 命彬 趙 秀彬의 정문을 한데 모아 세간을 세우고 孝烈門이라 현액하였다.

柳川里

버드나무가 냇가에 많이 서 있어 五柳라 하였고 물이 귀한 탓으로 五行說에 柳川리라 하였다 한다. 本來 全義郡 대서면의 地域이나 西紀 1914년에 주변의 각리를 정리할 때 <五柳洞>과 <다운천리>의 이름을 따서 柳川리라 하였다 한다.

於 川

개울에 대추나무가 있고 여러 작은 냇가 마을 앞에서 합하여 넓어졌다 하여 <어천>이라 부른다 한다. <그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多雲里

<그줄> 남쪽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남쪽에서 흐르는 냇가 마을 앞으로 다가와서 꺾이어 서쪽으로 흘러가는 위치에 있는 마을이다.

多雲寺라는 절이 옛날에 있었다 하여 多雲리라 부른다 <다우내>
<다오내>라고도 부른다.

良 安

李太師의 墓를 쓴 후 실권하였다가 다시 찾았는데 앞으로 안전한
마을이 되어야겠다는 뜻에게 마을 이름을 <良安>이라 하였다 한다.
<다우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外五柳

마을 앞에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마을 밖에 五柳란 뜻에서 <外五
柳>라 부른다. 상년 최씨가 310戶 살고 또한 그 아래 <中五柳>
<上五柳>란 마을이 있다. <中五柳>에도 상년 崔씨가 9戶 살며
<上五柳>엔 普州姜氏가 9戶 산다.

부처당터

<그줄> 입구에 있는 절터 옛날에 절이 있다가 헐리고 부처만 다
섯이 서 있었다 하여 <부처당터>라 불렀다. 1901年 여기에 경부
선 철도가 생길 때 日인들이 그 부처를 가져갔다.

李太師山所

<良安> 뒤에 있는 李氏의 始祖 李棹의 墓所다. 伏虎형의 名堂이
라 하는데 앞에 개바위 창날등이 있다.

邑內里

옛날 全義縣이 있을 때에도 邑內에 해당되는 地域이므로 서기 1914

年 행정개혁 때에도 邑內리라 부르게 되었다. 本來는 全義郡 郡내면의 地域이었다. 全義面에 編入될 때에 동부리 · 서부리 · 남부리 · 북부리 덕현리를 병합하여 邑內리라 稱하고 全義面에 편입하였다.

雲住山

全義面과 全東面에 걸쳐있는 큰 山이다. 山의 높이가 459m나 되는데 늘 山에 구름이 끼어 있으며 덕이 많은 山이라 하며 祈雨祭壇과 山祭堂이 있음. 山頂에 土城이 있는 山이다. <운돈산>이라고도 부른다.

客舍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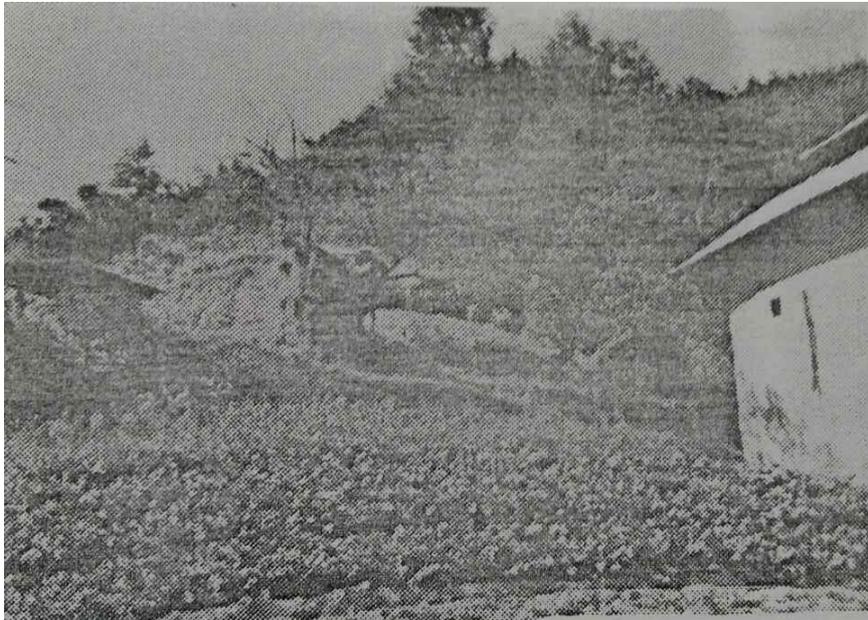
옛날의 여기 客舍터는 지금의 全義國民學校 자리다. 李朝 때 世祖 10年 <1464> 2月 30日에 王이 속리산을 구경하고 溫陽溫泉으로 가는길에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으며 仁祖 2年 이괄의 亂 때 仁祖가 公州 雙樹亭으로 잠시 피난갔다가 이괄의 난이 평정되매 한양으로 올라갈 때에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다는 客舍이다. 漢陽에서 남쪽으로 드나드는 많은 官人들이 묵고 가는 곳이기도 하다.

두집매

처음 이 곳에 부락이 생길 때 두 집 밖에 없었다 한다. 그후 마을이 오랜 세월을 두고 形成되었다 하는데 처음 두 집부터 마을이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하여 <두집매>라 부른다 한다. 남부 냇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다.

북바위

<북부> 냇가 북슌에 있는 바위를 <북바위>라 부른다. 바위는 평평한 큰 바위이고 그 옆에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한다. 옛날 全義縣의 원님이 여기 이 고을을 떠날 때는 여기에서 진송하였다 하여 <전송암>이라고도 부른다. <북부>냇가에 있다 하여 <북바위>라고 부르며 북부 숲속에 있다 하여 <북슌바위>라고도 부른다.



북슌나무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애탄이 서린 숲이기도 하다. <북부> 북쪽 냇가에 있는 숲이다.

社稷壇

마을의 편안과 풍년을 기약하기 위해 春秋仲月 上戊日에 祭祀를 드리는 風習에 따라 祭祀를 지냈던 祭壇이다. 全義의 社稷壇은 옛날엔 全義縣 東軒 西쪽 지금의 邑內里 <덕고개>에 있었다.

西亭里

비룡산 밑에 펼쳐진 지역이다. 늙은 느티나무가 마치 자연스럽게 소요하기 좋은 정자처럼 생겼다 하여 서쪽의 정자가 있는 곳이란 뜻에서 里名이 생겼다 한다. 本來 全義郡 대서면의 지역이다. 서기 1914년에 주변의 여러 里를 병합하여 행정구역을 만들 때에 <전서>와 <관정>의 이름을 따서 西亭里라 하여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비룡재

전이면 서정리와 유천리 경계에 있는 山이다. 높이가 249m가 되는데 봉오리가 뽀족하여 飛龍上天形의 명당이 있는 山이라 하여 飛龍峙라 부른다 한다.

川 西

태양기식의 유물이 있는 마을로 부른다. 즉 현암과 입석이 있는 마을이다. 南陽洪氏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다. <시루성>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시내가 西쪽으로 흐른다 해서 <川西>라 부른다. <내서>라고도 부르는데 강줄기가 서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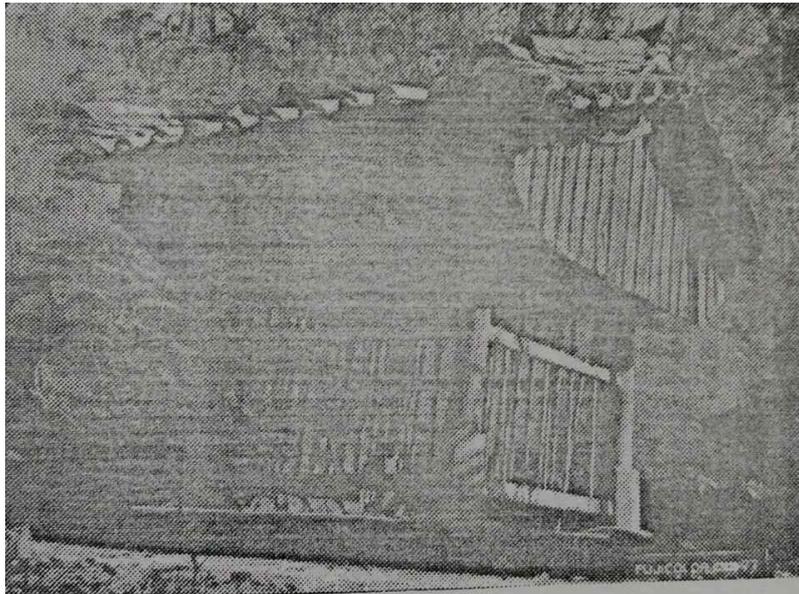
觀亭골

<감실><강실><관정리>라고도 부른다. 西亭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비룡천 아래가 되는데 처음엔 감실 또는 강실이라 하다가 마을 앞에 느티나무가 여러주 서 있으므로 <강정골> 또는 <관정골>로 변하여 부른다. 양성 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평전말

응달진 별관에 있는 마을이다. 산으로 둘러 싸여 음지가 많아 <山陰>이라고도 부른다. 양성 李氏가 많이 살고 있다. <관정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忠臣洪植旌門



李朝 仁祖 때의 충신 洪植의 旌門이다. 그는 인조 2년 이괄의 亂 때 순안 縣令으로 크게 功을 세웠으며 병자호란 때는 文化縣令으로

싸우다가 功을 세우고 戰死한 충신이다. 川西 서쪽에 旌門이 있다.

소래재고개

<관정골>에서 <군량골>로 넘어가는 고개, 全州 邑內里의 주봉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제독 李如松이 이곳을 지나다가 山脈에 人物이 나올 줄기라 하여 심술궂게도 山脈을 끊었다 하는데 그 山脈을 끊을 때 땅에서 소리가 났다하여 <소리재고개>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래재고개>라 부른다 한다.

小井里

元來는 全義郡 北面의 地域이다. 淸源郡 豐歲面 <蘇井>이라 부르기도 하였었다. <小亭>이란 잘못된 해석이다. 마을 앞에 소나무가 亭子처럼 서 있으므로 <松亭>이라 부르던 것이 <蘇井>이 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이웃의 여러리를 통합하여 小井里라 하고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廣 岩

옛날엔 <넉바위>라 불렀었다. 넓은 바위란 뜻에서 <넓바위>가 <넉바위>로 변해 부른다. 5m가량되는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넉바위>라 부르다가 <廣岩>이라고도 부른다. 全州李氏가 많이 살고 있다. <넉바위>엔 청룡과 白虎로 둘러져 있으며 청룡곶에 넓은 바위가 있어 대궐에서 여기를 지날 때 여기에서 쉬어갔다 한다.

웃 골

<넉바위> 남서쪽 오목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 <요곡>이라고도

부른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힘이든다해서 <요곡>이라 부른다. 海州 吳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內 洞

內洞은 小井里에서 깊숙한 곳에 位置한다하여 <內洞> <안골>이라 부른다. <웃골> 서남쪽 산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회덕黃氏가 30세대 살고 있다.

별 말

소정리 북쪽 별판에 있는 마을이다. 들에 마을이 形成되었다 해서 <별말> <평리>라고 부른다.

新井里

옛날에 加乙井處라는 관청이 있었던 곳이다. 전의군 북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에 <신대>와 <갈정>의 名稱을 따서 新井里라고 全義面에 편입되었다.

가나물

쭉렁쿨이 우거진 숲안에 우물이 있었다 한다. 그래서 <갈우물> <葛井>이라 불렀다 한다. 변해서 <가나물>이라 부르는 마을이 되었다. 新井里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다. 加乙井處란 관청이 있었던 마을이다. 葛田里라고도 부른다.

陰閑谷

운주산 음지쪽에 마을이 位置한다 하여 <음한곡> <음달말>이라

부른다. <가나물> <옹달> 쪽에 있다.

陽閑谷

운주산을 기점으로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햇빛이 맑음과 함께 한가한 마을이라 하여 <양한곡> <양달말>이라 부른다. <가나물> 양달쪽에 있다.

鍾聲洞

<新垆>라고도 부른다. <양달말> 앞에 새로된 마을, 처음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 꿈에 종소리를 들었다 하여 <鍾聲洞> <鍾聲谷>이라고도 부른다. 새로 마을이 생겼다 하여 新垆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寒井里

큰 샘이 있는데 물이 차고 약순도 통한다 한다. 산에 취순이 많아 서 여기 우물을 山藥水로 부를 때도 있었다. <거무논들> 위쪽에 있는 마을인데 <한우물> <寒井里>라고 부른다.

돌뜨기산

산에 돌이 많아서 옛날부터 城壁을 쌓는데로 많이 돌을 떠가고 해서 <돌뜨기산>이라 부른다. 돌을 떠가는, 즉 돌을 깨서 운반해가는 돌이 많은 산이란 뜻이 되겠다. <가나물> 동쪽에 있는 山이다.

北門峴

옛날 上古 때 加乙井處란 관청이 여기에 자리하였을 때의 北門이

있었던 곳이다. <북문고개>라고도 부른다. <가나물> 위 북쪽에 있는 고개다.

厲 壇

新井리에 있는 全義縣 때 부터의 厲壇이다. 신정리 북쪽에 위치 하였으며 城隍神과 諸雜神에게 豊年을 위해 清明日과 7月 15日 , 10月 1日 等 1년에 3일에 걸쳐 城隍祭를 드린 후 厲壇에 祭祀를 지냈다고 전한다.

山神祭

新井리에서 지내는 山神祭이다. 新井里 · 葛井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가뭄이 극심해도 葛井 우물은 항상 우물이 흘러 넘치는데 옛날에 加乙井處라는 行政處가 있었고 그 후 이곳 住民들이 마을과 우물을 守護하기 위해 祭祀를 지냈는데 그 風習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며 이 祭祀를 山神祭라 부른다. 山神祭를 지낼 때는 소를 잡고 우물을 품어 깨끗이 한다음 祭官 · 堂生 · 祝官 火末 等を 生期福德으로 定하여 連3년동안 各種 禁慾生活을 하고 제사에 임하였으며 每年 9月 2일에 始作하여 十月 抄에 山神祭를 지냈다.

城隍堂

新井리에 있는 城隍堂이다. 옛 全義縣 南쪽에 위치하였으며 옛 風習따라 詞堂을 建立하고 祭物을 지내는데 마을의 安全과 豊年을 비는 祭祀였다 한다.

女妓淵

新井리에 있으며 옛날 전의현 동쪽 길가에 있는 냇물 아래에 있는 기이한 바위를 女妓淵이라 부른다. 삭벽처럼 생겼고 맑은 물이 거울과 같으며 和暢한 날씨에는 바위 위의 풀이 물에 거울과 같으며 和暢한 날씨에는 바위 위의 풀이 물에 늘어진 것이 絶景이며 옛날에 한 妓女가 살고 있었는데 원한을 품고 물에 빠져 죽음으로서 女妓淵이라 부른다 한다.

自然潭

新井리에 있는 溪谷이다. 옛날 縣誌를 보면 全義縣 西쪽 10里 <마산> 남쪽에 아홉 구비 물이 흘러 큰 냇물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경치가 一品이어서 여기를 自然潭이라 부르고 많은 사람이 風流따라 찾았던 곳이라 한다.

石 亭

新井리에 있는 石亭이다. 옛날 전의현 남쪽 川邊에 己卯年의 明賢 朴光佑의 宗孫 朴坤의 孝道와 友愛가 뛰어나 벼슬까지 내렸는데 이곳에 은거하며 시냇물 西便에 돌을 쌓고 左右에 亭子를 만들어 놓고 土亭 李文函과도 風水를 論하며 風流속에 살았다 하는데 後世 사람들이 여기를 <石亭>이라 부른다 한다.

獨松亭

新井리에 있는 亭子다. 옛날 全義縣 南쪽 <생송> 마을에 위치한 亭子로 옛날 政丞 趙師陽이란 사람이 晩年에 이 근처에 살았는데 이곳에 亭子를 지어 소요처로 삼았고 그 亭子 위에는 소나무가 있어 여기를 獨松亭이라 부른다 한다.

蓮 池

신정리에 있었던 연못을 蓮池라 한다. 全岐誌를 보면 全義縣 東軒 들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가운데 연꽃을 심고 周邊에 梅花 꽃을 심어 周圍부터 滿花芳暢함에 맑은 香氣가 멀기까지 퍼졌고 유원지로 으뜸이었다 하는데 여기를 蓮池라 불렀다.

아야목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에 해발 60m 되는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약 2천 여평의 옛 성터가 남아있다. 이 성은 고려 때 쌓았다고 해서 고려산성이라 부르고 산 이름도 고려산이라 한다. 고려산성 아래에는 아야목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시대 북쪽 오랑캐의 잇달은 침략으로 우리 나라는 평화로운 때가 별로 없었다. 그 때마다 나라에서는 임금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지만 미처 그 쪽으로 빠지지 못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밀려오다가 이 곳 고려산성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어느 해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때도 송도는 몽고족에 짓밟히고 임금을 비롯한 대신들은 강화도로 빠지고 더러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고려산성에 머무르게 되었다. 조그마한 산성에 수천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성안은 그야말로 사람 걸려서 다닐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군인들이 아니면 피난민들이었다. 전쟁은 곧 끝날 듯 하면서도 의외로 길어졌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던 오랑캐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여러가지 처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길면 길 수

록 피난민들의 생활은 고달팠다. 그들은 가지고 온 양식이 바닥이 나서 식량을 구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물이 부족하여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는데 쓰이는 물은 물론이고 밥을 지을 때까지 달리었다. 성안은 물론 성 근처에 있는 마을은 모두 우물이 말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리 밖까지 물을 길러 나갔지만 어디를 가나 오랜 가뭄 때문에 마찬가지였다. 피난민들은 오랑캐들보다도 가뭄을 더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아쉬웠다. 어쩌다가 물이 생기면 그들은 체면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달려 들어 물을 빼앗아 마셨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뒤엉켜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더러는 주먹다짐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싸움이 번져서 살인까지 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증을 느꼈다.

“기우제를 지내자!”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자 성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한군데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며 비를 내려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다. 지금도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이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비를 내려 주기를 빌었다. 그만큼 그들은 먹을 물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하느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느님 저희들에게 먹을 물을 주십시오”

그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이렇게 각기 외쳐댔다. 그러자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감싸이더니 무서운 우뢰소리와 함께 번개불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번쩍었다. 하늘은 비를 뿌리며 점점 내려 앉는 듯이 어두워졌다. 대낮인데도 앞집을 볼 수가 없었다. 번개불은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다가 갑자기 천둥

소리가 더 요란하게 높아지더니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황-황-”

하고 지축을 흔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구름이 모두 걷히고 조금전과 같이 뜨거운 햇빛이 짹짹 내리쬐이고 있었다. 땅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더 내리지 않는 것을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도 그까짓 비를 뿌리려고 사람만 놀라게 했다고 불평들을 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은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조금 전에 요란하던 천둥소리는 두 군데에다 큰 웅덩이를 파고 우물물이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우물로 달려가 갈증을 풀면서

“아야 목이야, 아야 목이야”

하면서 부르짖었다. 이런 일이 있는 뒤부터 사람들은 그곳 마을 이름을 “아야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석곡의 선들

청주땅에 한 장사가 살고 있었다. 키는 七尺에다 항시 돌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한다. 청주에서 좀 떨어진 산속에서 사는 그는 육중한 키에 단단한 장사인데 반하여 눈물이 많았다. 이웃집에서 초상만 나도 달기똥 같은 눈물을 잘 흘렸고 양반 집에서 학대를 받는 머슴들을 보아도 그는 머슴편에 들어서 일을 해주곤 했다. 힘이 장사지만 배운 것이 없어서 한탄하던 나머지 전의땅으로 공부를 하러다니게 되었다. 서당을 다닌다고 집을 나서기는 하였지만 항시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가 먹고 사는것도 큰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서당에 올 때는 나무

를 두어 지게 해서 젊어지고 오곤했다. 서당에 올때는 나무를 지고 오고 갈 때는 빈지게를 지고 집 근처에 와선 곧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했다. 그가 한 번 지고 나오는 나무는 보통 사람의 곱절되는 두지게 나무 였지만 다른 사람의 두 지게 나무 보다 분량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오는 나무는 불나게 잘 팔렸다. 그래서 그럭저럭 마음 놓고 서당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다.

하루는 그가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한 쪽에 책을 끼고 한 손에 석장을 짚고 마을에 들어서려는데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참 서 있다가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게를 받치고 그 쪽으로 가봤다. 거기엔 한 색시가 함정에 빠져 있었고 큰 뱀이 땅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며 넘실대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가까이 가서 뱀을 발로 걷어 차면서 석장으로 때려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그 색시를 구해냈던 것이다. 그 색시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지만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나무를 팔고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그 여인이 서 있다가 그에게 많은 엽전을 주면서 공부를 잘 하라고 하고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돈이 필요 없다고 엽전을 도로 색시 앞에 집어 던졌다. 그랬더니 색시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난 여기사는 이진사댁 딸이요,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은혜는 갚아야 할 것이 아니요, 받으시오」

하고 도로 엽전을 주는 것이었다.

「필요 없소이다. 언제 내가 돈 받을려고 사람을 살렸나요」

하고 총총히 사라져 갔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그는 또 여기에서 그 색시와 마주쳤다.

「이보시오 선생님 옷이 남루한테 이 옷을 입으시오」

하고 이번엔 보자기에 싼 물건을 내놓았다.

「싫소이다. 저는 몸이 커서 맞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또 사라지려는데 이번에 색시가 가까이 와서 그의 옷을 잡아 당기며 「이보시오 내가 옷을 만들 때는 서생의 몸도 안 보고 옷을 만 들었는 줄 아세요 입어봐요 자 받아요, 어서요」

하고 자기를 가까이 하므로 그 옷보따기를 받아선 지계에 걸끈 걸 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호기심에 옷을 입어 봤다. 옷이 어찌면 이렇게 잘 맞을까! 그는 빙그레 좋아하며 그 이튿날은 그 옷을 입고 거기에다 나무를 지고 읍내로 들어왔다. 읍내에선 아는 사람들이 새 신랑이 되었다고 놀려대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지계를 놓고 땀을 흘리다가 한편을 바라보니 자기가 구해준 그 색시가 빙글빙 글 웃으면서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수줍은 듯 곧장 서당으로 달려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로 자주 만남으로서 그도 색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가끔 농담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 갔더니 나라에 난리가 일어났다고 서당 선생님이 크게 근심을 하는 것이었다. 또 오 랑케가 쳐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가야 한 다고 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산 속에 있으니까 피난 갈 필요도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며칠있다가 서당에 나갔더니 서생이 하나도 나오지 않 았다. 그도 어쩐지 마을이 텅 빈것 같아서 그 색시집 근처로 가선 몇 바퀴 빙빙 돌고 집에 돌아왔다. 그가 그후 집에서 들은 소문에 의하 면 읍내는 온통 오랑캐들로 쑥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때 그는 자 기를 따르는 색시를 생각했다. 그는 신발도 못신은 채 신발을 질질 끌 며 읍내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읍내에 단숨에 들어서자 마을엔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는 색시 집으로 가봤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서슴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루 위에 오르는 거기엔 색시가 죽어져 있었다. 가슴에 칼 자국이 있었다. 그는 색시를 안은 채 울고 있는데 이번엔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며 집에 불뚱이 떨어지더니 집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시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선 색시를 멀리 옮겨놓고 석장을 불탄 자리에 내던지자 땅에 꽂혔다. 그리고 색시의 시체를 안은 채 산속으로 사라져갔다 한다. 그 때 던져서 꽂아진 석장을 지금은 <선돌>이라 부른다.

벼락바위

옛날 四觀亭(사관정)이란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겐 어린 딸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세 식구가 재미있게 살고 있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내가 시름없이 앓기 시작하더니 딸이 일곱 살 되던 해에 죽고 말았다. 그는 어린 딸을 부등켜 안고 한 없이 울었다. 아내가 죽자 그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나무하러 산에 갈 때도 딸을 데리고 다녔고 밭일을 볼 때도 꼭 딸을 데리고 다녔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나무할 때는 놀지 않고 산나물을 캐었고 밭일을 할 때는 밭에서 나물을 캐서 밥상을 맛있게 꾸몄다. 그는 아내가 죽은지 삼년이 지난 뒤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다. 새로 들어온 아내는 어여뻐서 그래서 그는 흡족했었다. 그의 아내도 이 집으로 시집올 때 딸린 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의 집은 네 식구가 되었다. 원래가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그의 딸은 무척이나 아내를 따랐다. 그래서 집안은 조용했다. 헌데 조금 말썽이 생긴다면 아내가 데리고 온 작은 딸이 문제였다. 늦잠을 자는 데에도 분수가 있지 밥만 먹으면 잠만

갔다. 그뿐이 아니었다. 끄덕하면 부엌에서 그릇을 켜고 집에서 밖에
만 나갔다면 누구하고 꼭 싸우고 돌아왔다. 그래서 가끔 불안이 감돌
기는 했다.

하루는 아내가 두딸과 함께 밭에 나갔다. 콩밭에 풀이 자라서 풀을
뽑기 시작했다. 아내나 큰 딸은 열심히 풀을 뽑아갔다. 헌데 작은 딸
은 풀을 뽑다밀고 밭에서 쿵쿵 잠을 자는 것이었다. 아내는 점심을 준
비하러 집에 일찍 들어갔다. 큰 딸은 풀을 열심히 뽑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이 때였다. 한 노인이 여기를 지나다가 풀
을 뽑고있는 큰 딸을 유심히 바라보곤

「그래 뉘집 딸이지」

하고 물었다. 큰 딸은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사관정 농부의 딸이외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빙그레 웃곤 혼잣말 처럼

「참 착한 색시구먼」

하고 돌아갔다. 그날 늦게 큰 딸이 집에 돌아가자 작은 딸 때문에
집안이 소란했다. 작은 딸이 밥 그릇을 주고 떡과 바꾸어 먹어서 아
버지 밥을 풀 밥 그릇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큰 딸은 또 밥그릇
을 사오면 될 것이 아니냐고 작은 딸을 감싸는 것이었다. 그런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 이었다. 그의 집에 어떤 부인과 중매장이가 찾아
왔다. 딸을 시집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데리고
온 딸을 먼저 시집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곱게 차려 입힌 다음 그들
앞에 나오게 했다. 신랑의 어머니는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한참 작은
딸을 바라본 다음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났다.

「내가 잘 못 봤나?」

자리에 앉았던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이때였다. 아내

는 생각했다.

「웁지 큰 딸이 반반하니까 그 애를 보고 왔구나, 흥 내 딸이 이 자리를 놓일 수는 없지」

그래서 그녀는 큰 딸을 죽이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큰 딸이 밭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오자 뒷산으로 유인해서 죽여버렸다. 큰 딸을 죽인 아내는 겁이 났다. 그래서 비탈길을 바빠 내려오는데 숨이찼다. 할 수 없이 바위에 앉아서 뒤를 바라봤다. 이 때였다. 한 쪽에서 구름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쪽으로 달려오면서 천둥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귀를 가로 막았다. 하늘이 번쩍했다. 하늘에서 땅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딱딱한 고음이 들리더니 바위를 때리는 것이었다. 무서운 힘이였다. 바위는 갈라지고 그녀의 몸은 가루가 되어서 산산이 흩어졌다. 바위가 기우뚱 하며 땅속으로 들어갔다. 한편에 갈라진 바위는 땅을 뚫고 옆구리로 밀렸다. 옆구리로 밀린 바위는 천안까지 밀렸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바위는 벼락이 때려서 바위 모양을 바꿔 놓았다 해서 벼락바위라 불리오고 이 바위는 천안까지 뻗어있어서 그 동맥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전의면 군량골과 사관정 사이에 있는 이 바위는 이 집 큰 딸을 아끼는 노인이 때린 바위라고 전하기도 한다.

호랑이도 밤김을 비켜준 金忠烈 信烈 (김충열 신열) 형제 정문

孝子(효자) 金忠烈(김 충열)과 信烈(신열)의 형제는 贈右議政(증우의정) 承露(승로)의 9世孫(세손)으로 扶安縣監(부안현감)을 지낸 金海壽(김 해수)의 손자이며 金山斗(김 산두)의 두 아들들이다.

이들 두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孝誠(효성)이 남달리 지극하여 윗 어른을 공손히 섬기고 예로써 대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른스러웠다. 이 같이 효성어린 두 형제를 만나는 마을의 노인들이 “너희들은 언제 이런 예법을 배웠는가” 하고 물으면 한결 같이 “부모를 奉養(봉양)하고 어른을 公敬(공경)하는 것을 어찌 배워서 알겠읍니까”라고 대답하였다.

형인 충열은 11살이고 아우인 신열이 겨우 9살이 되던해 아버지 金 山斗(김 산두)는 어린 형제들을 남겨 놓은채 30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니 이들 형제들의 슬피 울고 애통해 하는 모습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었다 하며 보는 사람들을 감동 시키었다. 어린 두 형제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명의를 찾아 때로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두 형제는 짜증한번 없이 명의를 찾아 약을 지어 정성으로 시탕 간호했으나 백약이 부효였다. 그래서 두 형제는 자신의 孝誠(효성)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밤을 새워 천지신명에게 기도까지 드렸으나 점점 아버님의 병세는 심하여졌다.

하루는 병든 아버지가 개고기가 먹고 싶어 청하니 두 형제는 동네에서 개를 구하여 자주 약을 해드렸다.

어떤 때는 가까운 동네에서 구할 수없어 멀리 30여리 밖에까지 가서 개를 구해오다 그만 날이 저물었다.

어린 두 형제는 무서움도 잊은 채 빨리 집에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발길을 서둘러 고개를 넘는데 그만 우람한 호랑이가 한 마리가 이들 두 형제를 가로막고 있었다.

겁에 질린 충열은 마음을 가다듬고 눈물을 흘리며 이 개는 병든 아버님의 약을 갖고 가는 길이니 제발 길을 비켜 달라고 호랑이에게 애원을 하며 간청을 하니 이들 孝誠(효성)에 호랑이도 감동 된 듯 멀

리 사라져 갔다

이번에도 또 잉어고기를 먹고 싶어하니 어린 동생 신열이 이번에는 형을 쉬게 하고 자기가 구하겠다고 집을 나와 실천강으로 가보니 강은 이미 퐁퐁 얼어 있었다.

어린 소년 신열은 추위도 잊은 채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드리며 잉어잡기에 열중하니 어린 소년의 기도에 감동된 듯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아버지께 봉양하는 효행을 하였다.

이토록 충열과 신열 두 형제는 우애심 또한 각별 했다.

두 형제의 각별한 효행에도 아버지는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살림은 자꾸만 기울어 조식을 이어갈 양식마저 떨어져 갔다.

이 딱한 소식을 들은 고을 현감이 이 어린 두 효자에게 상환곡(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곡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두 효자 형제가 왔는가를 확인하고 쌀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얼마 후 조모님이 돌아가시니 承重孫(승중손)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3년동안 허리띠 한번 풀지않고 지성으로 할머니 묘소를 보살피었다 한다.

또한 충열의 나이 60이 되던해에 어머니 마저 돌아가시었다.

충열은 일찍이 나이가 어리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버지의 상사때에는 효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항상 애통해 마지 않았다.

충열의 나이 70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0년이 되는 망일에 다시 상복을 입고 侍墓(시묘)를 살려고 하니 동네와 집안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 어렵고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고 묘소 옆에 기거하니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날라다 대접을 하고 조정에 글을 올리니 나라에서 정려를 짓게하고 비를 세워 두 형제의 효

행이 많은 사람의 표상이 되게 하였다.

또한 숙종대왕께서 온양에 행차 하시었다가 대사헌 조 복양의 말
씀을 들으시고 두 형제 효자의 효행을 가상히 여기시어 음식을 내리
어 표창하였다.

전 동 면 편

全 東 面

馬韓때부터 部落의 形成이 있었던 곳으로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다. 百濟가 滅亡하였을 때는 百濟復興軍이 끝까지 백제 부흥을 위해 싸운 山城이 있고 新羅軍과의 움에서 百濟 流民의 기록을 피로 얼룩진 고장이기도 하다. 新羅統一後엔 大麓 <大麓 木川>의 영현에 속했다가 고려 때 全義縣에 다시 속하였고 그 다음 해에 燕岐를 합하여 全岐縣이 되었을 때 그 영역이었고 또한 16年 <1416>엔 다시 전의 현에 속했다. 대대로 선비들이 문혀사는 지역이었으며 李朝末 高宗 32年 <1895> 全義郡의 동쪽 地域에 속했다가 서기 1914年 행정구역 개혁시 全義 동쪽에 位置한다 해서 全東이라 하여 연기군에 편입하여 16個里를 관할하는 面이 되었다.

靑松里

백제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大麓 <大麓 木川>郡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太宗때 전기 현에 속했다가 다음 全義縣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全義郡 東面의 地域인데 이곳에 옛날부터 세그루의 老松이 이 곳 사람들의 信仰의 對像처럼 모셨으므로 <靑松>이라 불렀다 한다. 1914年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靑松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쇠 성

全東面과 西面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곧 까치성 위에 있는 山城인

데 높이가 383m이며 돌로 쌓은 성이 견고하여 철웅성과 같다 한다. 단단한山城이라 하여 <쇠성>이라 부른다.

배 일

운주산 남쪽 아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학자 權柱가 임진왜란 때 의병 300名 軍糧 450되로 錦山 싸움에 이르렀다가 別世하였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日本을 배척하는 意味에서 排日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한다. 뒷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배일>을 <梨谷>이라 하였는데 正祖때 학자 權復이 살면서 號를 梨逸이라 고쳤다. <梨谷> 즉 배나무가 많은 골이라 하여 그렇게 부른다 한다.

三松亭

<배일>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엔 소나무 정자가 세그루 있다 해서 <三松亭>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 처음은 安東權氏 一世代가 살았는데 여기에 그들이 정착하기 전에 벌써 소나무 세그루는 있었다한다. 헌데 이상하게도 소나무 세그루는 모두 가지를 자른다든가 상처를 입히면 마을에 괴질이 퍼지는가 하면 이 마을에 재앙이 들므로 이 마을에선 소나무를 위해 왔는데 한해엔 세 그루의 소나무가 모두 뿌렇게 시들더니 그해부터 3年間 심한 가뭄이 들므로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삭제하다가 심었는데 그해부터 다시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소나무가 네그루 서 있다.

梨逸洞天碑

<아래배일> 입구에 있는 碑를 梨逸洞天碑라 부른다. 正祖때 학자 權復의 號를 梨逸이라 하고 마을 앞에 碑를 세웠다.

대 재

<아래배일>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쪽에 큰 고개가 있다해서 큰 재라는 뜻에서 <대재> <대티>라고 부르며 또한 <대자>라고도 부른다.

都 靑

<삼송정>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全義李氏와 居昌 신씨가 살면서 서로 의종게 모이는 도회청을 두었으므로 都廳이라 하였는데 일제 때 쉬운 글자를 취하여 都靑으로 변했다 한다.

靑監里

백제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後엔 대륙 <大麓 木川>郡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太宗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음 전의현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전의군 南面의 지역이었고 1914年 행정구역 개혁 때 동막리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를 병합하여 <청산>과 <남포>의 이름을 따서 靑監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靑 山

<증미> 밑에 있는 마을이다. <증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청미> 또는 <청산>이라고 부른다.

버드나무말

<쪽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버드나무말>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엔 냇가 뿐만이 아니라 버드나무가 많은 마을인데 <하남포>라고도 부르는데 <남포> 아래편에 있다는 골이고 <아래고개>라고도 부른다.

시루바위

<시루봉>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다. 큰 바위가 봉오리를 이루었는데 그 모양이 시루와 같다 하여 <시루바위>라 부른다 한다. <중암>이라고도 부른다.

東幕골

<버드나무말>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 여기에 마을이 형성될 때 움막을 짓고 살던 것이 큰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동막>이라 부른다 한다. <동막골>이라고도 부른다.

도리말

<큰말> 옆 산을 돌아가서 자리한 마을을 <도리말>이라 부른다. 산을 돌아서 마을이 있다 하여 <도리말>이라 부른다 한다.

개미기고개

<청산>에서 전의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개미기>고개라고 부른다. 고개가 잘록하여 개미 허리와 비슷하다 하여 <개미기> 고개라 부른다 한다. <의현>이라고도 부른다.

개미굴

<개미기>고개 남쪽에 있는 京釜線 철로의 굴이다. 길이가 2km가 되며 작은 굴이 잇대어 있는데 <개미기> 고개에 있다 해서 <개미굴>이라 부른다 한다.

쪽 개

<칭미>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앞 냇가에 쪽이 많이 있었다 하여 <쪽개>라 부른다 한다. <조개> <남포>라고도 부른다.

양지말

<버드나무말> 산등성이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등성이에 있어서 양지를 바르게 받는 마을이라 해서 <양지말>이라 부른다.

靈堂里

百濟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엔 대륙 <大麓 木川>郡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太宗 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음 전의현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전의군 소서면의 地域으로서 1914年 行政區域 개혁 때 영성리 당리 상만곡리 하만곡리를 병합하여 靈城과 堂里의 이름을 따서 靈堂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영성들

<작성산> <까치성> 서쪽 밑에서 있는 큰 들을 <영성들>이라 한다. 金海金氏들이 살고 있다.

압실고개

<압실>에서 天原郡 廣德面 원덕리와 공주군 正安面 <사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압실고개>라 부른다. 고개는 큰 고개인데 옛날에는 도적들이 들끓어서 이 고개를 넘어갈 때 집단적으로 고개를 넘어갔다 한다.

마느실

<말미>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말미산> 위쪽에 있다하여 <말위실>이라고도 하며 변하여 <마느실>이라 부른다. 6.25사변당시 한 여인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마늘을 재배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자 인근 주민들이 마늘을 심어서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마느실>의 마늘하면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지로 유명해졌다. <마느실>을 <마늘실>이라고도 부른다. <馬谷>이라고도 부른다. 마느실 아래 마을을 <아래마느실>이라고 부르고 <마느실> 위 마을을 <위마느실>이라 부른다.

말 미

<당마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높이가 137m되는 산이다. 산모양이 말처럼 생겼다 하여 <말미>라 부른다 한다.

당마루

<영성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山祭堂이 있다해서 <당마루> <堂里>라 부른다 한다. 진주정씨들이 많이 산다.

능 골

<당마루> 서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을 <능골>이라 부른다.

또한 <능곡>이라고도 부르는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능골>이라 부른다 한다.

梧軒槐

전동면 靈堂里 周瑜山 동편쪽에 있는 槐木 한 그루를 梧軒槐라 부른다. 李朝端宗 때 首陽大君이 자기가 王位를 오르기 위해 어린王을 모신 충신 皇甫仁 金宗瑞를 打殺하려고 右相인 鄭萊을 다음 해 賜死케 하니 여기에 원한을 품은 鄭萊의 高孫梧軒이 후손에게 祖上의 깨끗한 節介와 忠臣이었음을 傳知키 위해 이곳 집근처에 槐木 한 그루를 심었는데 510餘年이나 되는 老松이다. 梧軒이 심었다 하여 <梧軒槐>라 부른다.

목숨을 바쳐 충간한 金承露 (김승로)

忠節公 金承露(충절공 김승로)는 강릉인 이다.

김승로는 어려서 부터 학문에 능했으며 같은 또래 학동중 누구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고려말의 대학자인 목은 이색 鄭夢周(포은) 선생까지도 김승로의 뛰어난 학문과 사람됨을 알고 장래의 고려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서는 官尙監, 左正承(좌정승)까지 입신양명하였다. 한때는 임금의 내리신 벼슬도 사양하고 전원의 한적한 곳에서 심신을 수양하고 자연과 더불어 학문을 즐기며 생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임금께서 간곡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는 하명이 있으므로 성은에 감복하여 官職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라 생각하고 여러 官職을 두루 지냈다.

한때 오랑캐의 침입을 당하자 왕과 김대감을 위시한 여러 신하들이

남으로 남으로 피난 길을 떠났다.

피난 行列(행렬)이 행정리 (오늘의 천원군)의 차령 고개에 이르러 公州(공주) 방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鳥致院(조치원) 방면으로 난을 피할 것인가 하고 방황 할 때다.

이때 왕이 신하들한테 하문하니 김승로 대감이 말하기를 험준한 車嶺(차령) 고개를 넘어 公州(공주) 로 행차 하는 것 보다는 조치원 방면으로 60여리 길을 남하 하자고 말했다.

그 곳은 넓은 평야가 있어 군량미도 구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흠어진 군사들을 모아 근왕병을 모집해서 몽고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지형을 갖춘 곳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임금께서는 김대감의 말을 들어 조치원 방면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남쪽으로 무수굴(지명)을 지나 개티고개에 당도하니 밤낮의 피난 길에 임금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고 백성들도 오랑캐의 말 발굽 아래 짓밟혀 있었다. 피난길 행차는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며 피신처를 찾았으나 평야는 보이지 않고 겹겹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산림 뿐이었다.

어찌할바를 모르던 대신들은 이때부터 김대감을 의심하는 중론이 분분하였다. 이때 왕이 하명하기를 저 앞산의 봉우리 (지금의 국사봉)에 올라가 지형과 위치를 살펴보고 또한 넓은 들이 보이는가를 확인하라고 하였다. 임금의 분부를 받은 한 신하가 산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雲霧(운무)가 깔려 있었다. 일기관계로 위치마저 확인을 못하니 여러 신하들은 더욱 의심을 품고 남하 하던중 김대감과는 별로 친교가 없는 신하들이 <벼르제고개>(지금의 전동역 부근 고개)에서 逆謀(역모)를 피하여 김대감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다. 마침내 불평을 품은 여러 신하들은 임금께 간하여

지금 이 행렬은 몽고군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으로 告(고)하였다. 사실 임금도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끝내는 임금께서도 역신들의 중론에 할 수 없이 <칼거리> (지금의 전동역에서 남쪽으로 1km지점)에서 김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극형인 목에 칼을 걸도록 준엄한 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대감은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변명하지 않고 오로지 왕과 종묘사직에 대한 충성심을 더 굳게 하였다. 언젠가는 임금도 억울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 줄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붉은데기(지명)에서 역신들의 분분한 중론에 斬首(참수)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김승로 대감은 斬刑(참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난국에 처해 있는 고려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10여리만 가면 넓은 평야가 나올 것이니 그 곳에서 군량미를 구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반격을 가하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금께 간하고 칼을 받았다. 과연 10여리쯤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 넓은 들(조치원 들)이 있었다. 왕은 이 곳에서 군량미와 분산된 군사들을 재정비하여 침략자 오랑캐를 반격하는 동안 비로소 충신을 참형한 것을 후회하고 붉은데기에서 김대감의 시신을 수습하고 고인의 넋을 위로하였다.

임금께서는 고려 국장의 절차에 따라 상여로 운구하는 도중 갑자기 일진광풍이 일어 영전공포가 날리어 청남리 큰 말 뒷산에 떨어지니 그 곳에 고려의 순장법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이같이 김승로는 충신으로 죽음을 눈 앞에 두고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임금께 충성으로 살다가 올바른 판단으로 생명을 마쳐온 진실한 충신이었다.

陽谷里

百濟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 後엔 대륙 <大麓 木川>郡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에 속했으며 李朝太宗 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음 전의현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전의군 소서면의 지역인데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곳이라 하여 陽地이라 불렀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양곡리 상세곡리 하세곡리 양지리를 병합하여 陽地와 陽谷의 이름을 따서 양곡리라 하여 燕岐郡 全東面에 편입되었다.

細 谷

<양지말> 북동쪽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가 가늘고 그 곳에 마을이 있다 해서 <細谷><細洞><가느실>이라 부른다 한다. 또한 <세곡> 아래 마을을 <하세곡> 세곡 위 마을을 위세곡이라 부른다.

주막뜸

양곡리에 있는 마을이다. 양곡리 길가에 잇는 마을로 주막이 있어서 <주막뜸>이라 불렀다 한다.

漆 泉

양화리에 있는 藥水터를 <漆泉>이라 부른다. 이 곳 藥水는 피부 병에 좋고 特히 옷을 올린데 효력이 많다 하여 漆泉이라 부른다.

陽地말

양곡리에 있는 마을이다. 陽谷里에서 으뜸되는 마을인 양지바른

곳에 있다 하여 <양지말>이라 부른다 한다. 安東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또한 양지말 위쪽에 있는 마을을 <위양지말>이라 부르는데 <양장리>가 아니라 양지리 위쪽에 있다 하여 <위양지말>이라 부른다 한다.

鴨 谷

<양지촌>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큰 바위가 있고 골짜기 마을로서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암실> <암실> <암곡> 이라 부른다 한다.

봉두미

<가느실>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봉두산> 아래에 위치하는데 마을 뒷산의 모양이 鳳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鳳頭尾>라 부른다 한다.

辛芳里

백제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 後는 대륙 <大麓 木川> 郡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한때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에 瓦 鮮 太宗 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음 전의현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전의군 소서면의 지역인데 이 附近 바위는 크고 넓어서 그 바위가 깔려 있는 모습이 수려하다 하여 <華芳>이라 하였다 한다. 1914년에 行政區域 改革時 돈지리 양방이동 음방이동 신암리 마산리와 東 面의 도산리를 병합하여 <신방리>라 하고 연기군 全東面에 편입되었다.

頓 地

<오야꼬치>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돈대위에 있으므로 <돈대> <돈다리>라 하던 것이 변하여 <돈지> <돈지리>라 한다.

芳耳洞

<돈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房같이 아늑하다 하여 <房耳洞>이라 부른다. 또한 <방밧골>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적성산에서 서북쪽으로 뺀 산줄기의 남서편에 위치한 마을로 지금은 50여戶가 살고 있지만 李朝 仁祖 때엔 이용한이라는 선비가 李适의 亂에 가담하였다가 이 곳에 몸을 피해서 양지바른 편에 터를 잡아 토담집을 짓고 앞을 살펴본 즉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토담집을 짓고 앞을 살펴본즉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동산이고 멀리는 꾸불꾸불 흐르는 산이 있어 이 토담집이 꼭 房과 같다 하여 <방골>이라 부르게 하였다 하는데 그후 변하여 <방이동>으로 부른다 한다.

음달말

<방앗골>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햇빛이 들어도 음달이 많아지는 마을이라 해서 <음달말>이라 부른다.

오야꼬지

신방리에서 큰 마을이다. 산줄기가 냇가로 뺐었는데 옛날 기와집이 있었고 오야가 많이 나온다 하여 <윗고지>라고도 부른다. 日帝 때 오얏고시란 사람이 산을 개간하여 牧場을 만들었으나 동양척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뺏기게 되자 瘡병에 걸려 병사 하였다 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빌어 <오얏고지>라 부르게 하고 현재까지 전해온다 한다.

신암골

<음달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변두리에 크고 넓은 바위가 많이 깔려있다 하여 <신암골>이라 부른다 한다. <신암동>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호랑이와 동거한 金師俊(김사준) 정려

金師俊(김사준)의 자는 明叔(명숙)이요, 호는 恩庵處士(은암사)요, 본관은 安東(안동)이다. 1439년(세종21)에 刑曹參義(형조참의) 金龜年(김구년)의 5형제중 2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조정에 出仕(출사) 해서 정사를 보았고 어머니 이씨는 孝寧大君(효령대군)의 아들 誼城君(의성군) 李采(이채)의 딸로 효령대군의 손녀요, 태종의 曾孫女(증손녀)로 남달리 출중한가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다.

혼란속에 있던 조정은 마침내 1455년(단종3)에 首陽大君(수양대군)은 12세인 端宗(단종)을 上王 으로 올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정변이 일어났다. 이어 다음 해에는 피비린내 나는 死六臣(사육신)의 처형과 集賢殿(집현전)의 폐포가 단행되었다.

그의 부친은 이 骨肉相爭(골육상쟁)의 不義(불의)를 개탄하고 벼슬을 버리고 落鄉(낙향)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忠誠(충성)된 뜻을 따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어려서부터 김사준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벼슬은 물론 과거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오직 孝行(효행)과 德(덕)을 쌓는데

만 노력했다.

그는 5형제중 특히 효성이 지극했다. 어느 해 겨울 부친이 短病(단병)이라는 고치기 힘든 부스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蓮根(연근)을 잡숫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엄동설한이라 연못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져 있어 구할 길이 막연했다. 그러나 김사준은 굽히지 않고 매일 연못에 가서 배회하더니 마침내 얼음판 위에 엎드려 무려 7주야를 기도하니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 목메에도 그리던 연근이 얼음을 뚫고 솟구쳐 나왔다. 그는 채삼 감사를 표하고 이를 가져와 드리니 부친의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

얼마후 부친은 75세의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하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생각하고 절치부심 하여 애통해 하니 이를 보고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는 산소 옆에 조금만 여막을 짓고 3년간 侍墓(시묘)를 살았다. 그가 조석으로 호곡하는 구슬픈 소리가 山神靈(산신령)을 감동시켜 밤이면 호랑이로 변신하여 그와 더불어 同居(동거)하면서 겨울이면 그의 몸을 녹여주고 여름에는 온갖 微物(미물)들의 침범을 막아주었다는 일화를 남기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더욱 높이 推仰(추앙)하였다.

이 소문이 임금(예종)에게도 전해지니 친히 勅使(칙사)를 보내어 위로하고 先山(선산)의 陵參奉(능참봉)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벼슬을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오로지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향리에서 은거하면서 후세들 敎育(교육)에만 힘을 쓰니 많은 유림들이 그의 지극한 효성과 不義勿動(불의물동)한 大節(대절)과 學德(학덕)에 감복하여 찬사를 보내었다.

그의 장조카인 (오)는 후일 1480년 (성종11)에 武科 (무과)

에 급제하여 錦衣還鄉(금의환양)하여 숙부를 뵈고자 찾아왔으나, 그는 문을 굳게 닫고 만나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골육상쟁하는 조정에 벼슬한 것을 크게 꾸짖었으니, 그의 대쪽같은 節義(절의)가 이와 같이 대단하였다.

그는 1520년(중종20)에 81세에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니 많은 고을 사람들이 모여 스승에 죽음을 통곡하였으며 장례의 행렬이 人山人海(인산인해)를 이루어 그 행렬은 길을 메웠다.

후일 明宗朝(명종조)에 이르러 그의 出天之孝(출천지효)는 永世不忘(영세불망)이라 치사하고 命旌(명정) 하니, 雙孝子門(쌍효자문)의 정례가 세워졌고 후일 庚辰年(경진년) 봄에 重修(중수)한 바 있었다.

이같은 金師俊(김사준)의 효행 기록은 정려문으로 뿐만 아니라 大東新編(대동신편)의 孝子錄(효자록)에 까지 명기 되어 있다.

松亭里

백제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 後는 대륙 <大麓 木川>郡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初葉 太宗 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全義縣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全義郡東面의 지역으로서 李朝 肅宗 때 左義政을 지낸 선비 한 사람이 晩年에 그 先塋을 따라 이 곳에 은거하면서 솔밭附近에 亭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여 松亭이라 불렀다는데 1914년에 行政區域 改革때 <송동>과 <사정> 그리고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松亭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솔 재

松亭里에 있는 마을이다. 소나무가 있는 고개마을이라 해서 <솔재>라 부른다 한다.

新堡

<상소골> 남서쪽에 새로된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이 생겼다 하여 <새터> <新堡>라 부른다.

안 터

<연수봉>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안터>라고 부른다. <새터> 안쪽에 위치하는데 <내기>라고도 부른다.

사장골

<구리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때 사기점이 있었던 곳이다. <사장동> <사정리>라고도 부른다. <사장골>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사장골>이라 부르고 바깥편에 있는 마을을 또한 <바깥사장골>이라 부른다.

상소골

<송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송곡리 <소골> 위쪽에 있다. <상송동> <상송곡> 이라고도 부른다.

절텃골

<연수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절텃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延壽庵(연수암)이 있었다 하는데 절이 있었다 하여 <절텃골> 이라 부른다 한다.

연숫골

<절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연숫골>이라 부른다. 松亭里 東南쪽 溪谷 <절텃골>에서 지금의 松谷川 까지의 400여m 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절텃골>에 있던 <연수봉>의 이름을 따서 <연수골>이라 부른다 한다.

큰중소골

<상소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지금은 <능골> 마을보다 큰 마을로서 인가가 많았으나 집터가 나쁘다 하여 지금의 <상소골> 또는 외지로 이주하고 권씨의 산적집만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數戶가 살고 있고 옛날의 집터 자리가 남아 있을 뿐이라 <흔터골>이라고도 부른다. <대중소동>때 중소곡이라고도 부르는데 <큰중소골>로 알려진 마을이었다.

獨松亭

<상소골> 앞 냇가에 있던 獨松亭의 터 지금은 옛날의 獨松亭이 없어졌지만 肅宗 때 左議政 趙師錫이 晩年에 그 先塋을 따라 이곳에 은거하면서 정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는데 그 亭子가 獨松亭 이라고 한다.

銅 谷

<새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구리가 많이 나왔다 하여 <銅谷> <銅谷洞> <구리내>라고 부른다.

松城里

백제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 後엔 <大麓 木川>郡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때 접어들어 太宗때 全岐縣에 속했다가 全義縣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全義郡 東面의 地域이었다. 원래가 백제 때부터 술이 율창했고 또한 백제 멸망후 부흥운동이 活潑했던 松城<金城>이 여기에 있어 여기를 <술티>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 때 <술티>와 <성곡>의 이름을 따서 松城里라 하여 이웃 洞里를 병합하고 燕岐郡 全東面 松城里가 되었다.

요 골

松城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에 한 가구가 살 때 어느해 산사태가 나서 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자 그 곳에 요란스럽게 흐르는 물을 보고 지나던 한 선비가 말하기를 요곡 <물요골곡>이라 말한 것이 그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요골>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다한다. 지금은 예산 李氏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고 있다.

주막뜸

松城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全義郡 당시 南面을 거쳐 西面으로 가는 길목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주막이 있어서 마을을 <주막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무드리

<젓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물이 흐르면 물이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강바닥까지 보였다 하여 <물도래> <무노리>라 부르다

가 <무드리>라 부르게 되었다. 물이 뱅글뱅글 돈다해서 <水田>
<水田里>라고도 부른다.

젓 말

<작성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산 아래 마을이 있다 해서 처음
은 <젓말>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젓말>이라 부르게 되었고 <
성곡> <성곡리>라고도 부른다 파주엄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솔 티

<중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솔티>라 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솔티라 부른다. <솔티> 고개는 고개가
길고 험하여서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솔티>마을은 李朝때 사기소
가 있었으며 金海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솔티동>이라고도 부른다.

城 山

李城山위에 있는 山이다. 옛날 난리 때 이 근처 사람들이 이 곳으
로 피난 하였는데 오랑캐들이 바라다 본즉 마침 까치가 많이 짓고 있
으므로 사람이 분명히 없는 것이라고 그대로 갔으므로 이 곳에 피난
온 사람들은 무사하였다 한다. 까치가 많은 산성이라 하여 <작성산>
또는 <까치성>이라 부른다.

李 城

전동면 松城里 李城山 위에 있는 城을 李城이라 부른다. 城안에 厲
壇이 있고 高麗太師 李棹가起居 하였던 곳으로 南北으로 壇을 一亭
式 쌓았으며 겨울에는 南亭에 거주하고 여름에는 東亭에 거주 하였

다 한다.

李城山

전동면 송정리 신방리에 걸쳐 있는 山이다. 돌로 쌓았는데 고려 때 李棹가 살았다 하여 李棹의 遺墟碑가 있다.

중 말

<무드리>와 <솔티>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일명 白衣道師로 알려진 학관 李定植 次男 李完珪 先生의 자손과 자기까지 白衣長 하여 民族혼을 심은 마을로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무드리>와 <솔티> 중간에 마을이 있다 해서 <중막>이라 부른다.

松谷里

百濟 때는 仇知縣의 지역이었다. 新羅統一 後엔 <大麓 木川>郡의 領縣에 속했으며 高麗 때엔 淸州牧에 속하기도 했었다. 李朝 太宗때 全義縣에 속했다가 다음에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全義縣에 속했다. 李朝末葉엔 全義郡 東面의 지역으로서 <보평> 안쪽 골짜기에 자리 함으로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松谷이라 불렀다. 1914年 행정구역 改革時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松谷리라 하고 연기군 全東面에 編入되었다.

가재골

松谷리에 있는 마을이다. 가재가 골짜기에 많다 해서 <가재골>이라 부른다.

꽃짜골

松谷里에 있는 마을로 꽃이 잘 어울려 피는 마을이라 해서 <꽃밭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꽃짜골>이라 부른다 한다.

소 골

松城里에 있는 마을이다. <보령> 안쪽 골짜기에 있으므로 <속골> 즉 산속에 있는 마을로 <속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소골이라 부른다 한다. 松谷이라고도 한다.

모시터

<모시터>에서 조치원읍등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모시터>라 부르고 그 아래 마을을 <모시터> 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역시 <모시터>라 부른다. <모시터> 고개엔 위쪽으로 오봉산이 있어 오봉산엔 山祭堂과 기우제당이 있어 옛날엔 이 곳 사람들이 그산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한다. 西方에서 흘러오는 물이 고여 있는 곳, 즉 못터가 있어서 <모시터>라 부른다는 一說도 있다.

兵馬山

전동면 송옥리 東쪽에 있는 山을 兵馬山이라 부른다. 산 높이는 116m가 되는데 고려 충열왕 17년에 韓希愈와 金炆(김흔)등이 원나라 징수 <설도간>과 함께 원수봉과 이 산에서 웅거하였다가 크게 침입하는 거란군사들을 산 아래에서 맞아쳐서 크게 공주 곱나루까지 추격하였는데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려 있었다 한다.

성 재

<하소골> 동북쪽 송곡리 산26번지에 있는 낮은 土城이다. 土城이 아래위 두 층으로 되어있는데 三韓 때의 農城이다.

중소골

<소골> 중앙에 있는 마을을 <중소골>이라고 부른다. 또한 <능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의 孫인 예조판서 金南重의 墓를 여기에 쓰게 되자 小谷을 陵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陵이 있는 곳이라 <능골>이라 부른다. 그후 영의정, 병조판서 등 많은 고관들의 陵을 썼다 한다.

옥자리터

<모시티> 동쪽에 <모시티>에서 300m거리에 <옥자리터>가 있다. 옛날 삼한시대에 農城인 土城을 쌓을 때 부역자를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옥자리인데 한번은 애를 뺀 여인을 가두어 두었더니 쌍둥이를 분만하여 그 때부터 옥자리를 옮겼다 한다. 지금은 일명 쌍둥이 자리라 하여 집을 짓지 않고 田畓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쌍둥이 자리>라고도 부른다. 松谷里 38번지에 있다.

石谷里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統一 後는 <大麓 木川>郡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太宗 때에 전의현에 속했다가 다음에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전의현에 속했었다 마을 앞에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배기> <돌꽃이>로 불리우던 곳으

로 1984年 行政區域 改革 때 <石谷里>라 하여 燕岐郡 全東面に 編入되었다. 李朝末葉엔 全義郡 東面の 지역이었다.

선돌배기

석곡리에 있는 마을이다 <선돌>이 서 있었다 하여 <선돌배기> <돌꽃이> <石谷>이라 부른다. 옛날에 한 장수가 한길이 넘는 돌을 지팡리로 짚고 다니다가 지금의 109번지에 꽂아 놓았는데 그 돌을 <선돌>이라 부른다 한다. <선돌>이 丙午年 장마에 넘어져 지금은 그 자취가 없어졌는데 <선돌>이 있던 마을은 <선돌배기>의 <하석곡>이며 이 <선돌>을 주축으로 웃말은 <위선돌> 가운데는 <중석곡>이라 부른다. <중석곡>은 <온고비골>이라고도 부른다.

國師峯

<돌꽃이> 남서쪽에 있는 산을 <국사봉>이라 부른다. 높이가 267m되는 산인데 산에 돌산과 청마가 있고 산제당이 있다. 고려 때 부터 烽山峰으로서 국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烽花臺이며 또한 庶民들이 山神祭를 지내는 祭壇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선 돌

<아래돌 꽃이>에 있는 바위를 선돌이라 부른다. 옛날에 한 장수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여기에 꽂아 놓은 돌이다. 한 길이 넘는 돌로서 <입석>이라고도 부른다. 선돌은 忠北 江外面 深中리에 살던 壯士 韓氏가 이 곳에 공부하러 다니며 짚고 다니다가 마을 앞에 꽂아 놓았다 한다.

寶德里

百濟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 때는 <大麓 木川>郡의 영현에 속했다. 고려 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 때에 전의현에 속했다가 다음에 전기현에 속했으며 다시 전의현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 넓은 들과 보가 있어서 농사가 잘된다 하여 <寶德>이라 부르는데 1914年 行政區域 改革 때 寶坪의 <湫>字와 <덕소>의 <덕>字를 따서 보덕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속하게 되었다.

寶 坪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붓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붓들> 즉 말해서 湫가 있는 들이라는 뜻이 변해서 <붓들>이라 부른다 한다. 앞들이 넓고 湫가 있어서 農事가 잘 되어 붙여진 名稱인데 그래서 보물같은 들이라 하여 <寶坪>이라 부른다 한다.

書堂골

보평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서당이 있어서 書生들이 글 읽던 자리에 마을이 있다 해서 서당골이라 부른다.

德 沼

<지프네> 위쪽에 있는 마을을 德沼라 부른다. 옛날엔 냇물이 흘러와서 고여 <德沼>라 부르고 仙女들이 노는 神仙地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래가 쌓여서 沼는 없어졌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고이는 沼가 있다 해서 이 마을을 <덕소>라 부른다 한다.

절터골

<연수봉> 남동쪽에 300m정도의 溪谷이 있는데 이 溪谷을 <절터골>이라 부른다. 옛날 연수봉 기슭에 <연수사>란 절이 있었다. 그 <연수사>가 어느 해인가 그 해부터 빈대가 많아져서 중들이 절을 불태워 버렸다. 지금은 절터의 흔적과 기와장만 남아 있는데 아래위로 150여m의 溪谷을 옛날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터골>이라 부른다.

장군바위

<寶坪> 북쪽 냇가 산기슭에 있는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부른다. 또한 <장군암> <석정>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바위가 넓은 바위 위에 얹혀 있고 그 밑에 큰 냇가 흐르는데 명종 때 학자 李坤이 土亭 李之罔을 맞아 바위 위에서 道學을 답론 하였던 바위라 한다.

羅氏烈女門

<사당골> 앞에 있는 旌門을 羅氏의 烈女門이라 부른다. 옛날 金震徹의 아내 羅氏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그 孝烈을 찬양한 旌文이 여기에 서 있다.

深 川

<寶坪>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서 깊은 냇가 있다 해서 <深川>이란 부른다. 또한 <지프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은 <깊은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프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深川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鳥川으로서 沼가 있었다 한다. 여기는 깨

끗한 물이 고여서 仙女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놀고 가는 곳이라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은 沼자리에 깊은 못은 없어졌으며 그냥 통칭 深川이라 부르고 있다.

女必從夫(여필종부) 한 杞溪俞氏(기계유씨) 열려문

지금부터 250년전인 이조 英祖(영조)때의 일이다. 차령산맥의 줄기를 뒤로 지나고 錦江(금강) 맑고 푸른 물이 앞을 흘러 산천이 수려하고 인심 후한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 居昌(거창) 고을에 愼氏(신씨) 집안이 모여살고 있었다. 이 신씨 가문에 爾初(이초) 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유씨가 그의 처다. 유씨는 본시 성품이 어질고 착했으며 또한 총명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이해심도 깊었다. 일가친척 간에 화목을 도모하였고 시부모 봉양과 남편 섬기기를 깎듯이 하였으니 글자 그대로 孝婦(효부)였다.

부부 사이는 琴瑟(금슬)이 좋았음인지 슬하에는 10남매를 두어 사람들은 유씨를 일컬어 신씨 문중의 부덕이라고 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의 운이 다했던지 아니면 이들 부부의 금슬을 시샘 받았음인지 그토록 아끼던 남편을 잃고 말았다.

은 집안이 갑자기 슬픔에 잠기고 모여든 아들과 딸의 울음소리는 그칠줄을 몰랐다. 유씨는 남편의 장례를 정중히 모시고 하루는 자식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평소에 너희 아버지를 정성껏 받들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것 같구나, 이제 나 혼자만이 남아 있으니 어찌 婦德(부덕)을 다한다 할 수 있으랴, 이제 나도 너희 아버지를 따름이 지어미의 본문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울며 불며 만류하였으나 이미 유씨의 마음

은 결정되어 있었다.

유씨는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형제 간에 더욱 화목하게 살도록 하거
라”

하고 당부를 마친 유씨는 그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였다.

자식들은 계속 울면서 자기들의 효성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죽음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유씨
는 식음을 전폐한지 7일만에 끝내 남편의 뒤를 따라 죽으니 女必從
夫(여필종부)라 죽음의 길까지 남편을 따라갔다.

남편을 극진히 섬겼고 죽음까지 택한 유씨의 극진한 태도는 이웃마
을로 퍼져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나라에서는 유씨의 婦
德(부덕)을 길이 길이 거울 삼도록 하였다.

마침내 英宗(영종) 己酉(기유)년에 旌閭門(정려문)을 세우게
하였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그 후손들이 유씨의 뜻을 이어 열녀표창을 하
고 있으며 인근 향교와 학교에서도 효행 뛰어난 자를 뽑아 표창하고
있다.

남편의 죽음을 따르다는 일은 죽음의 길에서도 남편을 섬기겠다는
여자로서의 가특한 생각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각은 그 실천에 있어서 다소
달리하여야 하겠지만 두고 두고 우리들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산이
표적같은 旌閭다.

美谷里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었다. 新羅 때는 <大麓 木川>郡의 領縣

이었으며 高麗 때는 淸州牧使에 속했었다. 李朝太宗 때 全義縣에 속다가 다음에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全義縣에 속했었다. 원래 이 지역은 溪谷에 風流가 있어서 선비들이 즐겨찾던 곳으로 <美谷>이란 時調가 학이 있듯이 아름다운 溪谷이 있는 곳으로 通稱되어 왔으며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美堂里>라 하고 연기군 全東面에 編入되었다. 李朝末葉엔 全義郡 東面의 區域이었다.

雲住山城

全東面 美谷里에 雲住山頂에 있는 山城을 雲住山城이라 부른다. 옛날에 全城府使가 있을 때 牧民을 다스렸던 山城이며 임진왜란 때 싸움이 있었던 山城이다.

按廉使遺墟碑

<학당이> 앞에 있는 碑를 <按廉使遺墟碑>라 부른다. 이 碑는 按廉使였던 김유허의 사적을 기록한 遺墟碑다. 김유허는 고려 말엽의 忠臣으로서 奸臣들의 모략에 벼슬을 버리고 樂鄉하여 이 곳에 살면서 학당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한 학자다.

三千岩

<운주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三千岩이라 부른다. 바위밑에 크고 깊은 굴이 있어서 木川(木川) 修身(修身)으로 통하였다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 바위에 3,000명이 피난하였다가 왜적이 여기를 지날 때 바위에 숨어있던 3,000명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우는 바람에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 발각되어 모두 피살되었다 한다. 그래서 3000 명을 몰살당한 바위라 하여 <三千峯> <三千바위>라 부른다. 지금은 그 굴이 막혀있다 한다.

水口洞

<미륵당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임진왜란때 이곳에 피난하였던 수백명이 왜적에게 피살되어 피가 내를 이루었으므로 피숫골 또는 <피수동>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흉하여 <水口洞>으로 고쳤다 한다.

학당리

<미륵당이> 동북쪽 산속에 있는 마을을 <학당리>라 부른다. 고려말엽 안령사 김유허가 여기에 살면서 학당을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한 마을이라 해서 <학당리> 또는 <학당이>라고 부른다 한다.

미륵당이

<조일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미륵당이> <미당> <미당리>라고도 부른다. 마을 모퉁이에 미륵이 있는 마을이라 <미륵당이>라 부른다.

達田里

백제 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大麓 木川>郡의 領縣 속했었다. 고려 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太宗 때 전의현에 속했다가 다음 해에 전기현에 속했으며 다시 全義縣에 속했었다. 李朝末葉

엔 全義郡 소서면의 地域으로서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다락과 같으므로 <다락골> 또는 <達田>이라 불렀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시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達田里라 하고 燕岐郡 全東面에 編入되었다.

다락골

達田里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다락모양이라 해서 <다락골>이라 부른다. <다락골>위에 있는 마을은 <위다락골>이라고 부르며 아래에 있는 마을은 <아래다락골>이라 부른다.

安東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龍頭眉

용두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근처에 용이 하늘로 昇天하였다는 용뭇이 있다 해서 <용뭇> <용지>라 부르며 또한 용두산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용두미>라 부른다 한다.

쇠성골

금성산 남쪽 밑에 있는 마을을 <쇠성골>이라 부른다. 금성산은 전동면과 서면 경계 곧 까치성 위에 있는 山城인데 돌로 쌓은 성이 견고하여 철옹성과 같다 해서 그 아래 남쪽 밑에 있다 해서 <쇠성골>이라 부른다.

金 城

達田里 金城山 위에 있는 山城을 金城山城이라 부른다. 이 山城은 崔孤雲의 딸이 築造하였다는 건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고 城址學者들의 說로는 百濟때 山城으로 추산한다.

권텃골고개

<비암골>에서 서면 쌍류리의 <권텃골>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를 <권텃골고개>라 부른다. 쌍류리 <권텃골>은 權氏들이 처음 정착한 마을인데 그 <권텃골>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이 고개를 <권텃골고개>라 부른다 한다. <서면고개>라고 부를 때도 있다.

비암골

<부거실>에서 <다방리>의 비암사로 올라가는 고개를 <비암골>이라 한다. 비암사로 올라가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비암골> 골짜기 아래의 마을도 <비암골>이라 부른다.

부거실

쇠성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어떤 부자가 좋은 산수를 찾아 이 곳에 살았다 하여 부자가 사는 마을이란 뜻에서 <부거실>이라 부른다 한다. 지금은 南陽전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 곳을 <부개실> <부거곡>이라고도 부른다.

多方里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때는 <大麓 木川>의 嶺縣에 속했다. 고려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때 全義縣에 속했다가 다음 해에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전의현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全義部 소서면의 地域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다락동>

<신리> <사방동>을 병합하여 多方里라 할 때 <자락>과 <사방>의 이름을 따서 《다방리》이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 되었다.

碑岩寺

全東面에서 西南에 位置하고 있다. 全義驛에서 약 25리가 되며 이 寺刹의 創建은 記錄이 없어 詳細히 알 수 없으나 推測하건데 지금으로부터 2,000餘年前에 創建한 것으로 推定을 한다.

現 極樂寶殿도 고려 중엽에 창건한 것 같다. 極樂寶殿 앞에는고려 것으로 推想되는 花崗岩製 石塔과 右側 前面으로는 住持가 거처하는 寮居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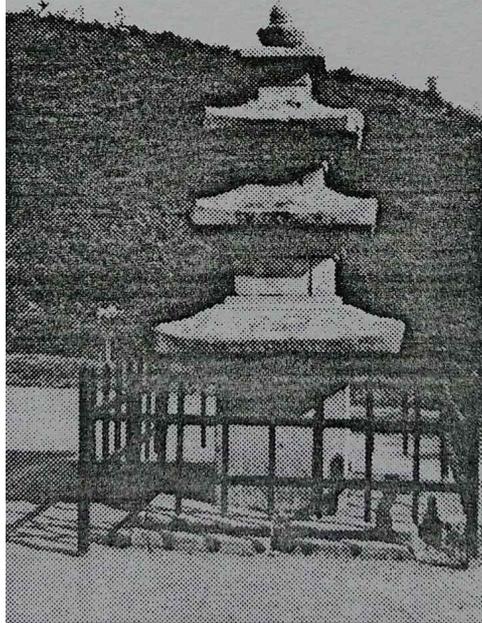
銅穴峠

<다락골>에서 공주군 의당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銅穴지>라고 부른다. 여기를 <銅穴재>라고 부르는 것은 이 고개를 넘으면 儀堂面에 銅穴寺가 있어서 <銅穴재>라 부른다 한다.

다락골

<사방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地形이 다락같이 생겼다 한다. 옛날 이 마을엔 부자집과 가난한 집이 한 채씩 있었다. 흥년이 들면 가난한 집은 부자집의 도움으로 살았고 가난한 집에서는 부자집을 돌봐주고 해서 재미있게 살았다 한다. 헌데 그 후 얼마 안가서 부자집에 불이나서 모든 것이 재가 되어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한다. 그 후 이웃 사람들은 불탄 이 마을을 가리켜 <뒸다>해서 <타락동>이라 부르다가 地形 따라 <다락골> <다락동>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경주최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碑岩寺石塔



碑岩寺 極樂寶殿앞에 3層으로된 높은 석탑이다. 석탑의 높이는 228m, 基壇의 폭은 170m로 고려시대의 作品이다. 石塔의 一部分이 파손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타락한 僧侶의 所致였고 佛像을 조각한 石佛體 3個를 얹어 두었다. 조각된 石佛體는 李朝朝의 것으로 추정된다.

수 량 골

<다락골> 남동쪽 골짜기에 새로된 마을이다. 깊게 파인 골이란 뜻으로 앞에 수령논이 많고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고 그 우물로 農事用으로나 食水로 쓰고 남는다 한다. 물이 많고 시원한 마을이라 하여 <수량골> <수량돌> 또는 새로된 마을이라 해서 新里라고도 부른다.

金方洞

多方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北東편으로 높은 산이 있고 西쪽으로 넓은 들로 되어 있는데 北東편을 가려 있으나 마을이 트이는 마을이라 하여 잘되는 마을이란 뜻에서 金方洞이라 부른다 한다. <사방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의 지도에서도 <金方洞>으로 되어있다.

蘆長里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때는 <大麓 木川>의 領縣에 속했었다. 고려때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太宗때 全義縣에 속했다가 다음 해에 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全義縣에 속했었다. 李朝末葉엔 전의군 東面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엔 갈대가 무성하여 <갈가리>라 불렀었고 임진왜란 때 학자 權柱가 이곳에 살면서 갈대의 덕을 입어 무난히 그 倭亂을 피한 후 마을을 그가 <노장>이라 하였다 한다.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이웃 洞里를 병합하여 <蘆長里>라 하고 연기군 全東面에 編入되었다.

양지말

<중로장>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바른 곳에 마을이 있다하여 <양지말>이라 부른다.

梨木洞

<원지기>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배나무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배나무가 많았다 하여 梨木洞이라 부른다. 慶州金氏가 많이

살고 있다.

竹葉里

<원지기>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주곶니>라고도 부르는데 <대나무골>이라고도 부른다. 옛날에 대나무가 무성했던 마을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나무는 나라에서 군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하여 상당히 아꼈던 대나무밭이라 한다. <대나무밭>이 있다 해서 <죽엽리>라 부른다.

원지기

<상노장>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宣祖때 학자 權柱가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무사하였다 한다. <원직>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蘆長

蘆長리에 <하노장> <중노장> <상노장>의 세 마을이 있는데 모두가 갈대와 연유한 마을명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학자인 權柱가 이곳에 살면서 倭軍이 쳐들어 왔을 때 갈대가 길게 늘어져 무사히 亂을 피할 수 있었다 하여 갈대를 칭찬하기를 <蘆長>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로장>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마을이 갈대숲 아래 위로 생기면서부터 위쪽은 <상노장> 아래는 <하노장> 가운데는 <중노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蘆長>을 <갈가리>라고도 부른다.

金沙里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엔 <大麓郡>의 嶺縣에 속

했었다. 고려때 청주목에 속했으며 李朝太宗 때 全義縣에 속했으며 다음 全岐縣에 속했다가. 李朝末葉엔 全義郡 소서면의 지역이었다. 지금의 저수지 부근에 金鑛이 있어서 金이 많이 나오므로 이 지역에있는 금성산의 위 사기소와 아래 사기소의 <沙>字를 따서 金沙里라 하였다 한다. 1914年 행정구역 개혁 때 金沙里로 燕岐郡 全東面에 編入하게 되었다.

사기소티

<사기소>에서 공주군 의당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사기소티> <사기소고개>라 부른다. 옛날엔 이 곳에서 굽는 사기 그릇이 유명하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 들었고 이 <사기소티>에서 바닷가에서 가져오는 소금과 새우젓과 교환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짐장사들이 넘어들며 지났던 고개다.

아래사기소

<사기소>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뜸> <주막촌> <하사기소>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사기그릇을 둘러싼 상인들과 일꾼들이 찾았던 주막이 있었던 곳이다. <사기소>아래에 있고 주막이 있었다 해서 <아래사기소> <주막뜸>이라 부른다.

사 기 소

金沙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고려때부터 李朝때까지 沙器所를 두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사기소 자리엔 가마 자리가 있고 사기조각이 있다. 그릇을 굽던 자리에 마을이 있다 해서 <사기소>라 부른다 한다.

鳳 臺 里

百濟때는 仇知縣에 속했으며 新羅시대엔 大麓군의 領縣에 속했었다. 高麗때는 淸州牧에 속했으며 李朝 太宗때 全義縣에 속했으며 다음 全岐縣에 속했다가 李朝 末葉엔 全義郡 東面의 地域으로서 1914年 行政區域 改革때 古所岾里 西方洞 垚洞等を 병합하여 서봉과 망경대의 이름을 따서 鳳臺里(봉대리)라 하고 燕岐郡 全東面に 編入(편입)되었다.

평 말

봉대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평평한 땅 위에 있다해서 <평말>이라 부른다.

덧 골

<고삿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사태말> <대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엔 사태가 많이 나온 마을이라 하여 <사태말>이라 불렀다 한다.

棲 鳳 洞

<고삿재> 서북편에 있는 마을을 棲鳳洞이라 부른다. 土形이 鳳이 알을 품고 있는 形局이라 하는데 옛날에 鳳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棲鳳洞이라 부른다. 또한 <고삿재> 서쪽에 마을이 자리 하였다 하여 <서방골>이라고도 부른다

고 삿 재

봉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전동면에서 天原郡 修身面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고삿재>라 부르며 이 재는 운주산과 망경대 중간 허리가 잘록하게 되어 있는 고개다. 이 고개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고삿재>라 부른다. <고소티> <고소티리>라고도 부른다.

牧牛場

瑞鳳洞 북쪽 산기슭에 있는 터다 산기슭에 약 3ha가량 되는平地가 있는데 옛날 李朝 中葉에 이곳에서 牧畜을 많이 하였던 곳이라 하여 <牧牛場>으로 불리우고 있다. 지금은 雜木이 무성하지만 옛날에 動物을 키웠던 자리라 하여 牧牛場이라 부른다.

통미

<寶坪> 남쪽에 외따로 있는 낮은 산을 <통미>라 부르고 그 산 밑에 있는 마을도 <통미>라 부른다. <통미산> 아래에 있다 해서 <통미>라 부른다.

삼천바위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에 들리면 항상 구름이 덮여 있으며 덕이 많은 산으로 불리우는 운주산이 있고 그 산 중턱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삼천바위>라 부른다. 또한 <3千岩>이라고도 부르는데 운주산에 기우제터도 있고 해서 명당으로 손꼽히는 산이다. 운주산 허리에 있는 삼천바위는 바위밑에 크고 깊은 굴이 있어서 말로는 굴속으로도 천원군 목천과 수신면으로도 통한다 하는데 여기엔 사람이 3천명 가량이 피난할 수도 있다 한다.

임진왜란 때 밀물처럼 쳐들어 오는 오랑캐를 막을 길 없어서 군사들이 여기 저기서 참패당하자 백성들은 주인을 잃은 듯 방황하기 시작했고 모두 집을 버린채 피난을 가야만 했었다.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우국지사나 젊은이들은 의병에 참가하여 적을 무찌르는데 앞장 서기도 했지만 많은 부녀자와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은 산속으로 산속으로 피난을 갔었다. 여기 전의땅에도 오랑캐들이 몰려오자 백성들은 자연, 재산과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모두 뿔뿔이 피난을 갔었다. 그 때 피난을 갈려면 명당 자리로 가야 한다해서 운주산의 굴속으로 찾아온 피난민만 해도 3천명이 넘었다. 오랑캐들은 쳐들어 와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전채의 비극은 꽤한 백성만이 지는 슬픔이란 그 말대로 굶주린 이리떼 처럼 그들은 닥치는 약탈을 했고 노인네를 보면 아무데서나 죽였고 어린 아이들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비극이었다. 노인을 비롯하여 부녀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3천명이 뻗뻗하게 들어앉아있는 굴속은 답답하기만 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을 계속한 굴속의 생활에 짜증을 느낀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을 보채기도 했었다. 그래서 가끔 어린 아이들의 울음이 밖에까지 크게 들리기도 했었다. 마을을 점령하고 이리떼처럼 백성을 못본 오랑캐들은 때를지어 가까운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인기척 하나 발견못한 오랑캐들은 점점 산속까지 뒤지게 되었다. 굴속에서 밥을 해먹고 그것도 연기가 밖으로 썰까봐 걱정스럽던 그들이 하루 세 번 불을 피우고 무사하면 후유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였던 것이다. 밖에 일이 궁금해서 밖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금 읍내엔 오랑캐들이 하나도 없고 모두 산중을 수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믿는테가 있는지 안심하

는 눈치였다. 이 산은 명산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다. 산에 올라와서 굴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 했던 것이다. 헌데 이 굴속에서 답답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아낙네가 산월이 십개월이 되어서 출산달이 되었고 그 진통을 겪게 된 것이다. 한밤중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그 산부는 굴속 한쪽에 누워서 여러 아낙네의 간호를 받았지만 진통만 있을 뿐 아이는 쉽게 낳아지지 않았다. 그 아낙네가 모진 진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허둥 지둥 들어왔다. 지금 오랑캐들이 이 산으로 올라와서 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위구멍을 막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오랑캐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오랑캐들이 굴 밖에서 서성거리며 굴 속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가웃뚱거릴 때 산모는 바위속에서 힘을 주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크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밖에서까지 크게 들렸다. 굴속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오랑캐들은 바윗돌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도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오랑캐들은 여기에 사람이 숨어 있다고 어둠에 대고 마구 총질을 하기 시작했다. 억울한 백성들은 피난을 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들켜서 모두가 때 죽음을 당했다 한다. 그래서 이 바위를 <3千岩> 또는 <삼천바위>라 하는데 그것은 삼천명의 피난민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들켜서 모두 때 죽음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한다.

山 神 祭

청송리 <대제>마을에 있는 山神祭이다. 이 부락엔 5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수백년전부터 매년 산신제를 지낸다. 제사는 10月 上旬에 지내는데 山祭壇은 雲柱山 중턱에 天然적인 바윗돌이 있는데 여기를 山제단으로 하고 마을 전체의 공출로 이루어진다. 한번 제사지낼 때마다 집집마다 쌀 한말을 공양미로 걷어 들이고 그것으로 떡과 음식을 준비하고 소나 돼지를 잡아 지내는데 제수는 보름전부터 집에서 육식을 금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며 山祭는 2월전 山祭堂에서 山神께 모든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행한다.

작성산의 명당

신방리 <뱅이골>마을 동쪽에 우뚝 솟은 산을 <작성산>이라 하고 그 산에는 이름난 명당자리가 있다 한다. 그 명당자리에 묘를 쓰면 3년이내에 그 사람과 가족은 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그 반면에 이 근처엔 가뭄이 들고 해서 마을은 온통 고통속에 싸인다 한다. 명당자리는 사방이 바위로만 싸여있고 가운데만 4m정도의 흙이 있는 곳이다. 옛날부터 여기에 묘를 쓰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파내는가 하면 묘를 못쓰도록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감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를 적성산의 명당이라 부른다.

큰 절 골

전동면 영당리 <마느실> 남서쪽 1km지점에 있는 절터를 <큰 절골>이라 부른다. 여기를 지점으로 또다른 골짜기에 작은 절이 있어서 여기를 큰절골이라 하는데 지금 절터골엔 70坪 정도의 자리에 엄연한 절터 자리가 보인다. 여기는 또한 지관들이 名堂자리로 꼽는 곳이다.

미륵당

<미륵당이> 모퉁이에 있는 미륵을 미륵당이라 부른다. 男女 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 3尺 5才, 넓이 1尺 8才리 되는 미륵이다.

신암골

신밤리에 있는 마을이다. 赤城山에서 서북쪽으로 뺀 은행이곡의 우측에 산기슭을 타고 비스듬히 위치한 <음달말>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변두리가 크고 넓은 바위가 뿔이 깔려 있어서 또한 바위가 수려하다 하여 <신암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바위는 흔적도 없고 그 잔재로 잔돌만이 산중턱에 군데군데 놓여있다.

절터골

양곡리 산47번지에 있는 골짜기를 <절터골>이라 부른다. 金城山の 성터와 이 성터를 중심으로 <정자>부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 절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전해오는 말로는 신라때 호국불교의 불력의 힘으로 亂을 없애려는 뜻에서 僧軍이 있었던 곳으로 推測하기도 한다. 절터 옆에는 雙墓가 있는데 장수의 것이라고 전해 내려오며 빈대가 많아서 절을 불에 태운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民 謠

〔 모심기 노래 〕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만수산 꼭대기
구름 모았다.
쏘나기 삼형제
거기들었다
어혈릴릴 상사되야
여봐라 농부 말들어
느마지기 왼뱀이가
반달만치 남았다.
어서마빠 심고가세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헌진(남) 제공>

〔 시집살이 노래 〕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있어서
누룩으로 담을치고
명지전대 울띠맷나
내집에는 없어서

나무전대 올띠맷나
포록쫘룩 뜯던나물
옹술에 삶아서
입벌리고 떠넣드니
첫순갈에 옹기들고
두순갈에 숨이도네
아홉아들 아홉인가
외딸이 딸이지

<연기군 남면 송담리 임재정(남) 제공>

〔打麥歌〕

옹혜야 어절시고
잘도한다 옹혜야
단들이만 옹혜야
하드래도 옹혜야
열쫘이나 옹혜야
하는듯이 옹혜야
팔구월에 옹혜야
파종해서 옹혜야
그해삼동 옹혜야
다지나고 옹혜야
익년이월 옹혜야
재초하고 옹혜야
삼월지나 옹혜야
삼월들래 옹혜야

삼월남풍 옹혜야
대맹황으로 옹혜야
푸른잎과 옹혜야
푸른종자 옹혜야
죽은듯이 옹혜야
변해져서 옹혜야
황앵같은 옹혜야
황색되어 옹혜야
오륙월에 옹혜야
수확하여 옹혜야
이와같이 옹혜야
타작해서 옹혜야
옹계둥게 옹혜야
재여놓고 옹혜야
삼동삼촌 옹혜야
양식함세 옹혜야
이럼으로 옹혜야
오월농부 옹혜야
팔월신선 옹혜야
함이로다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절시구 옹혜야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영철(남) 제공>

「논매기 노래」

얼렁얼 상사디야
이 농사를 얼른지어
나라에 상납하고
부모처자 먹고 살고
세세 —
얼렁얼 상사디야
사오월 피꼬리는
수양버들 가지얹아
피꼬리 노래
부르는 소리
처량도 하다.
우리 동무들은 농부가를
처량하게 불러보세
뒷동산 살구꽃은
가지나 가지 보내신
얼렁얼 상사디야
아침 들 푸른 들판
보기만 하여도
얼렁얼 상사디야
<연기군 전의면 전의리 홍건표 (남) 제공>

「떡타령」

정월보름 달떡이요
이월한식 송편이요
삼월삼진 쑥떡이로다
떡사려 — 떡사려 —
사월팔일 느티떡에
오월단오 수리치떡
유월유두에 밀정편이로다
떡사려 — 떡사려 —
칠월칠일에 수단이요
동짓달 동지날에 세알세미
섯달에는 골무떡이라
떡사려 — 떡사려 —
세기밭죽 호반죽
네기밭죽 인절미로다
먹기좋은 꿀설기
보기좋은 백설기
시금틸틸 중편이로다
떡사려 — 떡사려 —
키 크고 싱거운 흰떡이요
의가좋은 개피떡
시앗보았다 세부리도다
떡사려 — 떡사려 —
글방도련님 평양떡이요

앞집아가씨 실패떡
세살등등 타래떡
떡사려 — 떡사려 —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영철 (남) 제공>

〔 녹두새의 노래 〕

아랫녘 새야
윗녘 새야
전주고부 녹두새야
너까먹고 나까먹고
장고채워 —
<연기군 남면 고정리 636 광덕신 (남) 제공>

〔 타작의 노래 〕

에야해 —
에야해 —
저건너 갈비봉에
비 들어온다
에야 — 해
에혜혜 — 에야혜
오옴 — 들로 나가세
<연기군 남면 진의리 임헌빈 (남) 제공>

〔 김매기 노래 〕

에혜야 에혜야

상사되야
이 농사를 지어서
부모님 봉양도 하려니와
나라에 바치세
에헤야 에헤야
얼렁얼렁 상사되야
<연기군 남면 송담리 유진아 (남) 제공>

〔 請 婚 歌 〕

앞집이라 열순이는
인물잘난 탓이든지
양반이라 그러한지
열살부터 오는중매
오늘까지 오건마는
이내 나는 어이하여
반사십이 다되어도
중매할미 전혀없노
보살할미 보통장사
성기장사 바디장사
쌀을주고 밥을취도
이내중매 아니오고
할일없고 할일없다
사랑방에 손님와서
아버지와 같이앉어
편지놓고 읽을적에

행여나 중매신가
아이불러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방안으로 들어가서
면경체경을 둘러놓고
나의모양 살펴보니
나이사 많건만은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수심만지노라
꽃이피면 오시마더니
잇새가 피어도 아니오네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연기군 남면 양화리 임여사 (여) 제공>

[장타령]

예 왔습니다.
허혈시구나 들어간다
폼배하고도 들어간다
네선생이나 나련마는
날보담도 자리한다
일자나한자 들고나 보니
호소리송송 해송송
두이자나 들고나 보니

이장 저장 다니다가
아저씨장으로 돌아왔네
석삼자나 들고나 보니
삼십먹은 노총각
장가놀이만 들어간다
넉사자나 들고나 보니
사시장춘 첫여름에
밭에서 점심하는 때가
바쁘고도 바쁘도다
다섯자나 들고나 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에
그네놀이 좋을시구
여섯육자나 들고나 보니
녹음소리가 좋을시구
일곱칠자나 들고나 보니
칠령칠령 판 머리에
갑사댕기나 늘어난다.
여덟팔자나 들고나 보니
팔월이라 보름날에
달마중노래가 좋을시구
아홉구자나 들고나 보니
산들산들 가을바람
단풍놀이가 좋을시구
열십자나 들고나 보니

시월이라 개천절에
장구놀이가 좋을시구
백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백만장자 양반이
각설이 한때가 부럽도다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영철 (남) 제공>

童 謠

〔 비단짜기 노래 〕

아가아가 문 열어라
비단짜는 구경가자
놓고 짜고 들고 짜고
통수없이 잘도짠다
그 비단을 그리 짜서 누구줄래
우리오빠 장가갈 때
금자철류 하여줄래
그 나머지 누구줄래
우리언니 시집갈 때
가마후장 둘러줄래
<연기군 남면 양화리 임여사 (여) 제공>

〔童 謠〕

배엿장사 똥구멍은 끈적끈적
기름장사 똥구멍은 매끈매끈
선생님 똥은 개도 안먹고
어린아이 똥구멍은 달기도 하다

뗏다 보아
무엇이 뗏느냐
우편국 마당에 좋구나
넘소식 뗏구나

가자가자 갓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김치가지 꽃가지
맨드라미 봉선화

아가리 딱딱 벌러라
열무김치 들어가다.
아가리 딱딱 벌러라
염라대왕 들어간다

큰바다 작은 바다
산골너머 해가 뗏다

등글등글 등글세상
내배같이 등글어
배야배야 불러요

옛장사 불러요

내배가 불러요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명철 (남) 제공>

〔缺齒謠〕

앞이빠진 갈가지

웃이빠진 갈가지

서울길로 가다가

암담한테 채여서

쇠똥에 미끄러져서

개똥속에 코박고

밥먹는데 가지마라

밥숟갈로 뺨때린다.

밥푸는데 가지마라

밥주개로 뺨때린다.

똥누는데 가지마라

밀씨개로 뺨때린다.

<이빠진 아이를 놀리며> (燕岐地方)

〔童謠〕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터발에도 안된다.

상추씨앗 밟는다.

꽃밭에도 안된다.

꽃모종을 밟는다.

울타리도 안된다.
호박순을 밟는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종종머리 찾았네
까까머리 찾았네
장독대에 숨었네
까까머리 찾았네 .
방앗간에 숨었네
빨간댕기 찾았네
기둥뒤에 숨었네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명철 (남) 제공>

〔童 謠〕

까치까치 낭낭까치
나비 나비 파랑나비
지비지비 록지비
인두한쌍 물어다가
추녀안에 집을 짓고
바늘로 연못없고
당사실로 외를 엮고
연지로 도배하고
부엌을 드러다보니
뽕매기로 술을 걸고
궁글채로 불을 피고
옥실박실 클러랑지

밖을 내다보니
사발같은 박고리가
예두가고 제두간다.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명철 (남) 제공>

參 考 文 獻

1. 朝鮮金石總賢
2. 日省錄
3. 朝鮮名勝古蹟
4. 忠清南道誌 (上)
5. " (下)
6. 忠清南道發展史
7. 忠清鄉土誌
8. 忠清寶鑑
9. 忠北年鑑
10. 燕岐郡誌
11. 鄒雲實記
12. 全朝鮮邑誌
13. 新朝鮮一覽
14. 忠南年鑑
15. 李朝實錄
16. 三國遺事
17. 三國史記
18. 東國輿地勝覽
19. 東國歲時記
20. 東國名山記
21. 朝鮮口碑傳說集
22. 韓國傳說集
23. 韓國傳說大鑑
24. 忠南의 傳說
25. 三綱錄
26. 忠南의 觀光資源
27. 陵園墓地
28. 南漢秘史
29. 國朝寶鑑
30. 高麗史
31. 韓國史
32. 國史大觀
33. 鮮南發展史
34. 佛教辭典
35. 朝鮮人名辭典
36. 朝鮮獨立運動史
37. 士鄉誌
38. 韓國民俗考
39. 韓國民謠集
40. 朝鮮民謠集
41. 朝鮮民謠의 研究
42. 各道府邑面開籽程表
43. 韓國地名沿革考
44. 朝鮮地誌資料
45. 韓國地名總攬
46. 朝鮮佛教通史
47. 公州郡誌
48. 高麗時代史
49. 韓國의 人脈
50. 朝鮮の郷土娛樂
51. 百濟の考古學
52. 朝鮮の風水
53. 朝鮮田制考
54. 朝鮮鐵道史
55. 地方行政區域發展史
56.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57. 韓國故事大典
58. 우리 나라의 文化財
59. 文化遺蹟總攬
60. 國史大辭典

編輯後記

燕岐郡은 옛부터 山川이 秀麗해서 많은 人物이 배출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特히 百濟때부터 新羅를 거쳐 高麗때에 이르러 많은 氏族이 定着하면서 이룩한 燕岐郡 文化는 참으로 庶民的이면서 高踏的인 樣相이다.

그동안 所地名과 傳說 및 人物의 여러모를 整理하기 위해 半年餘의 調查結果 이만한 冊이나마 出刊된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라고 自問自答을 해본다. 아직 資料面에서 不足한 點이 많음을 痛感하나 이 機會를 처음으로 더욱 發掘하여 빛나는 記錄으로 좋은 冊이 앞으로 더욱 續刊되기를 빌어본다.

끝으로 資料蒐集과 考證에 많은 心勞를 해주신 여러 先生任께 感謝를 드립니다.

編輯者

本圖書는 韓國文化藝術振興院으로부터 出版費 一部를 支援받아
發刊되었습니다

鄉 土 史 料

1985年 1月 20日 印刷

1985年 2月 10日 發行

發行處：鳥致院文化院

發行人：李 基 鳳

編輯人：鳥致院文化院事務局

印刷處：日新印刷社

鳥致院邑 貞洞 72

☎ ②2243 ②7001

非 賣 品